

河南市史料集 ⑤

경기도 하남지역 독립운동사

윤종준 편저

後 高 麗 一 年 六 月 一 日 發 行

經 由

後 高 麗 一 年 六 月 一 日 發 行 后 村 邑 長 十 二 日

河南文化院

하남시 사료집 5

- 경기도 하남지역 독립운동사 -

尹鍾俊 편저

하남문화원

발 간 사

하남문화원장 양 인 석

우리 하남은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어서 선사시대로부터 사람이 살기에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기에 오랜 역사를 품고 발전하여 왔습니다. 그리하여 미사리 선사유적을 비롯하여 수많은 문화유적이 곳곳에 분포하고 있으며, 다산 정약용 선생은 하남의 고골 지역이 백제의 도읍지였다고 비정(比定)하였던 것입니다.

하남문화원에서는 그동안 우리 고장의 잃어버린 역사 찾기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향토사료 조사사업'을 통하여 하남의 역사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발간해 왔습니다. 지방 자치가 정착되어 가는 시기에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문명과 문화의 뿌리를 찾고, 선사시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고장의 역사적 실체를 연구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들을 찾아 정리함으로써 미래의 하남이 문화복지의 도시로 발전하는 데에 밑거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동안 하남문화원이 발간한 『河南市 史料集』은 선사시대의 기록부터 정리하기 시작하여 1999년에 제1집(고대, 중세편)을 발간한 이후로, 제2집(조선시대 1), 제3집(조선시대 2), 그리고 2004년에 제

4집(하남에서 출생한 휘문고 설립자 민영휘 관련자료)까지 발간되었으며, 이번 제5집은 우리 하남 지역에서 진행되었던 항일운동과 관련한 자료를 정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남의 선조들은 일본강점기 시대에도 민족자존의 정신을 지키는 데에 적극 동참하였으며, 내 고장에 대한 애향심과 애국심으로 이 땅을 지켜냈습니다. 특히 3.1운동 시기에 전국적으로 만세운동이 전개되자 하남의 동부지역과 서부지역에서도 봉화를 올리는 것을 신호로 하여 동시에 만세 시위를 일으켜 상일리에 있던 일본 헌병주재소까지 나아가 대한독립만세를 크게 소리 높여 외쳤으며, 이대현, 김교영, 구희서 등 만세운동을 주도한 인물들은 투옥되어 모진 고문을 받고 옥고(獄苦)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애국선열들께서 피 흘려 지켜낸 이 땅에서 문명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애국선열들의 애국정신을 본받고 새로운 세대에게 전승하여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이제 이 책자의 항일운동사 자료를 통하여 우리 고장에서 전개되었던 항일운동에 대하여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고, 내 고장 하남에 대한 자부심을 드높이는데 기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자료집이 나오기 까지 많은 협조를 해 주신 필자와 문중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7. 12. .

서 문

한반도의 중심에 위치한 '하남'은 우리 나라 역사의 전 시기를 통하여 매우 중요한 거주지였다. 한강이라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하여 선사시대로부터 인류가 거주하여 왔으며, 삼국시대를 거쳐 현대사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지역의 거점으로 유지 발전되어 왔다.

특히 하남지역은 백제 도읍지의 위치와 관련하여 주목을 받아 역대 역사서에 백제의 도읍지였다고 기록되어 왔으며, 학자들 간에 뜨거운 논쟁을 불러 일으켰고 현재까지도 그 논쟁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역사적 논쟁 때문에 하남의 역사는 바로 백제의 역사로만 인식하고 그 이후의 역사에 대해서는 관심이 부족한 경향이 있다.

우리 하남시의 시명(市名)이 바로 백제의 도읍이었던 '河南 慰禮城'이라는 역사 기록을 근거로 하여 백제의 도읍지로서의 자부심이 시명선정(市名選定)의 배경이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고대의 역사에 대한 관심은 당연한 것이다. 다만 우리 하남의 역사적 전통을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그 이후의 역사에 대한 관심도 가져야 할 것이다. 古代에 찬란했던 역사와 문명의 시대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이후의 역사가 단절되고 없다면 그 의미는 축소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명과 역사가 계속 이어져 오늘까지 이어온 줄기가 튼튼하게 살아 있을 때 비로소 그 지역의 문화적 전통이 새로운 발전의 기초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하남지역에는 춘궁동의 석탑을 비롯하여 천왕사 등 고려 시대에도 문화적 중심지였던 흔적이 전해 올뿐 아니라 조선시대에 와서도 광주(廣州)의 읍치로서 행정과 문화의 중심지였다. 그러므로 古代에서 現代 까지 하남의 전 시대를 통하여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일은 면면히 이어져 온 하남의 역사를 큰 줄기로 잇고 미래의 역사를 이어가는 연구의 자료로 활용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동안 하남문화원에서는 하남관련 역사 자료를 모아 정리하는 향토사료 조사사업을 펼쳐왔다. 이 『하남시 사료집』은 1999년에 제1집을 시작으로 하여 제4집 까지 발간되어 『삼국사기』, 『삼국유사』, 『고려사』 등의 역사기록을 비롯하여 『조선왕조실록』과 금석문 자료 등 고대에서 근세까지의 역사를 정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제 『하남시 사료집』 제5집은 일본강제점령 시대에 우리 선조들이 항일운동을 전개하였던 흔적들을 찾아 정리하게 된 것이다. 하남시 지역은 일제 강제점령시대에 다른 어느 지역 못지않게 매우 활발한 항일 운동을 전개하였던 지역이었다. 남한산성의 성벽 안쪽이 지금은 비록 광주시 행정구역 안에 들어 있지만, 구한말 전국에서 일어난 의병들은 남한산성을 총 집결지로 정하고 서울로 진격하여 외세를 몰아내고자 하였던 중심지였다. 또한 3.1 만세운동의 불길이 전국적으로 번져 갈 때 하남 지역(당시 광주군 동부면, 서부면)에서도 만세운동이 전개되었으며 남한산성 안의 주민들이나 이웃한 성남 지역

의 만세운동과 상호 연락 하여 봉화를 신호로 하여 동시다발적으로 만세를 외쳐 일본 헌병들을 당혹스럽게 하였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또한 만세운동에는 전국적으로 천주교인들의 참여가 저조하였지만 하남지역의 천주교인들은 천주교 박해 때 순교자의 후손들로서 만세운동을 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하였던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무력에 의해 만세 운동은 좌절되었지만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형태로 민족운동은 유지되어 왔다.

지금까지 하남지역 출신의 의병장이나 의병활동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알려진 바가 없었다. 그러나 본 자료를 수집·정리하는 과정에서 하남지역에서도 의병활동이 있었음을 짐작케 해주는 단편적인 기록들이 다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당시 의병들은 의병을 일으킨 해당 지역에서만 활동 한 것이 아니라 전국 각지로 이동하면서 일본군과 전투를 벌였던 것인데, 의병들이 남한산성으로 집결하는 과정에서 강원도나 양평 지역에서 일어난 의병들이 하남지역을 거쳐 갔고, 또한 하남 지역 주변에서 게릴라식의 활동을 벌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3.1운동 당시에는 재판 기록 등을 통하여 만세운동을 주도한 인물들에 대해 확인할 수 있었고, 본 책자에 판결문 등을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또한 만세운동이 무력진압에 의해 좌절된 이후에 전개되었던 농민운동이나 수리조합 활동, 신간회 활동 관련 자료, 사회(공산)주의 운동 관련 인물과 자료 등을 수록하였다. 다만 사회(공산)주의 운동과 관련해서는 1945년 광복 이전과 이후의 활동에 대한 성격 규명이 정립되지는 않았으나 해방 이전의 활동은 성격을 구분해서 보는 시각에서 수록하였다. 모든 자료들이 장단점을 가지고 있듯이 이 책자

의 자료들도 역시 독자들의 검토와 비판 및 취사선택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 책자가 나오기까지는 문화원의 양인석 원장님의 각별한 관심과 이상범 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들의 노고가 많았다. 또한 김교영 독립운동가의 후손인 김학철님 등 관련 자료들을 제공 해준 후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다. 그리고 본인이 하남문화원 사무국장으로서 제직 하던 당시 이 자료집을 발간하고자 추진 할 때 일본어로 된 문서들을 번역하는 데 화갑수, 이민승, 최형하 세 분의 老先生님들께서 자원봉사로 참여하여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역부족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말았었다. 이제 이 자료집을 발간하면서 세 분의 상당한 분량의 원고를 실어 드려야 하는데 하남 관련 자료에 초점을 맞추어 자료를 정리하다보니 모두 수록해 드리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고 송구스럽기만 하다. 이제 이 책자를 발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 하남문화원 양인석 원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힘이 되어 주신 관계자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한 마음을 올린다.

하남시는 다른 시군에 비하여 무궁무진한 역사의 보고(寶庫)이다. 이들 문화유산을 잘 보존하고 가꾸어야 하며, 고대의 역사로부터 시작하여 현대에 이르기까지 하남의 모든 시대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지방화 시대 주민 자치의 시대를 맞이하여 피 흘려 이 땅을 지켜 낸 선열들을 위한 기념사업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아무쪼록 이 자료집이 하남을 이해하는 데 작은 보탬이라도 되기

를 바라고, 짧은 시간에 작업을 하다 보니 많은 오류와 누락된 기록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모두 편자의 책임이다. 많은 질정(叱正)을 바란다.

2007년 12월 일

윤 중 준

여 백

일 러 두 기

1. 본 사료집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제1부는 하남 지역의 항일운동사의 전반적인 개관을 다루고
제2부에서는 관련 자료들을 수록하였다.
2. 당시의 신문기사는 의미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대 어법으로
바꾸었다.
3. 일본측 기록은 번역된 내용으로 수록하였다.
4. 판결문은 원문 사진을 수록하였다.
5. 관련 자료의 원문이 방대한 경우에는 대표적인 면만 수록하고 자
료에 대한 개요를 소개하였다.

차 례

발간사 / 3

머리말 / 5

일러두기 / 11

제1부 경기도 하남지역의 독립운동사 / 15

I. 하남지역의 의병운동 / 17

1. 머리말 / 17

2. 하남지역에서의 의병운동 / 21

가. 전기의병(을미의병) / 21

나. 중(을사의병)·후기의병 / 32

3. 맺음말 / 39

II. 하남 지역에서의 3.1운동의 전개와 의의 / 42

1. 머리말 / 42

2. 3.1운동 시기의 하남 / 51

가. 3.1운동시기의 하남지역 / 51

나. 일제의 수탈과 농민의 빈곤심화 / 54

- 다. 3.1운동의 개황 / 57
- 3. 하남지역의 만세운동 / 62
 - 가. 동부 하남지역에서의 만세운동 / 62
 - 나. 서부 하남지역에서의 만세운동 / 68
 - 다. 남한산성(南漢山城)에서의 만세운동 / 72
- 4. 하남지역 만세운동의 특징과 의의 / 74
 - 가. 만세운동 주도계층의 신분 / 75
 - 나. 만세운동 참가자들의 종교 / 83
 - 다. 만세운동 준비와 진행과정 / 91
- 5. 맺음말 / 94

- III. 사회단체 등의 항일활동 / 97
 - 1. 신간회의 설립과 활동 / 97
 - 2. 광주수리조합의 활동 / 100
 - 3. 광주공산당협회의 활동 / 103
 - 4. 항일 민족운동에 대한 제평가 / 105

- 참고문헌 / 106

- 제2부 경기도 하남지역 독립운동사 자료 / 111

여 백

제 1 부

경기도 하남지역의 독립운동사

여 백

I. 하남지역의 의병운동

1. 머리말

박은식이 이미 지적한 대로 의병이란 民軍으로 국가가 위급할 때 곧바로 義起하여 국가의 명을 기다리지 않고 자발적으로 나가 적과 싸우는 민중 의용병(義勇兵)을 말한다. 또 우리 민족의 충의정신은 돈독하여 삼국시대부터 의병이 있었으며 특히 임진왜란 때 의병과 한말의 의병이 가장 뚜렷하며..., 의병은 우리 민족의 精粹라고 하였다.¹⁾

이러한 민족의 정수인 의병은 남한산성을 중심으로 하여 하남지역을 포함하는 옛 광주군 일대에서도 일어났으며, 이 지역에서 출생하여 성장하고 살아왔던 이들 가운데에서도 의병의 지도자가 배출되었다. 이들은 일본제국주의자들의 조선 백성에 대한 수탈과 국권의 침탈에 항거하여 무력을 통하여 이들을 물리치고 국권을 회복하고자 자신의 목숨까지도 희생하였던 열사들이었다. 이처럼 살신성인(殺身

1) 박은식, 한국독립운동지혈사, 서울 신문사, 1946, p.16

"義兵者 民軍也, 國家有急 直以義起 不待朝令之徵發 而從軍敵愾者也. 吾族素敦忠義 自三國時代 對於外患而義兵之樹立最位卓著 在李朝宣祖時被倭寇之蹂躪者 八年而若儒林 若鄉紳 若僧侶之屬 皆奮起野草 義兵者 吾族之國粹也."

成仁)의 구국 정신으로 무장 봉기하였던 분들 가운데에는 오늘날 이름조차도 확인 할 수 없이 전투의 현장에서 순절하였던 이들도 있으며, 옥중에서 모진 고문을 견뎌내지 못하고 끝내 살아서 돌아오지 못하였던 이, 그리고 다행히 모진 고통의 수감생활을 거쳐 가족의 품에 돌아와서 여생을 마친 이들이 있었다. 하지만 이들 의병들이 처음 의병을 일으킬 때의 목숨을 버릴 각오와 희생정신은 가치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며, 한결 같이 우리가 추앙하고 기려야 할 빛나는 독립운동사의 꽃이라 하겠다.

한말 의병 전쟁이 전개되던 당시 하남 지역은 땅이 넓은 고을이라는 의미의 '광주(廣州)' 땅 동부면과 서부면에 해당하던 지역으로서 광주의 행정관할 구역이었다. 의병 전쟁사에 있어서 하남시와 인접한 남한산성은 의병전쟁의 성지(聖地)라고 할 수 있으며 하남 지역은 그 배후 지역으로서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역사 연구의 가장 커다란 한계는 바로 사료문제이며, 하남지역 또한 예외는 아니다. 더구나 한말의 복잡한 정치, 사회적 현상과 불안한 정국은 하남 지역만의 기록을 별도로 남기고 있는 경우가 매우 드물고 특히, 의병전쟁의 경우 일제의 탄압에 의해 기록이 남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일제의 감시와 탄압으로 의병을 일으킨 당사자는 생명을 부지하기도 어려웠을 뿐 아니라, 의병을 동정하여 음식을 제공한 자도 연대책임을 물어 처벌을 받았고 의병 참가자의 처자식은 뿔뿔이 친척집으로 흩어져 전전해야만 했던 암울한 시기였던 것이다.

일제가 국권을 침탈하기 이전부터 광주, 성남, 하남지역의 주민들

생활상은 참담한 것이었다. 1894년 광주부의 농민들은 남대희(南大熙), 구연태(具然泰)를 중심으로 9월부터 모두 다섯 차례 조세감면을 조정에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조정에서 이들의 청을 들어주지 않으므로 이들은 음력 10월 10일 한성아문(漢城衙門)으로 가서 청원하기로 계획하였다. 그러자 남대희(南大熙)가 광주의 포교들에게 잡혀가는 상황이 초래되었는데 광주부의 농민들을 남대희(南大熙)를 구출하고 대책을 논의하던 중 일본군이 출동하여, 10월 13일 이들을 모두 포박하기에 이르렀다.

광주부에서 봉기한 농민들의 봉기는 한성의 방어체계를 뒤흔들어 놓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즉 광주부의 농민들은 남한산성으로 가는 길을 차단하여 곡물과 기타 물자의 반입을 못하게 하여 매우 곤란한 상황을 야기시켰다. 이에 일본군은 1894년 11월 11일 오전 6시경 군대를 보내 오후 3시 15분에 광주에 도착하고 경안면 직동에 사는 남대희, 구연태, 심상현 등 3명을 지도부로 지목하여 이들을 체포하여 한성으로 압송함으로써 농민 봉기는 일단락되었다.²⁾

이처럼 광주 지역은 주민들의 경제적 불안정으로 인하여 불만의 소지를 안고 있었던 데다가 일제의 침략이 본격화 되면서부터는 가혹한 수탈정책으로 인하여 서서히 의병이 봉기할 기운이 무르익고 있었다.

경기도 하남은 일제강점기에는 경기도 광주의 일부였으며 생활과 문화, 지역정서 등이 대체로 공통점을 지니고 있었다. 당시의 모습은

2) 정은경, 19세기 성남지역의 농민항쟁, 성남문화연구 제9호, 성남문화원, 2002, pp.104~106

근대적인 농촌사회의 모습을 띠고 있었으며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일제의 수탈은 주민들의 삶을 힘겹게 하였다. 그러나 수많은 인재를 배출한 하남(광주)지역에서는 역시 일제의 수탈에 적극적으로 저항하며 수천 년 조상으로 부터 물려받은 이 땅을 지켜내는 일에 생명을 걸고 나서게 된다.

하남지역의 항일운동은 바로 일제가 침략의 마수를 뻗치기 시작하는 때로부터 즉각 시작되었다. 그리하여 의병이 일어나고 만세운동이 일어났으며 그러한 자주 독립의 정신은 면면히 이어지면서 신간회 활동을 비롯한 꾸준한 저항운동을 다각적으로 전개하게 된다.

지리적으로 광주의 중심에는 남한산성(南漢山城)이 자리잡고 있는데, 남한산성(南漢山城)은 병자, 정묘호란을 기억하지 않더라도 서울과 근접하여 있기에 수도 서울을 방위하는 중요한 군사적 거점이었다. 이러한 위치에 있기에 의병전쟁 때에는 비록 그 뜻을 이루지는 못하였지만 서울로 진공하여 일제를 몰아낼 비장한 각오로 결사항전하던 곳이다.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맞으면서 민족의식과 민족정기를 선양함으로써 위기 앞에서 뭉치고, 뭉쳐진 힘으로 국난을 극복할 수 있다. 하남은 임진왜란과 두 번에 걸친 호란, 구한말의 의병전쟁, 그리고 일제치하에서 3.1운동과 1920년대 말 민족협동전선운동 및 신간회 운동 등에 이르기까지 활발한 민족운동을 전개한 역사의 고장이다.

이제 그 빛나는 역사적 전통을 우리는 기억해내고 선조들의 업적을 기려야할 때가 온 것이다. 이에 하남지역에서 있었던 민족운동에 대해서 그 흐름을 짚어보고자 한다.

2. 하남지역의 의병운동

한말의 의병전쟁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시기 구분의 기준이 조금씩 다르다. 의병전쟁사 연구의 초창기에는 한말의병의 단계구분을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으로 구분하는 3분법이 통용되어 왔고, 조동걸의 4단계 구분,³⁾ 김세규의 3시기 구분 등이 있는데, 김세규는 의병전쟁을 3기로 구분하여 제1기(1895~1896), 제2기(1905~1907), 제3기(1907~1910)로 나누어 의병전쟁의 진행 단계를 정리하고 있다.

가. 전기의병(을미의병 ; 1895~1896)

1894년 동학농민전쟁을 계기로 일제는 청일전쟁을 도발하면서 우리 나라에 군사적 압박을 가하고, 한편으로는 갑오경장을 추진하면서 내정을 간섭하는 양면전략으로 한국침략을 강화하게 된다. 갑오경장이 재야 유생들을 비롯한 인민의 비판과 반발, 나아가 반일감정을 고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던 것도 이런 맥락에서였다. 일제침략으로 야기된 이러한 긴박한 시국상황에서 항일구국의 기치를 내걸고 전국 각지에서 의병이 동시다발적으로 봉기하게 된다. 1895~1896년

3) 조동걸, 『한말의병전쟁』, 독립기념관독립운동사연구소, 1989. 5. 전기의병(1894~1896), 중기의병(1904~1907.7), 후기의병(1907.8~1909.10), 전환기 의병(1909. 11~1915) 등 크게 4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간에 활동한 의병을 을미의병(乙未義兵)이라 부른다.⁴⁾

1895년 10월 8일 새벽 일본공사 삼포오루(三浦梧樓)의 지령을 받은 일단의 浪人들이 경복궁에 난입하여 옥호루(玉壺樓)에서 명성황후를 소살(燒殺)하는 을미사변이 발생하였다. 이어 제4차 김홍집 내각을 출범시키고, 11월 10일에는 폐후(廢后)조칙(詔勅)을 내리고, 11월 15일 단발령(斷髮令)이 반포되었다.

이에 '창의소고시(倡義所告示)'의 이름으로 일본의 극악무도함과 원수는 잊지 않고 갚겠다는 고시문(告示文)이 붙었다.⁵⁾ 8월 30일에는 전 참판 이견창, 홍승헌, 정원하의 연명으로 토역소(討逆疏)를 올렸고, 최익현, 윤태홍, 이남규 등은 적을 토벌하고 원수를 갚을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다.⁶⁾

명성황후(明成皇后, 1851~1895)의 시해와 단발령(斷髮令)의 반포(頒布)로 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도 지방에서 치열하게 의병활동이 전개되었고 이러한 기회를 틈타 친러파가 친일 김홍집 내각을 축출하고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들어가는 이른바 아관파천(俄館播遷)의 정치적 변동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의병들의 활동을 중지하라는 선유(宣諭)와 함께 전국 각도의 병영(兵營)과 수영(水營)을 모두 폐지하고 경무청(警務廳)과 시위대(侍衛隊)를 설치하였으며, 뒤이어 시위대를 훈련대(訓練隊)에 합하였다가 음력 9월 13일 칙령(勅令)에 의하여 국내의 육군병력을 친위

4) 박민영, 「성남지역의 의병항쟁」, 『일제하 성남지역의 민족해방운동양상』, 성남문화원, 2003

5) 독립운동사 권1, 의병항쟁사,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0, p.147

6) 황현, 『매천야록』, 권2, 고종 32년 을미

대(親衛隊)와 진위대(鎭衛隊)로 나누어 친위대는 서울에, 진위대는 지방에 두었다. 친위대는 4개 중대를 1개 대대로 하여 3개 대대로 편성하고, 진위대는 2개 중대를 1개 대대로 하여 평양과 전주에 편성하였다. 그 후 건양(建陽) 원년 3월에 친위대를 다시 제4, 제5의 2개 대대를 증설하여 연대병력으로 편성하였다. 그리고 지방에서는 경무청 주관 하에 순검(巡檢)을 각 관찰부에 배치하여 치안관계를 담당하게 하였다.⁷⁾

을미의병(乙未義兵)은 10개월에 걸친 항쟁이었지만 그 활동이 종결되는 양상을 보면 남한산성(南漢山城)과 진주성(晉州城), 그리고 홍주성(洪州城; 충남 홍성)의 경우처럼 내부의 반란에 의해 와해된 것이 있고, 유인석(柳麟錫), 김하락(金河洛), 민용호(閔龍鎬)의 진영처럼 끝내 항전하다 최후를 맞은 경우도 있고, 유인석 의진(義陣)과 같이 만주로 망명한 경우도 있으며, 유인석 의진(義陣)의 이강년(李康季), 정운경(鄭雲慶), 원용팔(元容八), 김태원(金泰元)처럼 힘의 한계에 부딪쳐 비밀리에 해산하고 후일을 기약하면서 잠적한 경우와 정부의 선유(宣諭)에 따라 자진 해산 하는 경우가 있었다.⁸⁾

단발령 공포 직후 봉기한 남한산성(南漢山城) 의병진은 제천의병, 춘천의병, 강릉의병, 진주의병, 안동의병, 홍성의병 등과 함께 전기의

7) 『문헌비고(文獻備考)』, 권100, 「병고(兵考)」 2, 및 「직관고(職官考)」 25, 경장(更張)관제(官制)

8) 김세규, 한말 경북지방의 의병항쟁, 경주사학 제4집, 동국대학교 국사학회, 1985, pp.64~70

병을 상징하는 단위 부대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서울의 인후인 남한산성(南漢山城)을 점거한 그 자체나, 나아가 이 의진(義陣)이 구상하였던 서울 진공계획은 1908년 1월 전국13도 창의군(倡義軍)의 별도대가 서울 동대문 밖 30리 지점까지 진격한 사례와 같이 일제에게 직접적이고도 심각한 위협이 되었을 만큼 큰 의의를 지니는 것이다. 또한 자진해산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패전할 때까지 끝까지 항전하였다는 점에서 독립투쟁사에 길이 남을 의거로 평가된다. 일본에서 발간되던 <東京朝日新聞>이 남한산성(南漢山城) 점거 과정에서부터 해체될 때 까지 한 달 동안 거의 매일 같이 의병의 동향을 본격적으로 상세히 보도하였던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남한산성(南漢山城) 의병진의 모태인 이천 의병은 1895년 12월 말 서울에 있던 김하락(金河洛), 조성학(趙性學), 구연영(具然英), 김태원(金泰元), 신용희(申龍熙) 등의 우국지사들이 단발령에 격분, 이천으로 내려가 의병을 일으키기로 결의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⁹⁾

이들은 활동지역을 이천으로 결정하고 서울을 출발하여 1896년 1월 1일 이천에 도착하였다. 그런데 이들이 기의(起義) 장소를 이천으로 결정한 배경에는 당시 이천군(利川郡) 화포군 도영장 방춘식(火砲軍都領將 方春植)이란 인물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방춘식과의 인적관계는 이천에서 가까운 곤지암 부근에서 거주하던 구연영의 역할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천의기진 결성과정에서 방춘식의 역할은 지대하였다. 방춘식은 김하락(金河洛) 등과 함께 포군

9) 유한철, <김하락(金河洛) 의진(義陣)의 의병활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89, p.3

명부를 가져다 놓고 포군 100명을 선발하였고 김하락(金河洛)을 위시한 다섯 사람은 이들을 분담하여 의병모집에 착수하였다. 이 때 구연영은 2개대의 포군을 거느리고 양근, 지평으로, 조성학은 2개대의 포군을 거느리고 광주로, 김태원은 안성으로, 신용희는 음죽(陰竹)으로 각기 떠났고 김하락(金河洛)은 이현(梨峴)에 남아 총 지휘의 역할을 맡았다.

그리하여 각지에서 호응한 의병은 최소한 900명이 모집되었고 이 가운데 광주산성(남한산성)의 별패진 포군(別牌陣砲軍) 300여 명도 참가하였다. 이처럼 단기간에 대규모 의진이 결성될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방춘식과 그 휘하의 관포군들의 활동을 지적할 수 있겠는데, 보다 근원적인 원인은 당시의 역사적 상황이 이미 전국적으로 의병 봉기의 기운이 일어나고 있었던 역사적 상황에서 찾아져야 할 것이다.

김하락(金河洛) 진중일기에 의하면 김하락(金河洛) 의진의 봉기 원인은

- 1) 을미개혁에 의한 국정의 문란과 일제의 내정간섭(정치적 침략)
- 2) 그로 인한 전통문화질서의 파괴
- 3) 청일전쟁을 악용한 일제의 불법 무력 침략과 그 군사의 주둔
- 4) 친일관리들의 무분별한 친일행태
- 5) 일본군대에 의한 명성황후의 시해
- 6) 단발령의 강행

등을 들고 있다.

이것은 곧 의병봉기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일면으로는 이천수창의 소의 이념을 나타내고 있기도 하다. 즉, 반일침략(反日侵掠), 반친일 관리(反親日官吏)의 이념을 보여주고 있고 아울러 전통문화 수호의 정치, 윤리이념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천의병은 창의대장 민승천(倡義大將 閔承天)을 중심으로, 도지휘 김하락(都指揮 金河洛), 좌군장 김귀성(左軍將 金龜性), 우군장 신용희(右軍將 申龍熙), 선봉장 김태원(先鋒將 金泰元), 중군장 구연영(中軍將 具然英) 등이 이끌었다.¹⁰⁾

이 의진(義陣)은 1월 18일(음력 1895년 12월 3일) 백현(魄峴)¹¹⁾에서 일본군 100여명을 상대로 첫 전투를 치러 승리하게 된다. 한 때 의병은 패주하는 적을 광주군 노루목(獐項)¹²⁾ 장터까지 추격해 무기, 군량 등 많은 전리품을 노획한 뒤 돌아오기도 하였다. 그러나 얼마 뒤 서울에서 급파된 일본군의 공격을 받아 와해되고 말았다.

이천의병 패산 후 김하락을 위시해 민승천, 신용희, 구연영(具然英), 전귀석, 김태원 등은 2월 25일 흩어진 포군과 민병을 다시 규합하였다. 이 때 모인 의병 수는 2,000여 명에 달하였다고 한다.¹³⁾ 이것이 남한산성 의병으로, 그 편제는 아래와 같다.

10) 김규성 역, 《김하락(金河洛) 정토일록》, 계몽사, 1968, pp.19~20

11) 백현(魄峴) : 광주와 이천 사이의 고개 이름. 현재 동원대학교 앞의 고개를 일컫는 데 현지 주민들은 넓고개라고도 하며 다른 이름으로 넓고개(廣峴)라고 표기된 기록도 있으나 현지 주민들의 발음에 의한 넓고개가 맞다고 생각됨.

12) 노루목(장항, 獐項) :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노곡리 노루목 장터

13) 김규성 역, 《김하락(金河洛)정토일록》, 계몽사, 1968, pp.19~20

대장 박준영(朴準英)
 여주대장 심상희(沈相禧)
 군사(軍師) 겸 도지휘(都指揮) 김하락(金河洛)
 도소모(都召募) 전귀석(全貴錫)
 선봉장 김태원
 중군장 구연영(具然英)
 좌익장 김귀성
 우익장 김경성
 후군장 신용희

한편 이 무렵 하남(광주)일대에서는 남한산성(南漢山城)의진(義陣)과는 별도로 심진원(沈鎭元 혹은 沈鎔澤)을 주장(主將)으로 한 일단의 의병이 활동하면서 광주군수 박기인(朴基仁)을 처단하는 등 성세를 떨쳤고, 이천의병에 앞서 2월 23일 남한산성(南漢山城)을 장악하여 활동 근거지로 삼았다. 그러나 소수에 불과한 광주의병은 참령 장기염(參領 張基濂)의 인솔하에 서울에서 출동한 관군 800명의 공세로 인해 곤경에 처하게 되었고 이에 심진원은 남한산성(南漢山城)의진(義陣)에 서한을 보내 합세를 요청하였던 것이다. 이에 남한산성(南漢山城)의병은 2월 28일 관군의 포위망을 뚫고 남한산성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 때 일본의 <동경조일신문>에서도 의병의 남한산성(南漢山城) 점거상황을 다음과 같이 상세히 보도하였다.

남한산성(南漢山城) 안의 적(의병) 수는 약 1,600여 명이다. 그 가

운데 1,000여 명은 광주, 이천, 그리고 양근(양평)의 포군, 즉 구 지 방병이고, 그 나머지 600명은 광주의 농민이다. 적의 수괴(의병장)는 광주 의병장 심영택, 이천의병장 박준영(또는 박주영), 양근의병장 이석용(李錫容) 등 3명이다.

위의 기사로 미루어 보면, 남한산성(南漢山城) 안의 의병은 하남(광주) 지역의 포군과 농민을 근간으로 하였고, 이천과 양평에서도 많은 의병이 모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남한산성(南漢山城) 점령 후 선봉장 김태원은 남문을, 후군장 신용희는 북문을, 우익장 김정성은 서문을, 좌익장 김귀성은 동문을, 그리고 중군장 구연영(具然英)은 성 중앙부를 각각 파수(把守)하며 수성(守城)에 만전을 기하였다. 이어 3월 5일경 첫 전투를 벌여 대포 1문을 노획하는 등 대승을 거두었다.

이에 다급해진 일제는 고종(高宗)을 위협하여 의병을 토벌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고종은 끝까지 승인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일제는 거짓으로 서류를 꾸며 한국군 500여 명을 이끌고 남한산성을 포위하였고, 이어 3월 5일 첫 전투가 벌어져, 전투결과 토벌군은 송과일대로 후퇴하고 의병진에서는 대포 1문을 노획 하는 등 일방적인 승리로 끝났던 것이다. 이어서 산발적인 두 세 차례의 전투도 승리하여 일본은 긴급히 강화도에 주둔 중이던 정예관군 300여 명을 남한산성(南漢山城)으로 증파하여 성 안의 의병 2,000여 명에 대하여 관군은 친위대와 강화병(江華兵)을 합해 3개 중대와 2개 소대로, 남문 밖 매착동(梅着洞)에다 지휘소를 설치하고 1개 중대를 배치하였다. 그리고

동문 밖 불당골(佛堂里)과 향교리(鄉校里)에 각 1개 중대, 서문 밖 석창동과 동문 밖 엄현리(掩峴里, 은고개 부근)에 각 1개 소대를 분산 배치하고 군량미 보급로를 차단하며 포위공격의 태세를 취하였다.¹⁴⁾

성안의 의병과 성 밖의 관군 사이에는 크고 작은 전투가 산발적으로 계속되었으나 지리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의병에게 전세가 유리하게 전개되었다. 그리하여 의병 측에서는 서울진공(進攻)을 계획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서울진공작전은 다른 지역의 의병들도 표방하고 있었지만 실현가능성이 희박하였는데 비하여 남한산성(南漢山城) 의병진에 있어서는 상당한 설득력을 지니고 있었다. 남한산성의 의병은 나날이 늘어갔으며 이에 3단계의 서울진공작전을 수립하게 되었다.

1단계는 먼저 수원지방의 의진들이 연합하여 수원을 점령하고, 2단계는 남한산성 의진과 춘천, 분원, 공주, 청주 및 수원 의진이 남한산성 주변에 주둔한 관군 및 일본군을 협공으로 격파하고 마지막 3단계는 삼남지방 의병까지 연합하여 서울로 진공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일본군을 구축하고 러시아 공사관에 있는 고종을 환궁시킨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계획은 한말의병운동사에 있어 최초의 서울진공작전일 뿐 아니라 그 규모도 남한산성을 중심으로 그 인근지역에서 대규모로 참여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특별한 역사적 의의가 있는 것이다. 1차 수원점령단계는 경기도 안성, 평택, 충청도 온양, 장호원, 목천 의병

14) <한성신보>1896년 3월 19일자

이 참여하였다. 2단계 계획도 동시에 추진되었다. 즉 일본군 수비대 本田 소위가 3월 17일자로 그들 일본공사관에 보고한 바에 의하면 춘천의병 1,200명이 양근에 도착했는데 그 중 200여 명이 한강 상류를 건너 광주에 합류했다는 것이다.¹⁵⁾

경성근황보고

..... 그러나 지방의 폭도는 현재 廣州城(서울에서 50리 거리)에서 농성 중이고 여주, 안성 지방의 폭도와 기맥을 통하여 그 세력이 대단히 창궐한 형세로 조선 정부는 친위대와 강화도의 군대를 보내 征討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捷報에 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타 각 지방의 폭도도 집합과 해산이 일정하지 않다고 조선인 중에는 종종 소문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¹⁶⁾

그러나 1896년 3월 22일 남한산성(南漢山城) 함락으로 서울 진공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다. 남한산성(南漢山城)의 함락 원인은 크게 다른 두 가지의 설이 있다. 하나는 의병진의 핵심 인물인 김하락(金河洛)과 김태원이 남긴 기록에서는 관군측의 계략에 넘어간 주장 박준영이 배신하여 의병 전군에 술을 마시게 하여 관군에게 성문을 열어주어 성은 함락 되고 박준영은 의병에 의해 처단 되었다는

15) 本田소위로부터의 「廣州賊情報告書 移牒의견」, 『駐韓日本公使館記錄』 제5권 p.16. 국사편찬위원회

16) 1896년 3월 18일 「재경성 일등공사 內田定 木+ 追의 보고」(公信 제78호) 1896년 3월 30일 접수(『한말 의병자료집1』, 독립기념관 독립운동사 연구소, 2001. pp.26~27)

것이다. 또 한 가지의 설은 <한성신보>의 주장으로 성내에서 의병 해산을 주장하는 일파와 반대론이 있었는데 박준영은 해산을 반대하다가 살해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김귀성이 관군에 투항한 것과 결과적으로 박준영은 처단 내지는 살해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김하락(金河洛)이나 김태원을 비롯한 핵심인물들은 의병 와해 이후에도 오랫동안 각지에서 항전을 지속해 나갔던 것으로 보아 당시 의병 해산을 주장하는 온건 노선을 취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최후의 수성전(守城戰)에서 의병 측의 저항이 만만치 않았던 사실은 “삼경부터 날이 밝기 까지 큰 싸움이 끊이지 않았는데 시체가 쌓이고 피가 흘러 병사와 군마의 죽은 수가 500여 명이었고 적병의 죽은 자가 300여 명이었다. 이에 포위망을 뚫고 동쪽으로 탈출하여 싸우며 행군하였는데 처음 성 밖으로 나갔을 때 따르는 군사가 400여 명이었다”고 한 김태원의 기록에서 알 수 있다.

결국 의병진은 남한산성(南漢山城)을 점거한지 한 달 만에 관군의 공격을 받고 퇴각하게 되는데 이 때 의병들은 양근(양평) 및 양지(용인) 방면으로 이동하였다. 양근(양평)에 모인 의병은 3월 19일 이래 의병 1,000여 명이 모여 광주에서 후퇴한 병력과 합쳐 약 2천명이 넘었다.¹⁷⁾ 이후 이들은 경상도 지역으로 이동하여 의병전쟁을 계속하였으며 안동 지방을 거쳐 경주(慶州)출신의 이달문 등과 함께 경주성(慶州城)을 점령하기 까지 하였다. 이들은 1896년 6월 17일 경주성(慶州城)을 점령한 이래 병기와 양식을 차지하고 성내에서 농성하

17) 1896년 3월 28일 「재부산 일등 영사의 보고」(公 제69호), 1896년 4월 1일 접수

며 수비를 엄하게 하였는데 이들의 창의대장은 김하락(金河洛)이었고, 중군은 광주의 안시흥(安時興)이었다. 이들은 깃발에다 “국모복수(國母復讐)” 등의 문자를 크게 써서 성벽이나 성내의 나무에 걸고 크게 위세를 보였다. 여기에는 사격을 잘하기로 유명한 영월 총병 240~250명을 비롯하여 3~400명 혹은 5~600명으로 추산되는 의병이 있는 것은 물론 총공(銃工) 30명 정도가 소집되어 자주 무기의 제조에 종사하였다고 한다.¹⁸⁾ 이로써 의병진에서는 스스로 무기를 제조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경상도 지역으로 이동한 의병진은 영남의 안동, 경주, 영덕 일대에서 김하락(金河洛)이 전사(戰死)하는 1896년 7월 말까지 전투를 벌였고, 또 광주 도적면 출신의 구연영(具然英)을 비롯한 일부의 의병은 광주일대에 흩어져 산발적으로 의병활동을 벌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정황은 그 해 5월 광주군수가 ‘비도(匪徒)들을 치고’있었다는 <독립신문> 1896년 5월 7일자의 기록 등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다.¹⁹⁾

나. 중(乙巳義兵) · 후기 의병(1905~1907)

을미의병 이후 다시 의병활동이 거세게 일어나는 시기가 을사의병

18) 1896년 6월 24일 채부산일등영사 秋月左都夫가 외무차관에게 보낸 「경상도 경주 폭도의 상황 보고의 건」(公제178호), (『한말의병자료2』 독립기념관 독립운동사연구소, p.124)

19) 박민영, <하남시의 근·현대 역사와 인물>, 《하남의 역사와 문화》, 국학자료원, 2001

이다. 1904년경부터 시작되는 중기 의병은 1905년 11월 을사조약 강제체결을 계기로 본격화 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갔으며, 1907년 헤이그밀사 사건 이후 고종황제의 강제퇴위와 군대해산 등 일제의 침략사건을 계기로 대일 전면전의 성격을 띄며 발전하는데 이것을 후기 의병이라 한다.

을미의병에 참가했던 농민층 가운데 상당수는 해산 이후 영학당(英學黨), 남학당(南學黨), 화적(火賊), 활빈당(活貧黨) 등의 이름을 걸고 농민운동을 전개하였다. 『매천야록』에는 조정에서 이들에 대비하여 군대를 주둔시키자는 의논이 분분하였던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중·후기 하남(광주)지역에서 전개된 의병의 활동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그 실체는 뚜렷하지 않으나 광주지역에서 약 200명으로 편성된 의병이 부호의 재물을 군자금으로 확보하고 총기를 수집해 갔다는 기록이 그것이다.²⁰⁾ 이어 같은 해 음력 5월에는 구만서(具萬書)라는 사람이 광주지역에서 의병을 일으켜 활동에 들어갔다고 한다.²¹⁾

구만서는 경기도 광주사람으로서 음력 5월 2일에 의병(義兵)을 일으켜 총을 메고 39명을 인솔하여 양근(楊根) 등지로부터 지평군의 북면(北面)까지 가서 머리를 깎은 사람 1인(일진회 회원)을 쏘아 죽였고, 7일에는 갑자기 읍 안에 이르러 일진회원(一進會員) 8인을 붙잡아 쏘아 죽였다.

또 양근 군수 이범석(李範奭)의 보고서에 「음력 이달 7일에 광주부

20) <황성신문> 1905년 6월 6일자

21) 황현, 《매천야록》, 국사편찬위원회, 1955, p.338

(廣州府)의 지경에 사는 구만서(具萬書)라는 사람이 께거리 45명을 거느리고 각각 총과 칼을 가지고 지평(砥平)으로부터 본군의 읍에 당도하여 창의(倡義)를 내세워 일진회를 소멸한다고 하면서 지회(支會)가 있는 곳을 포위하였는데, 회원들이 기미를 먼저 알아차리고 도주하였으므로 한 사람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놈들이 장터에 달려 나가서 무수히 총을 쏘아 대니, 저자를 보던 사람들이 모두 피하여 흩어졌습니다. 이런 와중에 본군의 읍내면(邑內面) 장안리(長安里)에 사는 백사수(白四洙)라는 자가 탄환에 맞아 죽게 되자, 도로 객주(客主) 이경구(李景九)의 집에 들어가 집물(什物)을 깨부수고 돈과 재물 수만금어치와 물건, 의복 등 많은 수량을 탈취해 가지고는 곧장 지평, 곡수(曲水) 등지로 향했습니다. 그때의 위태롭고 급박한 광경은 이루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하였다.²²⁾

후기 의병시기인 1907년은 하남지역 뿐 아니라 광주, 죽산, 용인, 안성 등지에서 의병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었고 특히 1907년 8월부터 10월까지의 “완전히 폭도가 유린하는 바가 되었다.”고 일제 정보 기록에서 실토하였을 정도로 이 일대 전역에서 치열한 항일전이 펼쳐지고 있었다.

이 시기 하남(광주)지역과 양주, 포천, 이천, 양근 등지에서 활동하던 의병장으로는 김광희(金光喜), 김광준(金光浚)을 비롯해 이익삼(李益三, 春三), 서가, 윤전(尹堧), 임문순(林文淳), 고재석(高在奭), 이근

22) 《국역승정원일기》 고종 42년 을사(1905, 광무 9) 5월 21일(계사, 양력 6월 23일)

풍(李根豐), 임옥여(任玉汝) 등이 손꼽힌다. 이들 가운데 김광희, 김광준 두 의병장은 휘하에 800여 명을 거느렸을 정도로 상당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1907년 9월에 양지 출신의 전주사 임옥여²³⁾ 의병이 광주 실촌면에 출현하여 원주의병대장의 이름을 사용하여 포군 70여명을 소모(召募)한 뒤 용인, 안성 방면으로 이동하며 일본군과 교전하였다. 이어 10월에는 돌마면 독점에서 일제 군경을 상대로 교전을 벌이고 12월 23일에는 약 20여명의 의병이 대왕면 둔토리에서 일제 군경연합도벌대와 교전을 벌였다. 1908년 들어서는 1월 4일 18명의 의병이 경안면 중대동에서 일제 경찰과 전투를 벌였고, 6월 4일 관동(官洞), 6월 12일 소운동(小雲洞) 격전, 7월 6일 퇴촌 우산동에서 교전, 8월 31일 오포면 능골전투 등을 비롯해 여러 차례의 교전을 하였고, 1909년 3월에 김광희, 김광준 의병장의 의병 800여 명이 광주로 진입하는 등 1910년 7월 22일까지 광주에서의 교전을 끝으로 무력항쟁은 막을 내리게 된다.²⁴⁾

을사조약의 비보(悲報)에 장지연(張志淵)은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의 문장을 통하여 주권침탈의 통분을 눈물로 국민에게 호소하였으며, 민영환 · 조병세 · 홍만식 · 이상철 · 김학봉 · 이한응

23) 임옥여 의병은 양지 출신이라고 하지만 실제 거주했던 지역은 광주군 도척면 궁평리였으며 현재까지도 그 후손들이 궁평리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궁평교회 장로로 활동하고 있다. 궁평교회는 또한 구춘영 의병장과도 깊은 관련이 있는 교회이기도 하다. 박민영의 논문에서 임옥여 의병을 양지 출신이라고 한 것은 아마도 양지면에서 주사로 근무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24) 박민영, <하남시의 근현대 역사와 인물>, 《하남의 역사와 문화》, 국학자료원, 2001

· 송병선 · 이병재 등은 죽음으로써 항쟁하였으며, 전 승지 이석중, 이건석 등은 상소 항쟁하다가 투옥되었으며, 단식으로 자살 하는 등 고관으로부터 한낱 이름 없는 차부(車夫)와 비첩(婢妾)들도 일본의 침략에 항거하여 목숨을 끊었고, 친일 매국노의 집에는 의로운 자객이 뒤따랐으며²⁵⁾ 도처에서 항일 의병이 봉기하였다.

하남과 인접한 성남에서도 이러한 일본의 침략에 대하여 의병활동이 전개되었다. 1907년 10월 30일 경찰관 · 수비대 약 20명이 광주군 돌마면(突馬面) 독점(獨店)²⁶⁾에 내습한 의병과 전투를 벌였고, 의병은 시체 1, 화승총 5정을 버리고 산중으로 퇴각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12월 23일 오후 3시에는 경찰관 및 수비대의 연합대는 광주군 대왕면(大旺面) 둔토리²⁷⁾(屯土里)에서 약 20명의 의병과 전투가 벌어졌는데, 교전 약 20분에 의병 7명이 희생되고 총 5정을 빼앗기게 되었다.

낙생면(현재 성남)출신의 남상목(南相穆) 의병장은 이 시기에 성남 지역의 울창한 수목을 벌채하여 군용으로 실어 가려는 일본의 수탈에 항거하다가 일본 헌병에 구속되어 모진 고문을 받고 풀려난 바 있으며 이 일을 계기로 하여 의병을 일으킬 것을 결심하고 경기도 광주군 낙생면, 대왕면, 돌마면 등 현재의 성남지역과 광주군 연주면

25) 이관영(李寬永)은 손병희의 큰 사위로서 이완용의 집에 불을 질렀다.

26) 돌마면은 현재 성남시 분당구 지역이며 독점은 분당에서 광주로 넘어 오는 3번 국도 옆 도촌동 지역이다. 이처럼 주요 길목은 의병전쟁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지역이다.

27) 대왕면은 현재 성남의 판교지구와 경부고속도로 인근지역에 해당되는 곳이다.

등 현재의 서울지역, 그리고 용인 등지에서 의병을 모아 거의(舉義)하게 되었던 것이다.²⁸⁾ 남상목 의병장은 은공(銀工)출신의 송주상, 퇴역군인 출신인 김재선, 독일어를 공부하고 인쇄소의 문선(文選)으로 일하던 김태동 등의 보좌를 받아 일본군과의 전투에 혁혁한 전과를 올리기도 하였다. 김태동의 집에는 신문과 같은 인쇄물이 있었기에 새로운 정보에 목마른 젊은이들이 수시로 김태동의 집에 드나들었고 송주상은 세상물정과 경제에 밝았으며, 김재선은 군인 출신으로서 일본군과의 전투에 있어서 효율적인 전투를 이끌어 갈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였던 것이다. 이들이 바로 남상목 의병장의 휘하에서 김재선은 좌익이 되고, 송주상·김태동은 종사가 되고, 강춘선은 후군장을 맡았으며, 김경화·이시영은 포군이 되었다. 이들 의병진은 신식 총 10여 자루와 구식 총 40여 자루로 무장하였고 남상목 의병장은 환두대도를 차고 활동하였다. 안성 칠장사에 주둔하면서 일본군을 물리치는 혁혁한 전승을 올릴 수 있었고, 이들의 활동은 멀리 충청도까지 펼쳐졌으며, 이강년 의병장의 부대와 합세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남상목 의병장의 활동이 인정을 받아 2008년 11월 남상목 의병장 옥중 순국 100주년을 맞이하여 국가보훈처, 광복회, 독립기념관에서는 2008년 11월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하여 공적을 기념하게 되었다.

28) 정철화, 허달, 김재선, 송주상, 김태동, 강춘선 등, 「통고문」



남상목 의병장

또한 윤치장(尹致章) 의병장은 1905년 을사조약이 강제 체결되고 1907년에는 마침내 우리 나라의 군대가 해산되자 광주에서 동지 70여 명을 규합하여 의병을 조직한 뒤 1907년 광주군 묵동(墨洞)에 주둔한 일본기병대와 교전하였다. 1908년 언주면 일대(서울 광진구)에서 군자금 모금과 무기 확보에 노력하였다. 그 후 양주지역에서 전투

를 벌였고 현재 서울 미아리 부근에서 체포되어, 1909년 경성지방재판소에서 내란죄로 교수형을 선고받았으나 불복 상소하여 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였다.

3. 맺음말

일본 제국주의 침략이 본격화 되던 한말에 우리 나라의 운명은 실로 바람 앞의 등불과 같은 것이었다. 그러한 위기의 시기에 조정의 명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자발적으로 일어나 기울어져 가는 나라의 운명을 건져내기 위하여 귀한 생명을 희생한 고귀한 선열들의 애국정신은 오늘날 이 나라를 반만년 이래 가장 부유한 시대로 접어들게 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의병을 일으킨 선열들의 정신은 3.1운동 만세의 봉화불로 다시 불타올랐으며 그 이후 계몽 운동으로 이어져 우리 지역을 지켜내고자 하는 자주 독립의 정신으로 연결되었다.

이제 우리들은 새롭게 전개되는 현대 국제사회의 냉엄한 현실 앞에서 불과 100여 년 전의 국제 정세를 주목해야만 할 것이다. 100년 전 사대주의자들이 그토록 믿고 의지하던 청나라도 일본의 침략 앞에 힘이 되어주지 못하였고,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러시아의 발틱함대도 일본 제국주의 앞 바다에 침몰하였으며,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들이 러·일 전쟁 직후 포츠머스 회담에서 일본이 한반도를 삼키는 것을 묵인하기로 합의했던 냉엄한 현실을 기억한다면, 지금 한반도 주변의 강대국들이 그들의 이해 관계에 따라 한반도의 운명에 어떤 결

정을 내리게 될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시대에 선열들의 피 흘려 지켜온 역사를 찾아내고 복원하며 미래의 교훈으로 삼는다면 현재의 이 변영과 행복한 세상을 항구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지방 자치의 시대가 도래한지도 여러 해 지났으나 아직까지도 중앙일변도의 인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채 자신이 살아가는 마을, 도시에 대한 관심도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하남지역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하남 출신의 의병장이 발굴되지는 않았지만 바로 인접한 지역에서 활발하게 의병활동이 전개되었던 사실이 있고 이러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볼 때 하남지역에서도 충분히 의병활동 가능성을 품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남한산성을 중심으로 하여 그 주변은 의병활동이 활발히 전개되었고 남한산성 그 자체는 의병들의 총 집결지로서 서울을 일본의 침략으로부터 탈환하기 위한 거점이 되었다.

하남 지역은 남한산성으로 의병 부대가 집결하는 주요 길목으로서 강원도 지역의 의병이나 양평지역의 의병들이 남한산성으로 이동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거쳐 가야할 길목이 되는 지정학적인 위치에 있다. 그러므로 보다 깊은 연구와 자료조사를 진행한다면 새로운 자료의 발굴이 기대되는 지역이라 하겠다.

의병전쟁이 시작되던 초기에 광주 출신의 구만서(具萬書)라는 의병장이 경기도 광주지역에서 의병을 일으켜 양평지역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일진회원들을 처단하는 등의 의병활동을 벌였던 사실도 이러한 가능성을 뒷받침 해주고 있으며, 이춘삼(李春三), 이익삼(李益三)

의병장이나 김광준, 김광희 형제와 같이 광주출신이면서도 정확한 출신이 명확하지 않은 의병장들의 경우 문중 관련 자료를 조사한다면 하남 지역의 인물이 발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 하겠다.

이제 선열들의 사적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역대 연구자들이 겪어 온 바와 같이 자료의 빈곤과 개인적 역량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독립운동의 역사라 하겠다. 그러므로 체계적인 연구플랜에 의해서 충분한 기간 동안 자료의 수집과 축적을 통하여 자료를 풍부하게 한 다음 연구가 진행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Ⅱ. 하남 지역에서의 3.1운동

1. 머리말

1919년 3월 1일 오후 2시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식을 거행하고 학생과 시민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3.1운동은 크게 네 단계로 나누어 진행 되었다. 첫째는 2월말까지의 시기로 민족대표에 의해 운동이 준비된 단계이다. 둘째 단계는 3월 초순 운동의 초기 단계로, 서울·평양·개성 등 주요도시 중심으로 만세시위가 전개된 시기이다. 학생과 청년 지식인이 시위를 주도하였고, 여기에 도시의 노동자와 상인층이 참여하였다. 셋째 단계는 3월 중순~4월 상순에 이르는 운동의 최고조기로, 전국 각 농촌으로 운동이 확산되고 도시에서는 운동이 재발되는 단계이다. 하남지역의 만세운동은 바로 이 세 번째 단계에 해당되는 시기에 일어났다. 경성부를 제외한 경기도 21개 모든 부군(府郡)에서 모두 17만여명 이상이 참여한 시위가 283회 이상 일어났다. 경기도의 3.1운동은 서울과 가까운 지역에서 먼저 일어나 점차 외곽으로 확산되었다. 특히 하남과 가까운 지역인 시흥군에서는 23회, 고양군에서는 33회, 수원군에서는 25회, 양주군에서는 18회의 시위가 펼쳐졌다.²⁹⁾

29) 김인덕, <근대 하남사람들의 삶과 운동>, 《하남의 문화유산》, 하남역사

3.1운동은 우리 역사에 있어서 근세 열강의 침략에 온 겨레가 거국적으로 일으켰던 민족운동이었다. 그러한 민족운동의 웅대한 역사를 학계에서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왔으나 지방에서는 아직 까지도 그 연구 성과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제 지방자치가 어느 정도 정착되어 가고 있는 시대상황과 함께 그 지역의 정체성을 발굴하고 계승해 나가기 위한 연구 활동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3.1운동은 우리 민족이 일본 제국주의에 대항하여 전개한 항일 민족독립운동이었으며, 아울러 한국사회에 민주주의의 발전을 구현시키는 계기를 마련해준 최대의 민중운동이었다.³⁰⁾

따라서 3.1독립운동은 민족의식의 성장 속에서 그 전에 일어났던 모든 민족운동의 귀결점을 마련한 것이었고, 또 이후 앞으로의 민족독립운동에 있어서 하나의 방향을 제시해 준 운동이기도 하였다.

이때까지 3.1독립운동에 관한 연구는 그 성격, 의의, 평가, 경향 등등에 걸쳐 다각적으로 연구되고 또한 조명되어 왔음은 널리 알려져 있는 바와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1독립운동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연구의 여지를 많이 남겨놓고 있는 것 같다. 3.1독립운동사 연구에 있어서 초미의 과제로 되어 있는 것은 보다 폭넓은 자료의 정리와 이의 공간(公刊) 및 지방사의 연구라 하겠다.³¹⁾

특히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함께 그 지역민들의 올바른 민주적 자

박물관, 2004

30) 김호일, 「안성 4.1독립항쟁의 특성과 의의」, 『3.1운동과 안성의 4월독립항쟁』, 안성문화원, 2002, p.49

31) 김창수, 「3.1독립운동의 연구동향과 과제」, 『수원지역 민족운동의 역사적 위상』, 3.1운동 84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움, 수원문화원, 2003

치역량은 역사적 정체성과 자긍심을 올바르게 인식하게 될 때에 발현될 수 있을 것이다.

경기도 하남(河南)지역³²⁾에서도 여타의 지역과 마찬가지로 1919년 3.1운동 직후 만세운동이 전개되었으며, 3.1운동을 통하여 하남이 지닌 역사적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

하남은 지리적으로 서울에서 근접한 곳으로서 한강을 따라 일찍부터 문화가 발달하였으며 새로운 정보가 빠르게 유입되는 위치에 자리 잡고 있다. 그리하여 선사시대로부터 인류의 삶의 터전이 되어 왔고 오래전부터 한강 수로를 통하여 강원내륙까지도 왕래하던 뱃사공이나 보부상들이 빈번하게 왕래하면서 새로운 정보를 빠르게 수용한 고장이다.³³⁾

그러므로 하남지역에서도 예외 없이 독립만세의 함성 소리가 힘차게 울려 퍼졌는데 아직까지 그에 대한 연구 성과는 전무한 실정이다. 하남이 속해 있던 구 광주권을 통틀어서도 의병전쟁에 관한 관심은 있어 왔으나 3.1운동에 대해서는 그다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된 바가 없는 실정이다. 대체로 3.1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난 민중운동이었기에 현재까지의 연구는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로만 진행되어

32) 하남시는 1989년 1월 1일자로 경기도 광주군 동부면, 서부면과 중부면 상산곡리를 구역으로 하여 시로 승격되었으며 인구 12만 8천명의 소도시이다. 3.1운동이 일어나기 직전인 1910년에 작성된 <民籍統計表>에 의하면 그 당시 인구는 동부면과 서부면을 합쳐 약 7천여명 정도였던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33) 하남에는 미사리 선동 둔지와 팔당 나루터가 있었으며 구한말 보부상들이 많이 왕래하였던 곳이다. 김순길, 「광무연간 정구갑 살육 검안의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오는 경향이 있었다.

지방사로서의 3.1운동 연구는 3.1운동이 전 국민의 민족운동이었고 대중운동이었으며, 시민혁명이었다는 자리매김을 위해서도 시급히 연구해야 할 과제라고 본다.³⁴⁾ 우리 지역에서 전개되었던 운동을 하나 하나 조사·분석하여 역사적 의의를 새롭게 조명해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 하남을 중심으로 한 3.1운동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연구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필자가 과문한 탓이겠으나 현재까지 하남지역의 3.1운동에 관한 연구논문은 전무하며 여러 책자 등에 만세운동의 주도 인물을 간략하게 소개하는 정도이거나 만세시위가 전개되던 상황을 소개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제암리가 속해있는 화성이나 수원, 안성시와 같은 지역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하거나 기념관 건립 등의 기념사업을 추진을 통하여 그 연구의 폭을 넓혀가려고 애쓰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지나치게 무관심하게 방치되고 있다고 보여 진다. 이는 하남지역이 미사리 선사유적을 비롯하여 수많은 매장 문화유산이 산재하여 있는데다가 백제 초기와 중기의 도읍지였던 하남위례성 찾기에 지나친 관심이 집중됨으로써 오는 상대적 무관심과 방관의 원인이 크다고 할 것이다.

또한 수원, 화성, 안성 지역의 3.1운동이 다른 지역에 비해 치열하게 전개되고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이 사실이므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도 당연한 일이겠으나 무엇보다도 그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애향심이 관건이

34) 김호일, 「3.1운동에 있어서 지방의 역할」, 『사학지』 31, 1998

된다고 할 것이다.

하남지역의 3.1운동과 관련하여 간행된 자료들³⁵⁾은 대부분이 당시의 만세시위 상황을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기술하고 있는데, 이는 그동안 수집된 자료가 빈약한 데에서 오는 원인이라고 보여 진다. 이들 자료의 내용은 모두가 독립운동가들의 판결문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되어 졌기 때문이다. 또한 하남지역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기념사업이 펼쳐진 바가 없고 후손들조차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별다른 추모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못한데다가 그동안 지역사(地域史)에 대한 무관심으로 사회, 경제 등 다각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1910년대 일제의 식민지 수탈정책 결과 조선인 대부분이 몰락하자, 조선인들의 분노는 갈수록 거세졌다. 또한 고종이 서거하자 고종

35) 하남지역의 3.1운동과 관련된 내용이 기술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광주군지』, 1990
- 『하남시사』(역사도시 하남), 2001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2, 1970
-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3, 1988
- 경기도사편찬위원회, 『경기도항일독립운동사』, 1995
- 하남시/하남역사문화연구회 공저, 『하남의 역사와 문화』, 국학자료원, 2001
- 이철재, 『하남의 역사』, 피플뱅크, 1995
- 하남시, 『하남의 맥』 1992년 및 1997년 증보판 : 이 책자는 위 이철재씨가 집필하였으며 『하남의 역사』와 같은 내용이다.
- 윤중준 편, 『하남지명지』, 하남문화원, 1999
- 김인덕, 「근대 하남사람들의 삶과 운동」, 『하남의 문화유산』, 하남역사박물관, 2004
- 『광주향토사료집』 제5집, 광주시/광주문화원, 2001
- 손승철 외 2인 공저, 『역사속으로의 하남여행』, 하남역사박물관, 2003

의 독살설이 널리 퍼져나갔다. 여기에 당시 국제정세가 가미되어 전 민족적 항일운동인 3.1운동이 일어났던 것이다. 1917년 러시아 혁명 이후 수립된 신생 소비에트공화국이 자국 내 소수민족에 대해 민족 자결의 원칙을 선언하였고, 1918년 1월 윌슨 미국대통령이 민족자결주의를 제창하였다. 36)

“이 국제연맹이 해야 할 사명은 무엇인가?”

“그것은 약소국에게 자유(自由)를 주고, 강대국이 약소국을 지배(支配)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 구절은 한국인에게 전투개시의 신호였고, 희망을 안겨 주었다. “이제야말로 총궐기할 때다.”고 사람들은 얘기했다. 37)

윌슨의 민족자결주의는 제1차 세계대전 패전국 식민지를 처리하는 데 적용되는 원칙이었다. 따라서 승전국에 속하는 일본의 식민지였던 조선은 적용대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민족운동지도자들은 여기에 크게 고무되었다. 38)

1919년 3월 1일 오후 2시 민족대표 3인(29인만 참석)이 서울 인사동 명월관지점(태화관)에 모여 독립선언식을 거행하고 일제경찰에 연행됨과 동시에 종로 파고다공원에 모인 학생과 시민들은 독립선언

36) 정진각, 「일제강점시기 경기도의 민족운동」, 『경기도의 어제와 오늘』, 경기도, 2001, p.255

37) F. A. 맥켄지 저, 이광린 역, 『한국의 독립운동』, 일조각, 1995, p.173

38) 정진각, 위의 책

서를 낭독하고 독립만세를 고창한 다음 가두시위에 돌입함으로써 거족적인 항일민족운동의 첫발을 내디디게 되었다.³⁹⁾

경기도지역의 3.1운동은 운동의 진원지인 서울로부터 여파가 미치면서 급속히 확산되었다. 경기도 가운데 가장 먼저 시위가 벌어진 곳은 개성으로 3월 3일 일어났다. 이어 3월 5일과 7일에는 서울과 가까운 고양군과 시흥군에서 시위가 일어났으며, 9일에는 인천, 10일에는 과주와 양평, 11일에는 안성에서 각각 만세시위를 벌였다. 그리고 양주에서는 3월 13일-15일 3일 동안 만세운동이 전개되었다. 경기도에서 운동의 절정기는 3월 하순부터 4월 상순이었다. 경기도 전체 시위횟수 283회의 90%에 달하는 254회의 시위가 이 시기에 집중되었다. 전국 가운데 경기도 지역이 가장 활발하고도 격렬한 시위운동을 벌였던 것이다.⁴⁰⁾

이렇게 3.1운동이 전국적 규모로 발전하는 데 기여한 사람들이 학생층과 유생층, 종교인 등이었다. 당초 3.1운동은 천도교, 기독교, 불교 등 종교계 민족운동자들을 중심으로 계획 추진되어 발발 하였다. 때문에 각 지방에 설치되어 있던 각 종파의 교회당이 지방 3.1운동의 진원지가 되었고, 또 3월 3일 고종의 장례식에 참례하기 위하여 서울에 올라왔던 각지의 유생들은 서울의 3.1운동을 직접 목격한 뒤, 귀향하여 그 소식을 전하고 자기 지역의 시위운동을 주도하여 일으켰던 것이다. 특히 서울에 유학하고 있던 지방 학생들은 3월 1일 탑골

39) 김호일, 앞의 책

40) 박민영, 「하남시의 근현대 역사와 인물」, 『하남의 역사와 문화』, 국학자료원, 2001, p. 206

공원에서 독립선언, 만세시위운동과 3월 5일 서울 각급학교 학생들의 연합 만세 시위운동인 남대문역(지금의 서울역) 시위를 계기로 각 학교가 휴교하자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 서울의 3.1운동 소식을 전하였다. 각 지방 학교의 학생들도 서울 3.1운동의 소식을 접한 후 자발적으로 자기 학교와 고장에서 시위를 계획, 추진하여 확대시켰다. 따라서 학생층은 3.1운동을 전국적으로 전파하고 확대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경기도의 3.1운동도 학생과 농민, 천도교인 등이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양주, 여주에서는 승려가, 안성에서는 시천교인(侍天敎人)이, 그리고 수원, 안성에서는 기생(妓生)들이 앞장서기도 하였다. 또한 경기도는 식민지하 조선 경제의 중심지인 경성부를 둘러싸고 있고 항구도시 인천을 끼고 있다는 지리적 조건으로 인해, 상업과 공업이 발달하였다. 그래서 중소기업과 노동자들이 많았으며, 이들도 다수 시위에 참여하였다.

3.1운동의 선도적 역할을 한 학생들은 전국 어디에서나 공통적으로 핵심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각 지역의 운동 양상을 보면 각 동리의 구장(이장)은 30~40명씩의 동리 주민을 직접 인솔하거나 통문을 돌려 주민을 모으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당시의 향촌사회가 전통적인 면리제의 전통 하에 일정한 지식과 소양을 갖춘 이장이 말단 실무를 관장하며 마을의 여론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다. 이장들은 동리 유식자나 청년, 학생들과 협의하고 시위운동 계획을 동리 주민에게 알리거나 격문을 붙여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였다. 따라서 통일적인 지도 핵심이 없이도 각 동리마다 자연발생적으로 시

위운동이 전개될 수 있었던 것이다. 41)

시위가 확산되면서 시위방식이 크게 달라졌다. 3월 초순에는 평화적인 시위가 주조를 이루었으나, 3월 하순부터 4월 상순에 들어 시위가 봉화시위와 무장시위방식으로 발전하였다. 봉화시위는 밤에 횃불을 들고 봉화를 올리는 것으로 주로 인근 산이나 평야지대에서 일어났는데, 이것은 지역 간의 연대시위 시 연락 수단으로도 사용되었고, 군중동원의 효과적인 수단인 동시에 시위군중의 단결력과 연대감을 강화시켰으며 시위의 규모를 실제 이상으로 나타내는 효과를 가져왔다. 그 예로 4월 2일 밤, 이천군 마장면, 백사면, 모가면, 대월면, 호법면, 읍내면 등 6개 면민들은 각기 마을 인근 산에 올라가 일제히 봉화를 올려 시위의 시작시점을 상호확인 하였다. 이 때 봉화는 서로의 의지를 확인하고 격려하는 데 큰 위력을 나타내었다. 이 외에도 경기도에서는 3월 23일부터 4월 15일 사이에 고양군, 시흥군, 광주군, 부천군, 수원군, 개성군, 장단군, 파주군, 김포군, 양주군, 진위군, 여주군 등지에서 봉화시위가 펼쳐졌다. 42)

시간이 흐를수록 무장시위도 격렬해져 갔다. 시위군중은 일제 식민 통치의 말단기구를 공격하거나 파괴하였다. 경기도에서는 경찰관서 17개소, 주재소 12개소, 군청, 면사무소 35개소, 우편소 2개소가 시위대의 공격으로 파괴되었다. 그리고 일본인 및 친일파 가옥도 공격을 받았다. 이러한 무장시위는 초기에는 시위대의 자위수단으로 이루어

41) 정진각, 「일제강점시기 경기도의 민족운동」, 『경기도의 어제와 오늘』, 경기도, 2001, pp.256-257

42) 정진각, 같은 책, pp.256-257

어졌으나 점차 공격적 형태로 발전하였고 피검자가 발생하면 경찰관서에 가서 석방을 요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경찰관서나 헌병주재소 등을 공격하여 체포된 동지를 탈환하기도 하였다.

전국적으로 3.1운동이 전개되는 경향은 초기에는 도시를 중심으로 종교가, 학생, 교사 등 인텔리가 운동을 주도해 나갔으나 3월 중순이후 4월 초순에는 운동이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격렬해짐에 따라 농민, 노동자, 상고인, 관리, 유생계층이 참가하게 되었고 주도계층도 인텔리에 국한되지 않았다. 43)

농민계층 중에서 지도적 역할을 수행했던 인물들이 구장출신들이었다. 구장들은 자기 마을의 농민들을 동원하고 이를 사전 연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지들이었기 때문이다.

2. 3.1운동 시기의 하남과 3.1운동의 개황

가. 3.1운동 시기의 하남지역

현재 하남시의 행정구역은 1919년 당시 경기도 광주군의 동부면과 서부면 그리고 중부면의 상산곡리에 해당된다. 인접한 생활권인 언주면과 구천면은 현재 각각 서울 송파구와 강동구 일대이며 현재 하남시 주민들의 대다수가 서울지역과 같은 생활권 내에서 생활하고 있

43) 김호일, 앞의 책, pp.450-451

다.

다만 현재 동부면과 서부면이라는 행정명칭은 공식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으나 하남 지역에서 오랜 세월 거주해 온 원주민들은 종전의 관습대로 일상생활에서 동부와 서부로 구분하여 인식하고 있으므로 여기서도 편의상 당시의 구분을 따라서 동부면과 서부면으로 구분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그림1>하남시지도44)

3.1운동 당시 초1리, 초2리, 감1리, 감2리, 감북동, 학암동, 향동,

44) 『하남시사』 (역사도시하남), 2001

상사창리, 하사창리, 춘장리, 궁촌, 광암리, 학암리, 향리, 법화골, 천암동 일대가 서부면에 해당되었고 상산곡동은 중부면, 나머지는 동부면에 해당된다.

<표1>1917년 하남지역의 행정구역⁴⁵⁾

동 부 면	관할구역	서 부 면	관할구역
교 산 리	객산동, 교촌	초 일 리	초일동
하산곡리	하산곡동	초 이 리	초이동
천 현 리	천현동	춘 궁 리	춘장리, 궁촌
덕 풍 리	덕풍동 일부	광 암 리	광암동
풍 산 리	황산동, 덕풍동 일부	감 북 리	감북동
망 월 리	망월동	감 일 리	감일동
선 리	선촌	감 이 리	감이동
미 사 리	미사촌	학 암 리	학암동
신 장 리	장례촌, 신평리	향 리	향동
당 정 리	당정리	상사창리	상사창리, 군내면 법화동, 천암동
창 우 리	창우동	하사창리	하사창리
배알미리	배알미리		

출전 : 조선총독부, 『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 1917

45) 하남시사, p.352

나. 일제의 수탈과 농민의 빈곤심화

3.1 만세 운동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데에는 일제의 수탈과 탄압 정치가 주된 이유였는데 당시 하남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경제사정 또한 전국적인 피폐상황과 다를 바 없이 피폐할 대로 피폐해져 있었다. 하남지역은 이미 한말부터 국운이 기울기 시작할 때부터 사회경제적으로 피폐해져 가고 있었던 것이다.

의정부에서 아뢰었다.

“광주유수 조경호의 장계를 보니 거기에 쓰기를 ‘본영에서 총당할 군량이 1만 6천섬인데 4천섬은 이미 창고에 눌러두었고 3,300섬은 향무미(餉貿米)로서 연례대로 위에 바쳤습니다. 그 밖의 8,700섬에 대해서는 모두 바치는 기한을 연기해 줌으로써 백성들이 숨을 들리게 할 것에 대하여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여 주기 바랍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환곡에 대해 바치는 기한을 연기할 것에 대해서는 이미 은혜로운 하교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환곡(還穀)관계 정사는 다만 군량(軍糧)뿐이니 유사시에 대처한 물자에 대해서는 애초에 의논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생각하건대 농사가 흉작인 만큼 백성들의 사정을 응당 돌보아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유수가 사실에 근거하여 보고하였으니 특별히 요청한대로 시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⁴⁶⁾

46) 『고종실록』 19년 10월 16일(己巳)

“의정부에서 제의하였다. ‘방금 들건대 광주 백성들이 환곡과 관련한 폐단을 바로 잡을 것을 무리로 모여 신소하면서 점점 들끓는다고 전해오는 말이 해괴합니다. 요즘 백성들의 버릇이 어찌면 이렇게까지 무엄합니까. 참으로 놀랍고 통탄할 일입니다.’” 47)

이상 『고종실록』에 보이는 바와 같이 환곡의 폐단으로 백성들이 소요를 일으키는 분위기로 까지 험악한 사회상이 엿보이고 있다.

실제로 1896년(고종 33년) 3월 3일에는 광주군수 박기인(朴基仁)이 난민들이 소동을 일으켰을 때 해(害)를 입는 일이 생기기도 하였다. 48)

일본은 식민지 경제체제를 확립하는 한 방법으로 무엇보다 먼저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하였다.

조선총독부는 함방 직후 임시토지조사국을 설치하고 토지조사령을 공포한 후 1918년 말 까지 근대적 토지소유제도를 확립한다는 명분 아래 약 2천만엔의 경비를 들여 토지소유권 조사와 토지가격 조사, 지형 및 지목에 대한 조사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토지조사사업이 전개되면서 조선의 농민들 사이에서는 토지조사분쟁이 광범위하게 전개되었다. 토지조사분쟁의 내용을 보면, 조사 당시 총 필지수 1,910만 7,520필지 가운데 분쟁 건수는 33,937건으로 99,445필지에 이르렀다. 이는 약 200필지에 대해 분쟁지 1필지 꼴이

47) 같은 책, 고종31년 10월 20일(癸亥)

48) 같은 책, 고종 33년 3월 3일(양력)

었다. 이렇게 분쟁이 급증하자, 일본은 토지조사 분쟁을 무마하기 위해 1910년 9월 분쟁지 조사 종료 때까지의 기간에 연인원으로 일본인 57,024명, 조선인 44,612명, 합계 101,636명을 동원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토지조사사업은 조선의 농업 부문에 큰 타격을 주었다.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제는 방대한 조선의 토지·삼림·임야·미간지·공한지 등을 국유화하였다. 특히 일제는 조선 전토의 50.4%를 무상으로 직접 약탈하여 조선총독부의 소유로 만들어 최대지주가 되었다.

아울러 조선인 소유의 토지가 동양척식회사, 일본인 개인지주 등에게 넘어가 조선인 자작농, 자소작농들은 토지를 상실하고 말았다. 즉 문호 개방 이후 상업적 농업의 발전으로 어느 정도 자작농 및 자소작 상업층이 성장하였으나, 토지조사사업으로 대부분의 조선인 자소작농은 몰락의 길을 걸었던 것이다.

둘째, 소작농민들의 관습적인 경작권이 소멸되었다. 즉 일본은 전통적인 농민의 경작권을 일체 인정하지 않았고 이것은 결국 농민의 경제적 지위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셋째, 소작농민의 토지권이 전면 부정되었다. 전통적인 토지권의 부정은 곧 조선 농민에게 절대적인 투쟁의 대상이 되었다.

넷째, 농민의 개간권이 소멸되어 농민은 자유로이 개간을 통한 토지 소유의 길을 갈 수 없었다. 아울러 입회권도 상실되었다.

다섯째, 조선인 지주와 일본제국주의 권력의 밀착을 초래하였다. 토지조사사업은 지주에게 이익을 주고 지주의 권익을 엄호해 주는 밀착관계가 조성될 수 있게 했던 것이다.

여섯째, 조선총독부는 지세수입의 원천을 확보하여 식민지정책 수행의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토지조사사업의 결과 전체 농지면적은 4,871,071정보가 되어 1910년의 농지면적에 비해 80.7%가 증가되었다. 이것은 1909년의 과세면적에 비해 161.7% 늘어난 것이었다.

일곱째, 농민층의 분화가 심화되었고 이들은 임금노동자가 되었다. 일본의 토지조사사업은 토지수탈과 조세 수탈을 그 내용으로 한 식민통치정책의 본질적인 내용이다. 이러한 일본의 정책으로 조선 농민들은 조선의 해방과 민족의 독립을 보다 중요하게 인식하고 완강히 저항하기 시작하였다. 일본의 토지조사 사업은 곧바로 새로운 반일운동의 단초가 되었던 것이다. 그 첫 번째 민족적 열망은 3.1운동으로 귀결되었다. 49)

일제의 토지조사 사업은 우리 나라 전역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하남 지역 또한 예외가 아니었기에 농민 생활상의 피폐함은 여타의 지역과 마찬가지로 상황이었던 것이다.

다. 3.1운동의 개황

하남(광주)지방은 지리적으로 산이 많고 또 각지로 통하는 도로가 많아서 3월 상순-4월 상순에 걸쳐 끊임없이 만세시위가 계속되는 동안 경찰과 헌병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엄중한 경계를 폈다. 기독교와 천도교의 종교단체, 학생과 농민들이 운동의 핵심역할을 했는데, 특

49) 『하남시사』 pp.362-364

히 이곳 천도교구장 한순회(韓順會)는 이천, 여주, 원주, 충북 등지의 연락책임을 맡고 크게 활약하였다. 그는 때때로 서울을 왕래하는 한편 독립운동 소요경비를 모금하여 시위에 참가했다가 체포, 수감된 유가족을 돕고 운동자금에 쓰도록 중앙에 기부하기도 하였다.

3.1운동기간 중 광주는 매우 치열한 양상을 보였으며, 매일 밤 산 위에서 봉화를 올리며 만세를 불렀는데, 강 건너 서울에까지 그 함성이 들릴 정도였다. 특히 서울과 광주는 지리적으로 연결한 지역이어서, 낮이면 서울 시내로 들어와 만세시위를 벌이기도 하였다. 경찰은 엄중수사 했으나 매일 계속되는 형편이어서 경찰과 헌병은 극도로 신경이 날카로워져 만세시위의 진압에 있어서 매우 거칠고, 무차별총격을 가하는 일이 비일비재(非一非再) 하였으며 체포된 시위자에 대해서 고문과 학대 등 갖은 악형이 다 가해졌다.⁵⁰⁾

시위자에게 가해졌던 고문과 학대 중에서 태형은 매우 잔인한 것이었다.

“태형용 채찍은 푸른 대나무에 삼(麻)끈을 감아서 만들었으며 태형 규칙은 지극히 치밀하여 집행자는 먼저 똑바로 선 자세를 취하고 왼손을 허리 부분에 대고 오른손을 써서 채찍을 들고 그 중앙부분은 집행자의 모자에 접촉하게 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같은 속력과 힘을 가지고 피고인의 볼기 부분을 직각으로 구타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구타를 하면 피부가 찢어지는 일이 없이 구타직후 바로 걸어서 귀가 할 수 있다고 한다. 태형은 연령 16세부터 60세에 걸쳐 남

50) 광주군지

자에게 가해지는 것으로 예전부터 이것 때문에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묻지 않는다.” 51)

복심법원검사장의 말처럼 피부가 찢어지지 않고 바로 걸어서 귀가 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 치밀하게 태형 규칙을 정해서 악랄한 수법으로 처벌을 했던 것이다. 이처럼 태형을 받은 사람의 실정은 어떠했는가? 선천(宣川) 미동(美東)병원의 의사가 말한 내용을 보면

“1) 며칠 전 신의주 감옥에서 태형 당한 6명이 우리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탈저(脫疽)의 조짐을 보임. 2) 급히 수술을 해서 부패부분을 도려냈으나 불행하게도 그 중에 2명은 수술직후 사망했음.

(주) 우리들 일행이 본 4명의 환자는 등 직경 4인치에 이르게 피부박리현상이 있었음. 우측 엉덩이 살이 터져 나오고 손, 머리 전체 부분에 삼입해 생긴 구멍이 있고 등 부분에 삼입한 가제를 떼어내자 살보다 혈액 중에 짙은 즙이 혼입된 듯한 탁한 것이 나왔으며, 일행 중 2명은 이미 바로 볼 수 없을 정도였고, 두통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 냉수를 구해 겨우 그 고통에서 면하게 했다. 의사의 말에 의하면 상기 4명은 결과가 양호하여 회복이 충분하다고 한다.” 52)

이처럼 참혹한 태형을 가하면서 일제는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을

51) 국학자료원, 『삼일운동편(2)』, 1977, pp.459-460 "평양복심법원검사장 방문" (곽영숙 번역)

52) 같은 책 p.467(곽영숙 번역)

탄압했던 것이다.

이러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일제강점기의 하남에서 일어난 주목할 만한 사건은 역시 3.1 만세운동이다. 경기도 광주의 경우, 3월 21일부터 31일 사이에 11회에 걸쳐 7,600명이 시위에 참가하였고, 4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한 차례의 시위가 있었는데 400여명이 참가하였다.

하남지역에서는 1919년 3월 26일 동부면 교산리 출신李大憲(李大憲)이 주민 수십명과 함께 면사무소 앞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시위를 주도하였고, 망월리 구장 김교영(金教永)도 3월 27일 아침, 같은 마을의 김용문을 통해 사람들을 모아 만세시위를 일으켰다. 그리고 3월 27일 서부면 감일리에 사는 구희서(具羲書)는 주민 40여명을 모아 서부면 면사무소와 상일리 헌병주재소 앞까지 시위행진을 벌였다. 이날 구천면 상일리에는 천여 명의 주민들이 만세시위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같은 날 중부면 산성리 주민 200여명도 만세시위에 참가했다. 특히, 이날에는 남한산성(南漢山城)에 봉화가 오르기도 하였다.⁵³⁾

하남에서의 만세운동은 3월 1일 탑골공원에 참여 하였던 광주군 실촌면 만선리의 이병승(李秉昇)이 독립선언문을 가지고 와서 실촌면 봉현리에 사는 문홍규(文鴻圭)와 주동이 되어 3월 12일 실촌면사무소 앞에서 벌인 만세 운동의 영향을 받아 3월 27일 새벽 2시 동부면 교산동의李大憲(李大憲), 이영현 등은 마을 주민 수십 명을 인솔하고 뒷산에서 봉화를 울리며 1시간 동안 만세를 부르다 오전 3시경

53) 『역사속으로의 하남여행』

하산하여 동경주에 있던 면사무소 앞에서 오전 11시경 3시간동안 만세시위를 벌였다. 또한 망월동의 구장인 김교영(金敎永)은 3월 27일 아침 같은 마을의 김용문을 시켜 마을 주민들을 소집케 하여 이들을 인솔하고 면사무소까지 만세 시위를 벌였다. 이날 동부면의 만세시위는 천현리 주민과 천주교인 중심으로 500여명의 주민이 참여해 크게 확대되었는데 이 때의 시위로 주민 14명이 피검되었다. 그리고 같은 날 서부면에서는 감일동의 구희서(具羲書) 등이 주동이 되어 주민 40여명이 서부면사무소앞에서 만세를 부르다 다시 현병대가 있는 상일동(당시는 광주군 구천면 상일리)으로 향하여 동부면의 만세 군중과 합류하였다. 이 때 인근 주민들도 합세하여 1천여 명이 현병대 앞에서 만세를 부르다 현병들과 충돌하여 두 명이 죽고 10여 명이 부상을 당하고 주모자 이영현, 김교영(金敎永), 구희서(具羲書)는 체포되어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고 죽어간 일이 있었는데, 이 중 이대헌(李大憲)은 1990년에, 김교영(金敎永)은 1994년에 건국훈장을 추서받았다.⁵⁴⁾

한편 3월 26일 송과시장에는 3백여 명이 집합하여 현병 분견소를 습격하고 만세를 부르면서 시위행렬을 하였다. 3월 27일 경안에서는 천변에 수 천 명이 집합하여 만세를 불렀으며 남한산성(南漢山城)에서는 봉화를 올리는 한편 판교에서는 수 백 명이 돌마, 낙생 양면민과 합세하여 낙생면장 남태희(南台熙) 선두로 만세를 부르면서 천도교구로 갈 때 일본인 현병 송도(松島)도 같이 만세를 부르고 그 부인

54) 이철재, 《돌보기로 본 하남》, 피플뱅크, 1994
 이철재, 《하남의 역사》, 피플뱅크, 1995

도 동정하였다. 언주면 내곡리에 천도교 전교실에 수 백 명이 집합하여 만세를 불렀다. 강만 건너면 서울이라 날마다 밤이면 산에 불을 놓고 만세를 불렀는데 낮이면 서울시내로 들어오고 하여서 경찰이 엄중히 수사하였으나 매일 계속하므로 경찰은 극도로 신경이 예민하였다.⁵⁵⁾

3. 하남지역의 만세운동

가. 동부 하남지역에서의 만세운동

경기도 광주의 경우 3월 21일부터 31일 사이에 11회에 걸쳐 7,600명이 시위에 참가하였고, 4월 1일부터 15일까지 한차례의 시위가 있었는데 400여명이 참가하였다.

하남지역에서는 1919년 3월 26일 동부면 교산리에서李大憲(李大憲)이 면사무소 앞에서 태극기를 휘두르며 주민 수 십 명과 함께 시위를 일으켰다. 3월 26일에 이어 27일에는 주민 수 십 명이 태극기를 휘두르며 뒷산을 올라가 약 1시간 동안 봉화를 울리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후 산을 내려와 면사무소로 향해 가며 약 3시간 동안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또한 같은 면의 망월리 구장 김교영(金敎永)도 3월 27일 아침 같

55) 이병헌, 3.1운동비사, 시사시보사출판국, 1959, p.874

은 마을의 김용문(金用文)을 통해 사람들을 모아 만세 시위를 일으켰다. 이 만세 시위는 천현리의 기독교인이 참가함으로써 대규모로 발전하여 500여명이 참가하였다. 이 때 시위로 천현리 주민 14명이 검거되었다. 56)

이대헌(李大憲)은 최창근으로부터 전국적으로 만세시위가 전개되었음을 듣고, 3월 26일 마을청년을 규합하여 만세시위에 나서게 되었다. 3월 27일 오전 11시에 망월리의 주민들과 합류하고 시위군중은 더욱 기세를 올리며 면장과 면서기도 같은 민족이므로 동참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이들이 거절하자 격렬한 야유를 보냈다. 시위대 앞에서 대한독립의 당위성과 일본의 정책에 대해 장차 호응하지 말고 저항할 것을 요청하였다. 시위대가 오후 2시까지 격렬하게 만세를 부르자 주재소원들이 출동하였고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1919년 4월 29일 경성복심법원에서 보안법 위반으로 2년형이 선고되자 항소하여 고등법원에서 1년으로 감형되었으나 다시 대법원에 가서 기각되어 형이 확정되고 옥고를 치렀다. 이대헌(李大憲)은 후일 1927년 8월 한순회(韓順會), 한백봉(韓百鳳), 유인목(兪仁穆) 등과 함께 신간회 광주지회를 결성하여 간사로 활동하였다.57)

이대헌(李大憲)은 함평 이씨(咸平 李氏)이며 당시 37세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그의 수형기록카드에는 신분이 평민으로 표시58)되

56) 『하남시사』, p.391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제5권, 국가보훈처, pp.288-290

57) 『위례문화』 제7호, 하남문화원, 2003. pp.80-81

58)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별집6, 국사편찬위원회, 1993. p.25

어 있으나 이는 조선의 양반사회가 붕괴되고 그 당시 많은 양반출신들이 사회의 변혁과 함께 농업에 종사하므로써 평민으로 표시된 것으로 보인다. 함평이씨는 조선시대에 72인의 문과급제자와 많은 무인을 배출한 가문으로서 하남지역에는 '이시애(李施愛)의 난'을 진압할 때 선봉장이었던 이종생(李從生)의 후손들이 교산리(校山里)에 집성촌을 이루어 世居하고 있다.⁵⁹⁾

김교영(金敎永)은 경주김씨(慶州 金氏)이며 7대째 광주군 동부면 망월리(구산)에 거주하여 왔다. 김교영(金敎永)의 조부 김만집(金萬集)은 1833년 형 김우집(일명 星禹), 아우 김문집(金文集)과 함께 천주교에 입교하여 1839년(기해년) 천주교박해 때 3형제가 함께 체포되어 모두 순교하였고, 1866년(병인년) 천주교 대 박해 때는 숙부 김차희(次熙), 당숙 김성희(聖熙), 그리고 문집의 아들 경희(敬熙) 등도 체포되어 순교하였다. 김교영(金敎永)의 큰 조부 김우집(일명 김성우안당)은 한국 천주교 103위 성인 중 한분이다.

그의 순교정신은 “나는 천주교인이요. 살아도 천주교인으로 살고 죽어도 천주교인으로 죽을 것이오” 한 말 속에 모두 함축돼 있다.⁶⁰⁾

김교영(金敎永)은 이러한 천주교 가정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강직한 성품으로 성장하여 동민들의 신망을 받아왔다. 1919년 3월 3.1운동이 일어나자 이 소식을 전해들은 김교영(金敎永)은 동년 3월 26일 소임(동리 하급임원) 김용문을 시켜 주민

59) 『위례문화』 제6호, 하남문화원, 2002. pp.92-95

60) 천주교 구산성당, 『구산성지』, 성요셉출판사, 1989

들을 자기 집 마당에 불러놓고 장롱 속 깊이 감추어 두었던 태극기를 꺼내들고 동민들과 함께 동리 뒷산(구산)에 올라가 밤 늦게 까지 횃불을 밝히며, 목이 터지도록 대한독립만세를 불렀다.

김교영(金敎永)은 다음날(27일) 다시 소임 김용문을 시켜 동민들을 집합시켜 이번에는 망월리에서 약 7킬로미터 떨어진 동부면사무소가 있는 천현리(동경주)로 시위대열 선두에 서서 태극기를 높이 들고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며 행진하였다. 행진도중 대열에 합류한 시위군중은 수 백 명에 이르렀다.

정오가 지나 시위군중이 면사무소에 도착하자 이에 놀란 면장과 면서기들은 모두 도망가고 면사무소는 텅 비어 있었다. 시위군중은 면사무소 앞 거리와 신장리 장터거리를 돌며 3시간이상 대한독립만세를 불렀다. 시위대열은 면사무소로부터 6킬로미터 이상 상거한 광주군 구천면 상일리(현 서울 강동구 상일동)에 있는 현병과건소로 향하였다.

김교영(金敎永)은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시종 시위대열 맨 앞에 서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행진하였다.

동일 오후 5시경 시위대열은 현 서울시계인 광주군 동부면 풍산리 속칭 황산고개에 이르렀다. 고개에서 현병과건소가 바라보이자 시위군중은 더욱 큰 소리로 대한독립만세를 절규하였다. 왜병들은 총을 쏘며 달려오는데도 김교영(金敎永)은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그 자리에 서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다가 조카 김정운(당시 28세), 조카사위 권명규(일명 권송화) 등과 함께 왜병에게 체포되었다.

왜병들은 이들을 거꾸로 매달고 물을 먹이기도 하고 손가락 사이

에 대나무를 끼고 비트는 등 1주일간 심한 고문을 한 후 주모자인 김교영(金敎永)은 서울로 이송하고, 김정운과 권명규는 곤장(태형) 60도식을 때려서 방면하였다.

김교영(金敎永)은 1919년 4월 29일 경성지방법원에서 1년 6개월 징역 언도를 받고 경성복심법원에 항소하였으나 동년 6월 2일 기각되어 형이 집행되었다. 김교영(金敎永)이 재판에서 시위군중의 수가 9명이라고 공술한 것은 동리 청년들의 희생을 줄이기 위해 시위군중의 수를 축소하여 진술한 것이다. 시위 군중에는 주모자 김교영(金敎永)의 장남 김정해(당 40세), 차남 김정숙(당 37세), 3남 김정수(당 33세), 5남 김정필(당 25세) 등과 김교영(金敎永)의 조카들도 다수 끼어 있었다.

한편 김교영(金敎永)의 4남 김정하(당29세)는 분가하여 양주군 와부면 삼봉리에 거주하던 중 3.1운동이 일어나자 1919년 음 2월 10일 경 청년들을 규합하여 와부면 조안리(고랭이)에 있는 왜병 파견소를 야음을 틈타 습격하였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다시 동면 덕소리에 있는 헌병 파견소를 습격하다 체포되었다. 김정하는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탈출하여 또 다시 삼봉리 앞 북한강 맞은편인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김정하의 처가가 있는 곳)에 가서 서종면에 거주하는 동지 최학순, 김석진, 홍성문, 이동한, 류근학 등 서종면 주민 약 300여명과 사립 문상학교(문호리 소재) 학생 70여명과 함께 문상학교 교정에 모여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날이 저물자 문호리 앞 당무산에 올라가 햇불을 밝히고 계속 만세를 부르다 이를 알고 달려온 왜병에게 최학순, 김석진, 홍성문, 이동

한, 류근학 등은 체포되고 김정하는 한동안 평북 운산에 피신하여 있었다.⁶¹⁾

또한 동부면 풍산리에서는 김홍렬(金弘烈)이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김홍렬(金弘烈)의 신분은 양반⁶²⁾으로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당시 그의 나이 34세였다. 김홍렬(金弘烈)은 손병희 등의 조선독립선언 취지에 찬동하여 정치변혁의 목적으로 이의 시위운동을 하기위해 3월 26일 오전 10시경 풍산리(豊山里) 주민 약 20여명과 함께 인근 산위로 올라가 봉화를 올리고 이튿날 오전 3시 경에 이르기 까지 조선독립만세를 연달아 높이 외쳤다. ⁶³⁾

동부면의 시위운동과정에서 검거된 14명 가운데 이대헌(李大憲), 김교영(金敎永), 김홍렬(金弘烈)은 시위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6월, 징역 1년씩을 언도 받고 옥고를 치렀으며, 나머지 인사들은 구류, 조사 끝에 훈방되었다. 특히 이대헌(李大憲)과 김교영(金敎永)은 현직 구장으로서 동리주민을 선동, 시위운동을 주도하였다 하여 보다 무겁게 형량이 정해진 바, 이대헌(李大憲)의 경

61) 『위례문화』 제5호. 하남문화원, 2001,

『위례문화』 제7호, 하남문화원, 2003 및 증손자인 김학선씨와 김학철씨의 증언을 참조함.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제5권, 국가보훈처, pp.289-290

『한민족독립운동사 자료집』 별집1, 국사편찬위원회, 1991. p.371

62)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별집3. 국사편찬위원회. 1992. p.231

63)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p.290-291

우는 광주군 3.1운동 과정 중의 검거 투옥된 인사 중 가장 중형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들 3인은 모두 치안을 방해하여 이른바 보안법을 위반한 죄에 해당한다 하여 보안법 제7조와 조선형사령 제42조 위반죄를 적용, 이대헌(李大憲)과 김교영(金敎永)은 1919년 4월 29일, 김홍렬(金弘烈)은 동 5월 2일의 재판결과에 따라 위의 형량이 부과된 것이었다.

그 외에 이대헌(李大憲)은 별도 형법 제19조에 의해 태극기를 증거물로 몰수당하였다.⁶⁴⁾

나. 서부 하남지역에서의 만세운동

서부면은 구천면(현재 서울 강동구 일대)과는 지역상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시위운동도 서부면 감일리에서 시작하여 나중에는 구천면 상일리의 헌병주재소로 집결, 2개면이 연합적으로 시위하는 식의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따라서 규모면에 있어서도 광주군 지역에서 3.1운동이 시작된 이래 가장 큰 것이었다. 시위군중이 서부면사무소 앞에서나 나중의 상일리 헌병주재소 앞 모두 1,000명 이상의 규모였는데다 면사무소와 헌병주재소에 투석하는 등 시위양상이 과격해짐에 따라 진압 헌병측도 마침내 발포, 광주군 시위에서 첫 번째의 사상자를 낸 시위운동이 되기도 하였다.⁶⁵⁾

64) 경기도사편찬위원회, 『경기도 항일독립운동사』, 1995, p.432

65) 같은 책 p.433

서부면에서는 3월 27일 새벽 감일리에 사는 48세의 구희서(具羲書)가 뒷산에 올라가 횃불을 밝혀 인근 지역에 알리고, 이날 오전 주민 40여명을 모아 서부면 면사무소와 상일리 헌병주재소 앞까지 시위행진을 벌였다.

이 날 서부면사무소 앞에서의 시위에는 주민 1,000여 명이 돌을 던지며 시위를 하였고 헌병의 발포로 해산하였다. 또한 사망자 1명, 부상자 2명이 발생하였고 중부면에서도 시위군중이 면장을 구타하여 헌병발포로 해산하였고⁶⁶⁾ 보병 79연대가 응원 진압하였다.⁶⁷⁾

이날 구천면 상일리에는 1,000여 명의 주민들이 만세시위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같은 날 언주면 내곡리 천도교 전교실(傳教室)에서는 수백 명의 주민이 집합하여 만세를 불렀고, 중부면 산성리 주민 200여 명이 만세시위에 참가했다. 특히 이날에는 남한산성(南漢山城)에 봉화가 오르기도 하였다.⁶⁸⁾

서부면에서의 시위를 주도한 구희서(具羲書)는 능성 구씨(凌城 具氏)이다.

능성 구씨는 경기도 광주시 일대 여러 곳에 집성촌을 이루고 있으며 하남에 집성촌을 이룬 곳은 서부면 감일리(甘一里) 일대로서 조선 중

66) 3월 29일 조선군사령관 앞으로 보낸 日次 報告 (발신자 경성 兒島), 『3.1운동편(1)』, 국학자료원, 1977, p.153-154

67) 같은책 p.155

68) 손승철, 김세민, 이상배 공저, 『역사속으로의 하남여행』, 하남역사박물관

종 때 일등공신인 구징(具徵)의 후손들이다.

능성 구씨는 독립운동을 주도한 인물을 상당수 배출한 가문이다. 한말 을미사변 때 구연영(具然英, 일명 春景) 전도사는 의병을 일으켜 이천수창의 중장(利川守倡義 中將)으로서 남한산성(南漢山城)과 영남 각 지역에서 전투를 하다가 일본의 극렬한 탄압과 진압으로 무력항쟁의 한계를 인식, 귀향 후 교회전도사가 되어 광주 도착면 노곡리에서 노곡교회를 설립하고, 구국회(救國會)를 조직하여 국채보상과 일진회 타도를 성토했으며 을사, 정미의병을 고무하다가 왜병에게 붙잡혀 순국하였다. 이 때 아들 구정서(具禎書) 전도사도 함께 일본 경찰에 의해 순국하였으며, 그의 부인 최마리아는 미국 하와이에서 부군의 뜻을 이어 받아 대한국민회원으로 활약했다.⁶⁹⁾

光州학생운동의 서울지역 주동자인 구장회(具鏜會)는 김일리 361번지에서 구준서의 4남으로 출생하였다.⁷⁰⁾ 구장회는 서울 보성고등보통학교(현 보성고등학교)에 재학 중 학생비밀결사인 고려공산청년회원으로 항일 민족운동을 전개하며 보성고보학생 500여 명을 비롯하여 휘문고보(徽文高普) 등 서울지역 학생들을 선동하여 동맹휴학을

69) 김동옥, 『순국열사, 순교자 구연영(具然英) 전도사』, 홍익기획, 1989
김동옥, 『순국열사, 순교자 구연영(具然英) 전도사』, 한국감리교사학회, 1989

김동옥, 「具禎書義士 墓碑文」, 1988 (구연영(具然英), 구정서(具禎書) 열사의 묘는 경기도 광주시 도착면 궁평리에 있었는데 최근 국립묘지로 이장하였음)

70) 『하남문화』 제2호, 하남문화원, 1997. pp.97-99참조

주도하고, 격문을 살포하여 광주학생사건의 정체를 세상에 폭로하고 구금된 학생을 석방할 것과 경찰의 학교유린을 배격하며 항일 민족운동을 주도, 1927년 9월경 서대문경찰서 고등계에 검거되어 2년의 옥고를 치른 사람이다.⁷¹⁾

이처럼 서부면 감일리에는 능성구씨가 집성촌을 이루고 있으면서 독립운동가를 배출하였다.

구회서(具義書)의 재판 판결문⁷²⁾에 “경성 어떤 학생의 협박을 받아 부득이 판시 날 민중을 지휘 인솔하여 서부면 사무소 및 상일리 헌병주재소에 이르러 그곳에서 군중과 같이 만세를 부른 일이 있다.”고 진술한 부분을 볼 때에 이는 학생들이 만세운동에 대한 소식을 전파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보여 주는 대목이라 하겠다.

한편 동부면과 서부면의 시위군중은 구천면의 상일리에 집결하여 시위를 벌였다.

당시 상일리에는 헌병주재소가 있었으며 3월 27일 면의 서남단인 길리(吉里 : 현 서울 강동구 길동 부근)에서 발단되어 면내의 동북단에 위치한 상일리의 헌병주재소로 향진(向進)하는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 이 곳에서 소속 면내지역에서 각각 시위운동을 전개, 일단 해산 한 후 다시 이곳까지 이동해온 서부면, 동부면 면민들과 합세, 1,000명 이상의 군중이 모여 대규모 시위운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날

71) 구자관, 『송곡집』, 송곡집발간위원회, 2003. p.184

72)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p.294

이 어두워지면서 시위군중은 점차 과격해지기 시작하였고 군중 1,000여 명이 태극기를 앞세우고 헌병주재소 안으로 몸싸움을 하며 밀고 들어가려고 하자 진압 헌병 측에서는 강력히 진압대응, 밀고 밀리는 중에 주재소 부근 대여섯 군데 높은 지역까지 군중들이 운집하여⁷³⁾ 주재소를 완전 포위한 상태에서 투석을 하며 쇄도하자 진압 헌병은 마침내 발포하여, 사망자 1명과 부상자 2명이 발생하므로써 시위군중은 무력에 의해 강제로 해산되었다.⁷⁴⁾

다. 남한산성(南漢山城)에서의 만세시위

남한산성(南漢山城)은 문헌 기록상으로 신라 진흥왕 때에 광주 지역에 신주(新州)를 설치 할 때 쌓은 주장성(晝長城)으로서 임진왜란(壬辰倭亂)을 겪으면서 나라의 안위를 보장하는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가 인정되고 뒤이어 인조 임금 때 ‘이괄(李适)의 난’을 겪으면서 종묘사직(宗廟社稷)을 보전하기 위한 보장지처(保障之處)로서의 위치를 굳히게 된다. 그리하여 성벽을 대대적으로 신축 또는 보수 하면서 전란(戰亂)에 대비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1626년 11월(인조3)에는 하남의 고골에 있던 광주부(廣州府)의 치소(治所)를 남한산성(南漢山城)으로 옮기게 되었다. 이러한 정책에 따라 19세기 말까지 1,000여 호에 4,000여 인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⁷⁵⁾

73) 국학자료원, 앞의 책 p.333

74) 경기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75) 한국향토사연구전국협의회, 『남한산성(南漢山城)품에 안긴 산성마을』,

인조 때 광주부의 치소가 옮겨진 이후 남한산성(南漢山城)은 효종 때 청나라를 정벌하기 위한 북벌(北伐) 준비의 거점이 되었고, 대한 제국에 이르러서는 신식군대를 양성하기 위한 별기군(別技軍)의 훈련을 했던 곳이기도 하였다.

남한산성(南漢山城)은 1896년 봉기한 경기의병의 의병투쟁 거점이었다. 2월 23일 심진원이 이끄는 경기의병이 남한산성(南漢山城)에 집결하였고, 뒤이어 2월 28일 박준영, 김하락, 구연영 등의 이천의병 부대와 합세하여 남한산성(南漢山城)을 완전히 점거하였다. 남한산성(南漢山城)을 점거한 의병부대의 군사는 1,600여명에 달하였다.⁷⁶⁾ 경기의병은 서울을 탈환하기 위한 3단계의 진공작전(進攻作戰)을 수립했으나 불행하게 그 계획은 남한산성의 함락으로 실패하게 되었다.

경기의병의 서울 진공계획은 비록 실패로 끝났으나 의병전쟁사에 길이 남을 사건이었다. 남한산성(南漢山城)은 의병전쟁 이후에도 3.1운동을 비롯한 민족독립운동의 거점이 되어 왔다. 현재 남한산성(南漢山城)의 성 안쪽은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로 편입되어 있으나 하남 지역과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지역정서가 다르지 않고 3.1운동 당시 하남 지역과 동시에 만세운동이 전개되었던 곳으로서 하남지역 만세운동의 준비과정과 연결고리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남한산성(南漢山城)에서도 동부면과 서부면 일대에서 만세시위가 펼쳐진 것과 같은 날인 3월 27일에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1999, p.25

76) 같은책, p.29

이 날 시위는 새벽 남한산에 햇불을 올리고 만세를 부르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오전에는 남한산성(南漢山城) 남문 아래 계곡에 중부면 단대리(현재 성남시 단대동), 탄리, 수진리(현 성남시 수진동), 주민 300여명이 모여 조선독립만세를 부른 후, 산성 안으로 진입하여 면 사무소를 향해 만세시위를 계속하였다. 면사무소에 집결한 시위대가 평소 적극적으로 친일행위를 한 중부면장의 머리를 곤봉으로 가격, 실신시키면서 시위는 무력시위 양상을 드러냈다. 경비 중이던 일본 헌병이 공포를 발사하면서 시위대는 해산하였다. 이날의 만세시위는 평소 적극적인 부일행위를 한 친일면장을 주민들이 직접 응징하였다는 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1930년대 들어 남한산성(南漢山城)은 항일민족운동의 중심지로 부상하였다. 당시 국내에서의 항일운동은 사회주의 계열이 운동을 주도하였는데, 남한산성(南漢山城) 내에도 이 같은 사회주의 계열의 항일 민족운동단체가 결성된 것이다. 1930년 석혜환, 정영배 등이 중심이 되어 중부면 산성리에 조직한 남한산 노동공조회가 그것이다. 노동자, 농민을 의식화시키는 활동을 하였다.⁷⁷⁾

4. 하남지역 만세운동의 특징과 의의

이상과 같이 하남지역에서 전개되었던 만세시위를 종합하여 몇 가

77) 같은 책, pp.32-33

지 특징적인 면을 찾아보고자 한다.

가. 만세운동 주도계층의 신분

하남 지역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하였던 인물들은 어떠한 계층이었으며 만세운동에는 얼마나 참여 했는가 하는 점이다. 당시 하남지역의 만세운동에 참여한 사람의 수는 하남지역에서 거주하던 인구의 수에 비하여 많은 인원이 참여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의 표는 1842년(헌종 8)에 간행된 『광주부읍지(廣州府邑誌)』와 1910년에 작성된 『민적통계표(民籍統計表)』에 기초하여 하남지역의 호수 및 인구수를 표로 작성한 것이다. 이 표를 통하여, 한말 하남지역의 인구추세를 알 수 있는데, ... 1910년 경 동부면이 서부면보다 호수가 300호 많으며 인구수 또한 동부면이 서부면보다 1,000명 가량 많다는 점이다.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에 의하면, 『민적통계표』를 작성할 당시 통계치가 실제 인구수의 80%까지 파악된다고 한다.⁷⁸⁾ 이에 따른다면, 1910년경 인구통계는 그 대세를 파악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동부면의 인구수가 서부면의 인

78) 당시 인구가 정확하게 조사되지 않은 데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존재하였는데 대표적인 예로 출생 후 생존율이 낮은 이유로 해서 해방 이후까지도 상당수의 사람들이 자녀의 출생신고를 2-3년 정도 늦추는 관행이 있었다.

『고종실록』 31년 12월 7일(기유) 기록을 보면 내무대신이 인구수를 보고하지 않은 감사들에게 경고 조치를 하도록 제의한 사실이 보이는 데 전라도, 평안도, 강원도, 광주부, 제주목에서 호구조사보고를 하지 못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구수보다 많다고 하겠다. 79)

이 표를 참조하여 추정하여 보면 당시 하남지역의 인구는 약 9천 명 가까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80)

<표2> 한말일제하 하남지역의 인구 및 인구밀도81)

구 분 출전		호수	인구수			호당 인구수	인구 밀도
			남	여	계		
광주부 읍지 (1842)	동 부 면	771	1,325 (45.4)	1,596 (54.6)	2,921 (100)	3.79	67.1
	서 부 면	487	1,153 (41.9)	1,601 (58.1)	2,754 (100)	5.66	80.6
	계	1,258	2,478 (43.7)	3,197 (56.3)	5,675 (100)	4.51	73.0
민적 통계표 (1910)	동 부 면	958	2,298 (57.0)	1,737 (43.0)	4,035 (100)	4.21	92.7
	서 부 면	658	1,704 (56.3)	1,323 (43.7)	3,027 (100)	4.60	88.6
	계	1,616	4,002 (56.7)	3,060 (43.3)	7,062 (100)	4.37	90.9

79) 『하남시사』, p.355

80) 이 표에는 현재의 하남에 편입되어 있는 중부면 상산곡리의 인구가 빠져 있고 당시 인구통계가 실제인구의 80%정도인 점을 감안하여 추정

81) 『광주부읍지(廣州府邑誌)』·
『민적통계표(民籍統計表)』

다음으로는 당시 하남 지역 주민들의 직업구성현황이다.⁸²⁾

<표3>하남지역 주민들의 직업별 구성 (단위 : 호/명)

구분 출전		호수	남성인구 /인구수	직업별인구(%)						계
				관공리	유생	상업	농업	공업	기타	
민 적 통 계 표 (19 10)	동 부 면	958	2,298/ 4,035	1 (0.1)	1 (0.1)	68 (7.1)	889 (92.6)	1 (0.1)	-	960 (100)
	서 부 면	658	1,704/ 3,027	1 (0.2)	-	25 (3.8)	626 (95.0)	2 (0.3)	5 (0.7)	659 (100)
	계	1,616	4,002/ 7,062	2 (0.12)	1 (0.06)	93 (5.74)	1,515 (93.58)	3 (0.19)	5 (0.31)	1,619 (100)

위의 표를 통해서 보면, 하남지역인 동부면과 서부면에 살았던 사람들의 대부분은 농업에 종사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부면의 경우 농업종사자가 92.6% 정도였고, 서부면은 95.0% 정도였다. 그 다음 상업종사자가 동부면에서는 7.1%, 서부면에서는 3.8% 정도였다. 동부면이 서부면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업이 발달하였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관공리나 유생이 적은 것은 양반계층들이 이제는 농업 같은

82) 하남시사에 인용된 『민적통계표』. 『하남시사』. p.357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파악되었기 때문이다. 아마도 이 기록에 나타난 관공리는 면장이 아닌가 여겨진다. 직업을 통해 본 1910년경의 동부면·서부면 지역은 상업이 융성하였던 지역이라기보다는 농업을 주된 경제활동으로 삼던 지역으로 보인다.⁸³⁾

여기서 유생은 동부면에 1명으로 나타나 있는 데, 이는 동부면 샘재에서 살던 집강(執綱)이었던 정택조(鄭宅朝)이거나 정택조와 비슷한 신분의 인물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집강은 향약에서 기율담당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고 오늘날 면장과 같은 업무를 담당하기도 하였다. 집강을 맡고 있던 정참봉은 고종 25년(1888) 식년진사시에 3등으로 합격하였고 정구갑(鄭九甲) 살육(殺獄)이 발생한 광무(光武) 8년(1904)에 정택조는 종9품 참봉으로서 승릉(崇陵)을 관리하고 있었다. 정구갑 살육 사건이 발생하자 초기 사건수습에 나서고 있으며 양반으로서의 권위를 행사하였음을 알 수 있다.⁸⁴⁾

<표4>경기도지방 3.1운동 시기별 피고소인의 계층별 구성⁸⁵⁾

계층 기간	지식인 청년.학생	농업종사자	노동자	소상인 상공업자	계
3.1-3.10	20(66.6)	-	5(16.7)	2(16.7)	27

83) 『하남시사』, p.357

84) 김순길, 앞의 글, p.16-17

85) 경기도사편찬위원회, 『경기도항일독립운동사』, p.507.

3.11-3.20	14(14.4)	68(70.1)	1(1.0)	14(14.4)	97
3.21.3.31	27(9.7)	201(72.0)	21(7.5)	30(10.8)	279
4.1-4.10	13(5.2)	226(90.8)	2(0.8)	8(3.2)	249
4.11-4.20	-	-	-	1(100)	1
4.21-4.30	-	-	2(66.6)	1(33.4)	3
계	74(11.2)	495(75.1)	31(4.7)	56(9.0)	656

출전 :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2, 『독립운동사자료집』 5, 272-564쪽

비고 : * 괄호안은 백분율임

* 농업종사자에는 농촌의 양반, 유생출신들이 포함되어 있을 것임

* 서울 예심 종결자 가운데 경기도 시위 관련자 3명을 계산에 산입하였음.

위의 표에서 보이듯 3월 하순부터 4월 상순에는 농민의 적극적인 참가 비율이 확산되어 이 기간 전체 피기소자의 90.8%를 차지할 정도였다. 그러나 향촌사회 내에서 운동을 주도해 간 농민들은 대개 구래의 유교나 애국계몽운동의 세례를 받은 향촌사회내의 지식인 부류였다. 시위운동의 적극적 참가자들의 재판기록을 보면 기독교도나 천도교도들은 반드시 표시를 하고 있으나 유생들은 따로 표시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대개 그들이 농업을 경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업종사자로 표시된 자들의 대부분은 어느 정도의 유교적 소양을 가진 계층들로 볼 수 있다.⁸⁶⁾

10년 동안의 일본 무단통치를 한 때 위기에 몰아넣고 조국독립의 불타는 염원을 대담한 항일 봉기로 폭발시킨 민중은 다름 아닌 농촌의 순박한 농민들이었다. 그들은 일본 경찰의 무자비한 탄압에 굴복함이 없이 목숨을 걸고 저항함으로써 일본 식민지 통치기구의 전면적 타도를 외쳤던 것이다. 87)

식민지 사회의 상황은 1917년 이후 쌀 부족 현상으로 인한 농민층의 분노가 극대화 되면서 폭동을 야기할 수 있는 상태로 진행되었다. 쌀값 폭등의 직접적인 요인은 지주나 미곡상들이 쌀을 매점하여 사재기하는 행위이지만 일본제국주의의 모순에서 파생한 식량부족 현상을 식민지에 전가하려는 전략 때문이다. 1918년에는 쌀값폭등은 더욱 심각한 양상으로 진행되어 폭동을 수반하는 상황으로 진전되었다. 88)

그리고 광주군 동부면 교산리의 주민들은 앞에서 살펴본 바처럼 합평이씨가 집성촌을 이루고 있으며 서부면 감일리에는 능성구씨가 세거 집성촌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거해서 볼 때 하남지역의 만세운동을 주도한 동부면의 이대헌(李大憲), 김교영(金敎永), 김홍렬(金弘烈), 서부면의 구희서(具羲書) 등의 신분은 양반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구희

86) 경기도사편찬위원회, 같은책, p.508

87) 박성수, 『한국독립운동사론』,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6, p.475

88) 서승갑, 「성남지역 3.1운동의 특성」, 『일제하 성남지역의 민족해방운동양상』, 성남문화원, 2003

서(具義書)와 이대헌(李大憲)의 경우 수형기록카드상에는 평민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직업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그들이 거주하던 마을이 양반인 능성구씨와 함평이씨의 세거지인 집성촌임에 비추어 구희서(具義書)와 이대헌(李大憲)은 양반계층이라고 볼 수 있다.⁸⁹⁾

다만 이들이 그 이전 시대와 같은 양반으로서의 권세를 누렸다고 볼 수는 없으나 구장이었던 김교영(金敎永)이 마을 사환 김용문으로 하여금 마을 주민들을 소집하라고 지시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농업에 종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을의 구장을 맡아보는 등 일반 농민들을 지도할 수 있는 정도의 지도자적 위치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갑오경장 이후 양반과 상민의 계급이 형식적으로는 타파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몰락한 양반일지라도 향촌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은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남과 인접한 성남지역 또한 당시에는 광주군이었으며 성남지역의 만세운동에 있어서도 대략 같은 성격의 신분구조가 파악되고 있다.

성남 돌마면의 시위운동은 농촌의 지식인층 일단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운동을 주도하였다는 점이 특색이다. 이런 관계로 참가자가 증폭하였고 돌마면과 낙생면의 연합시위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돌마면 율리의 한백봉, 한순회(韓順會)는 1919년 고종 장례식에 참여한 후 3.1운동을 직접 경험하였다. 이들은 면내의 유지들과 접촉하면서

89) 『능성구씨 직장공파세보』,
『함평이씨 함성군파세보』

시위운동을 모의하는 한편 낙생면 초대면장 남태희와도 연계하여 거사를 도모하였다. 특히 한순회(韓順會)가 천도교 광주교구장이었던 점과 면장을 지낸 남태희 등이 운동을 주도한 것은 농촌의 지식인층이 시위운동에 적극적이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⁹⁰⁾

한순회(韓順會)가 1919년 5월 16일에 판교헌병주재소에서 조서에 서명한 내용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의미가 크다. 한순회(韓順會)는 양반출신으로 직업은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이었으며 당시 광주군 천도교구장으로 있었다. 심문의 주 내용은 1918년 10월부터 1919년 4월까지 특별 성미를 각출하여 천도교 중앙총부로 송금한 사실에 관한 것이다.⁹¹⁾

경기도에 있어서도 만세시위운동은 다양한 계층에 의해 주도되고 진행되었다. 즉, 종교인, 청년, 학생, 농민, 노동자, 소상공인 및 상공업자 등의 신분계층이 참가하여 이들에 의해 운동이 추진되고 주도되었다.⁹²⁾

하남 지역에서 펼쳐진 만세운동에 참여한 계층은 신분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한말의 사회 몰락과 변동을 생생하게 보여주듯이 양반이면서도 농업에 종사한다든지 혹은 구장으로서 마을 주민들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이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또한 인쇄기술자가

90) 서승갑, 앞의 책, p.53

성남문화원, 성남의 역사와 문화유산, 2001, p.125

91) 국사편찬위원회, 증인 한순회(韓順會)조서, 『한민족독립운동사료집』 10, 1989, p.70

92) 김호일, 『3.1운동에 있어서 지방의 역할』, 『사학지』 31, 1998

인쇄물제작을 통하여 소식을 전파하는데 기여하거나 학생들이 서울의 소식을 전해주는 등 모든 계층이 참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나. 만세운동 참가자들의 종교

하남지역에서 전개되었던 만세운동의 특징 가운데 두 번째는 만세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의 종교인데, 하남지역에서 시위에 참여했던 군중은 대체로 천주교인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동부면 교산리의 이대헌(李大憲)은 무종교⁹³⁾, 망월리 김교영(金敎永)의 종교는 천주교⁹⁴⁾, 동부면 풍산리의 김홍렬(金弘烈)의 종교는 미상⁹⁵⁾, 서부면 구희서(具羲書)의 종교는 미상이다.

“동부면의 만세시위는 천현리의 기독교인이 참가함으로써 대규모로 발전하여 500여 명이 참가하였다”⁹⁶⁾고 하였는바 이는 개신교가 아닌 천주교인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하남지역에 개신교가 처음 들어온 시기를 1927년으로 보는 것이 아직까지의 정설⁹⁷⁾이기 때문

93) 이대헌(李大憲)판결문, 『독립운동사자료집』 5권 p.288

94) 김교영(金敎永)판결문, 같은 책, p.290
「경주김씨가제도」

95) 김홍렬(金弘烈)의 판결문에는 종교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하남지역 출신 다른 시위주동자의 판결문에는 없는 손병희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으로 보아 천도교인으로 추정된다.

96) 『하남시사』, p.391

이다. 물론 개인적으로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있었을 수는 있겠으나 만세시위에 영향을 줄만큼의 세력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천주교의 세력이 설득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시위를 주도한 김교영(金敎永)의 가문은 조부 때부터 독실한 믿음을 가진 천주교인의 집안이었으며 그 당시 하남 지역에는 천주교가 상당한 범위까지 주민들에게 파고들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경기 광주부 궁마을⁹⁸⁾ 사는 이범숙이가 일전에 천주교도 10여인을 데리고 자기 덕형 리범서씨에게 와서 꺾박하며 하는 말이 내가 용산 있는 외국인 신부 아모씨에게 8.150량 빛을 쬐으니 값아 달라 하거늘.....”⁹⁹⁾

여기서 광주부 궁마을은 교산리에서 약 3km정도 떨어진 앞마을이다. 위의 글을 통해서 볼 때 이범숙이라는 사람이 외국인 신부에게 빛을 쬐었다고 하는 사실이 보이는데 이는 정확하지는 않으나 상당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범숙이라는 인물은 독립운동가 김기한 신문조서(제6회)에 등장하는 바 “이주호를 광주군 궁촌리의 이범석 집에 인쇄물을 가지고 가게 한 일”¹⁰⁰⁾의 이범석이 아닌가 생각된다.

97) 김윤규, 「하남 예일교회의 역사」, 『위례문화』 제5호, 2001, p.141

98) 광주부 궁마을은 현재 하남시 춘궁동의 궁말이다. 춘궁동의 동명은 춘창리와 궁말의 앞글자를 따서 지은 것이다.

99) 『독립신문』, 1899년 2월 24일

100) 김기한(金起漢)신문조서(제6회)

이미 하남 지역은 다산 정약용이 마현마을 까지 왕래하면서 지나 다녔고 구산성지의 천주교인들이 박해를 받으면서도 꾸준히 그 믿음을 지켜오며 교세를 넓혀왔던 지역이다.

이에 비하여 기독교는 1927년에 미사촌교회가 설립될 당시까지 하남시 일대는 무교회 상태였다. 그러다가 당시 새문안교회(서울 광화문에 소재)에 소속되어 신앙생활을 하던 안동민 영수(현 예일교회 안소녀 권사 부친)께서 망월포로 이사를 오게 되었다. 이사 후에 안동민 영수가 전도하기 위해 미사리 지역을 둘러보다가 병중에 있던 박밀양씨(최광섭 장로의 어머니)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 것이 미사촌교회의 시작이었다.¹⁰¹⁾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에 하남지역 만세 시위에 참가한 종교인의 다수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천주교인일 것으로 파악된다.

그런데 3.1운동 당시 천주교는 만세운동에 대하여 이를 제지하는 입장이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교인들이 만세운동에 참가해서 희생자가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3.1운동 당시 한국천주교회를 이끌고 있던 두 명의 주교는 프랑스인이었다. 그들은 신자들이 만세운동에 참가하지 않은 것을 다행스럽게, 그리고 자랑스럽게 여겼다. 서울교구장 뫼텔주교는 한국인들이 전개한 3.1운동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그는 한국의 독립이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였으므로 천주교회가 만세운동에 가담하지 않음으로써 일체에 좋은 모범을 보였다고

101) 『위례문화』 제5호 하남문화원. 2001, p.151

생각하였다.

대구교구 드망즈 주교는 한국인 신자들에게 만세운동에 가담하면 대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당시 신자들은 대죄를 범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대죄를 범한다는 것은 천주교 신자들에게 신앙인으로서 최종 목적인 구원으로부터 영원히 멀어지는 것으로 여겨졌다.¹⁰²⁾

“한국독립을 위한 소요는 개종운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 이 만세가 폭동으로 판단되어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것은 구산공소의 5.6명의 청년에 불과하다. 그들은 이 때문에 매를 맞았다. 그 중 한 명은 아직 서울 감옥에 있다고 한다. 그는 10여 년 전부터 냉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련이 좋은 숙고의 기회가 되었으면 싶다. 그리고 또 다른 애국자, 즉 고 남마두 회장의 아들에 대해서도 같은 기원을 하고 싶다. 그는 이미 오래 전부터 성당에 나오지 않고 있는 데 독립선전 배라 사건에 연루되어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¹⁰³⁾

이처럼 외국인 천주교 지도부는 오직 천주교로 개종시키는 데에만 관심이 있을 뿐 우리 민족의 독립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못해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일제의 한국 지배를 인정하였고, 한국인 신자들의 만세운동 참여를 금지하였다.

102) 윤선자, 「천주교회의 민족운동」, 『일제하 경기도지역 종교계의 민족문화운동』, 경기문화재단. 2001. p.103

103) <Mutel 문서>1919-05, 비에모 신부가 약현에서 뮌헨주교에게 보낸 1919년 5월 20일자 서한

예외적인 인물로 안성의 공베르 신부를 들 수 있을 뿐이다. 공베르 신부는 사람들이 만세운동을 어떻게 전개할지 문의하자 낮에는 국기를 들고, 밤에는 등불을 들고 만세를 부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일본인을 죽이지 마시오. 당신들은 지금 맨주먹이니 일본인을 하나라도 죽이면 당신들은 수 백 명이 죽을 것이요, 건물도 부수지 마시오. 독립을 해도 당신들이 짓게 되고, 못해도 당신들이 짓게 되니 아예 건물도 부수지 마시오”라고 충고하였다. 또한 만세운동을 질서 있게 전개하려면 지휘자가 있어야 한다며 천주교 신자 김종목을 추천하였다. 그리고 일본군에 쫓긴 만세군중이 안성성당으로 몰려오자 성당 마당에 프랑스 국기를 게양하고, 국제분쟁의 위협을 들어 엄포함으로써 성당으로 피신한 한국인들을 보호하였다.¹⁰⁴⁾

물론 공베르 신부의 행동도 한국인들의 독립운동을 이해한 데에서 나온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도적인 차원에서의 행동이었다. 그렇지만 이정도 만큼 만세운동을 이해한 사례도 드물었다.

천주교인들이 다른 종교인에 비하여 만세운동에 매우 소극적이었던 것은 일제에 의해 기소된 피고인 숫자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104) 윤정중, 「안성천주교회사」(2), 『가톨릭 청년』, 1965년 8월, p.76-77

<표5>기소피고인 종교별 일람표¹⁰⁵⁾

1919년 5월 8일 현재

기 소 피고인	불 교	유 교	천 도 교	시 천 교	기 독 교						무신 교	不祥
					장로 교	감리 교	조합 교회	불명	천주 교	기타		
6,417	72	11	1,156	2	1,154	290	3	96	18	1	2,659	955
%	1	0.1	18	0.03	18	5	0.03	1.5	0.2	0.01	41	15

위의 표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만세 시위에 참가했다가 기소된 사람들의 종교 구성에서 천도교나 장로교가 18%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데 비하면 천주교는 0.2%라는 미미한 비율에 불과하다.

제도교회가 금하였지만 한국인 천주교신자들이 3.1만세운동에 참여한 사례는 적지 않게 발견된다. 각지에서 만세운동을 전개하다 체포된 천주교신자는 1919년 5월말까지 53명으로 집계되었다.¹⁰⁶⁾ 물론 이 숫자는 구금된 이들을 말하는 것으로 만세운동에 참여하였으나 체포되지 않았거나 체포되었더라도 풀려난 사람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105) 한국기독교 장로회 신대리교회, 『한민족 수난속의 우리교회』, 1995, p.121

106) 『일제침략하 한국36년사』 4, pp.981-984

3.1운동에서 종교계 특히 개신교와 천도교의 역할은 높이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천주교회는 3.1운동에 거의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3.1운동에 천주교회의 참여율이 저조하였던 것은 사실이다. 저조한 참여율은 3.1운동 시기의 천주교회가 보여준 민족적 한계였다. 당시 천주교회는 일제 식민지 치하(治下)라는 민족적 모순, 그리고 일본 제국주의 한국 침략을 목인한 제도교회의 교회적 모순이라는 이중적인 모순 아래 놓여 있었다. 식민지 구조의 모순으로 한국이 겪고 있던 고통에, 신앙과 연결된 또 다른 모순을 천주교회는 겪고 있었던 것이다.¹⁰⁷⁾

천주교는 1920년에는 신도 수가 90,000여 명이었고 외부 세계에 대한 천주교의 태도는 조선인들에게 신사참배(神祀參拜)를 강요한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의 결정에 대한 천주교의 반응을 통해서 살필 수 있다. 1930년대와 1940년대에 신사참배문제로 많은 개신교인들이 체포되고 구금되었으나, 천주교 측에서는 1944년에 단 한 명의 신부가 신사참배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체포되었을 뿐이다. 그 당시 천주교가 신사참배와 같은 “이교적”인 의식을 수동적으로 목인하였다는 사실은 얼핏 보기에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지도자들은 1세기 동안의 천주교 대박해의 역사를 결코 잊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조선총독부로부터 천주교가 존립하고 성장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받기 위해서, “이교적”인 신사참배를 정책적으로 인정해 준 것이다.¹⁰⁸⁾

107) 윤선자, 위의 논문, p.109

108) 제임스 헨틀리 그레이슨지움, 강돈구 역, 『한국종교사』, 민족사, 1995,

한편 천주교회 지도부의 만세운동에 대한 부정적 입장과 달리 천주교인으로서 만세운동에 참여한 신자들은 대부분이 공소신자(公所信者)들이었다. 김교영(金敎永)이 속해 있던 광주의 경우 1958년에 와서야 '경안본당'이 설립되었으며, 1919년 만세운동 당시 동부면에는 '약현본당(藥峴本堂)'에서 관할하는 '구산공소(龜山公所)'가 있었다.

한규영과 김운식이 이끌었던 용인군 내사면 남곡리에는 1927년 남곡리 본당이 설립되었으며, 3.1운동 당시에는 경기도 안성군 '미리내본당' 관할 공소지역이었다.¹⁰⁹⁾

이순모가 주도한 수원군 장안면 및 우정면의 경우는 1888년 7월 설립된 '갯등이본당'의 관할 공소지역이었다. 3월 18일 만세운동이 전개되었던 강화군은 1958년 본당으로 설립되었고, 만세운동 당시에는 '인천본당' 관할 공소였다.¹¹⁰⁾

이는 신자들에 대한 선교사나 한국인 성직자들의 제재의 빈도나 강도가 본당보다 약한 공소에서 생활하는 신자들이 만세운동에 많이 참여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한 천주교 선교사나 성직자가 상주하는 지역에서는 신자들의 만세운동 참여가 어려웠고, 만세운동에 성직자들의 제재가 강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교영(金敎永)이 천주교회 내부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만세시위를 주도할 수 있었던 것은 구산(龜山)이 성직자들의 제재를 덜 받는 공소(公所)였기 때문이기도 하며, 이 지역이 전통적인 농촌사회로서

p.265-266

109) 『서울대교구 교구총람』, p.781-782

110) 『인천교구사』 p.628-629

여전히 뿌리 깊은 전통과 애항심으로 가득했던 곳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다. 만세운동 준비와 진행과정

하남지역 만세운동의 세 번째 특징은 만세 시위를 준비하는 과정에 대한 것이다. 하남지역의 시위운동은 동부면과 서부면, 가까운 구천면(현 서울 강동구), 중부면 산성리 등 여러 곳에서 발발하였는데 거의 같은 시간대에 동시다발적으로 시위가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양상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할 수는 없으나 시위 주동 인물이 주로 마을의 구장이라는 점에서 구장들의 역할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시위운동의 성격상 일제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시위 주동인물들이 서로의 연결고리 등은 쉽사리 말하지 않았던 점에서 더욱 밝혀지기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한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수원 우정면과 장안면의 경우와 같은 구장 회의를 주목해 볼 수 있겠다. 3월 초부터 만세시위를 준비하던 백낙렬, 김대식 등 수원 장안면과 우정면의 각 마을 구장들은 다른 지역에서 나타나는 종교조직이나 청년, 학생조직을 통해 만세운동이 전개되었던 것과는 사뭇 다른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3월 27일 개최된 구장회의는 수촌리의 백낙렬, 어은리의 이시우, 독정리의 최건환, 장안리의 김준식, 덕다리의 김대식, 사랑리의 우시현, 사곡리의 김찬규, 금의리의 이호덕, 석포리의 차병한, 노진리 김

제윤의 아들 등 10여 명이 참석하였고¹¹¹⁾ 만세시위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¹¹²⁾ 이날 회의는 “보를 쌓는 일”로 개최되었지만 당시 김현목 면장은 신문조서에서 “차병한이 일동에 대해 수일 전에 발안리에서 소요가 있었을 때 일본인 아이가 게다(일본 나막신)으로 구타하는 것을 보고 분개를 견딜 수 없었으니 만세를 부르자고 말했다”고 밝히고 있듯이¹¹³⁾ 시위준비를 위한 회의였거나 차병한의 발언 이후 결과적으로 만세시위를 협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만세당일 주민들의 동원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즉 구장들의 이러한 움직임은 주민을 만세시위에 동원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였다. 당시 만세시위에 참여하였다가 경찰에서 신문조서를 받은 주민들은 한결 같이 구장들이 만세시위 당일 날 강제적으로 주민을 동원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¹¹⁴⁾

같은 날 여러 곳에서 동시에 시위가 전개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모종의 협의가 있었을 것은 자명한 일이라 여겨지며 마을 단위로 횃불을 밝혀 봉화를 올림으로써 신호를 삼아 거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횃불 시위는 신호의 목적과 주민들을 단합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동시다발적으로 시위를 일으킴으로써 일제의 탄압을 분산시키는 효과 등을 거둘 수 있었을 것이다.

111)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20집(3.1운동5), 국사편찬위원회, 1994, p.80

112) 같은 책 19집,(3.1운동4), 국사편찬위원회, 1994, p.348

113) 같은 책 19집, pp.235-236

114) 성주현, <수원지역의 3.1운동과 천도교인의 역할>, 『수원지역 민족운동의 역사적 위상』, 수원문화원, 2003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인쇄매체를 통한 정보의 교환과 전달이라 하겠다. 3월 21일 중대면 송파리에 거주하는 장덕균, 김현준은 3월 21일자 <조선독립신문>과 독립선언문을 각각 50부씩 등사하여 송파리 주민들에게 배부하며 독립의식을 고취하였다. 그들은 서울에서 발행되는 <독립신문>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독립운동 관계 인쇄물을 각 지방에 반포하는 책임을 맡고 있었다.¹¹⁵⁾

그리고 탄리(炭里)의 김교석(金敎奭)은 활자를 가지고 있어서 것으로 인쇄물을 만들기도 하였고 동양활자제조소로부터 활자 약 13,000개를 대금 8.90원으로 구입하여 고양군 독도면(현재 서울 성동구 독성)의 안흥기 주선으로 동인의 동생 안영기의 집 안방 한 칸을 빌려서 인쇄물을 만들었는데 1)사령서, 통지서 2)선고장 3)임명서 4)대한독립단 내지분치기관 임시통칙 5)군자금영수증 등이 인쇄되었다.¹¹⁶⁾

이렇게 비밀리에 인쇄된 인쇄물들은 민을 만한 사람들을 통하여 비밀리에 전해졌다. 김기한의 제6회 신문조서에 나타난 것처럼 이주호(李周鎬)를 광주군 궁촌리(현재 하남시 춘궁동 궁말)의 이범석 집에 인쇄물을 가지고 가게 한 일이 있느냐는 질문에 모른다고 답한 것은 일부러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이처럼 만세 시위는 각 마을의 구장이 주축이 된 연락망과 비밀리에 가동된 인쇄기술자들의 참여로 치밀하게 준비되었으며 횡불을 울려 신호를 삼아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되었던 것이다.

115) 광주군지, p.356-357

116) 김기한 신문조서(제2회)

5. 맺음 말

하남지역에서 전개되었던 3.1운동은 크게 몇 가지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는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보편적인 특징 외에도 하남지역만이 지니는 특이한 상황도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첫 번째로 하남지역의 만세운동에 참여한 종교인은 천주교인들이었다. 경기도의 만세운동은 군청소재지 이상의 도시에서는 학생, 기독교인이 중심이 되고 일부는 천도교인이 주도했다. 그러나 산간지역의 면사무소 소재지에서는 농민이 중심이었다.¹¹⁷⁾ 그러나 하남지역의 독립운동은 천주교인과 농민이 중심이 되어 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당시 천주교 지도부가 만세시위 참여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던 것과 대조적으로 만세운동을 천주교인들이 주동한 사례는 전국적으로도 흔하지 않은 하남지역 만세운동의 특징이라고 규정할 수 있겠다.

망월리의 김교영(金敎永)은 천주교 구산성지 순교자인 김우집의 후손이며 일가가 모두 천주교를 믿는 집안이다. 김교영(金敎永)은 천주교 신자를 규합하여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는데 이는 당시 우리 나라 천주교가 만세운동에 매우 피동적이었던 것에 비하면 특기할 만한 사실이라 하겠다. 천주교의 피동적 자세에도 불구하고 시위에 참여한

117) 『한민족독립운동사 3』(3.1운동), 국사편찬위원회, p.343

사회적 배경이나 지역사회의 특수성에 대해서는 좀더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다음은 만세시위를 주도한 사회계층은 오랜 세월 집성촌을 이루며 살아온 양반가문의 후예들이었다. 당시 하남 지역의 주민 대부분은 농민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향촌사회를 이끌어 가는 지도층인 구장(이장)은 오랜 세거지(世居地)를 배경으로 하는 집성촌의 양반 후손들이었고 이들은 마을의 지도자로서 활동하였다. 구장들은 조선 각지의 시위운동 소식을 전해 듣고 자기 동리에서도 주민들을 규합하여 면사무소 앞에서 시위운동을 하기도 하고, 동네 산에 올라가 봉화를 올려 마을 단위의 운동을 촉발하였다. 이장은 전통적으로 면리제(面里制)의 전통하에서 마을 단위 공동행동의 대표자로서 말단 실무를 관장하거나, 마을의 여론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였다. 동부면의 이대헌(李大憲)은 교산리, 김교영(金敎永)은 망월리 구장이었다.

끝으로 하남지역에서의 만세시위는 여타 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봉화를 올린다든지 상일리의 헌병주재소에 진출하는 등 무력화의 경향을 띠게 되며 여러 곳이 연합하여 시위를 벌이게 된다. 이러한 헛불 시위는 신호의 목적과 주민들을 단합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동시다발적으로 시위를 일으킴으로써 일제의 탄압을 분산시키는 효과 등을 거둘 수 있었을 것이다.

상일리 헌병주재소에 진출했을 때의 시위군중은 1천여명이 넘었는데 이는 동부면과 서부면, 구천면 지역의 시위군중이 폭압정치의 상

징이었던 헌병주재소로 모인 결과였다. 또한 면사무소에 집결한 시위 군중이 군청소재지인 남한산성(南漢山城)으로 올라가지 않고 상일리의 헌병주재소를 향한 것은 일제에 항거한 뚜렷한 증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주민이 농민이었던 인구 약 9천여 명 미만의 시골 마을에서 전개된 만세운동은 마을 구장과 종교인의 지휘와 이에 호응한 농민들이 보여준 민족자존의 투쟁이었으며, 서울에서 비롯된 3.1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어 한국 사회에 장차 민주주의의 발전을 구현시켜주는 계기를 안겨준 민중운동에 일조하였다.

Ⅲ. 사회단체 등의 항일활동

1. 신간회의 설립과 활동

1927년 2월 '민족유일당 민족협동진선'이라는 표어 아래 민족주의를 표방하고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이 제휴하여 창립한 민족운동단체로서 안재홍·이상재·백관수·신채호·신석우·유억겸·권동진 등 34명이 발기했다. 신간회는 내부적으로 좌·우익의 갈등은 있었지만 민족적·정치적·경제적 예측의 탈피, 언론·집회·결사·출판의 자유 쟁취, 청소년·여성의 평형운동 지원, 파벌주의의 배격, 동양척식회사 반대, 근검절약운동 전개 등을 활동 목표로 삼아 전국에 지회와 분회를 조직하여 세력을 확장해 나갔다.

1929년 11월 광주학생운동이 일어나자 신간회는 진상조사단을 파견하고 일제에 대해 학생운동의 탄압을 엄중 항의하였다. 또한 이를 계기로 독립운동을 지향한 민중대회를 열 것을 계획했다가 조병옥·이관용·이원혁 등 주요 인사 44명이 체포되었다. 체포된 인사 가운데 조병옥 등 6명은 실형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신간회의 뿌리가 흔들리게 되었다.

신간회는 좌우익 세력이 합작하여 만든 단체였지만 민족주의 진영에게 주도권을 빼앗긴 사회주의 진영은 불만이 높았다. 이들은 신간회의 주요 간부들이 투옥된 사이를 이용하여 해산운동을 벌였으며,

1931년 5월 조선중앙기독교청년회에서 대의원 77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산을 결의함으로써 발족한지 4년 만에 해산되었다.

신간회는 창립되어 해체될 때까지 4년여 동안 우리 민족의 반일 역량을 집결하여 일제에 커다란 위협을 주었다. 신간회는 “우리는 정치적·경제적 각성을 촉진함”을 강령으로 내걸고 좌우가 연합하여 실업·교육·노동·농민·언론·종교·여자·청년·형평·학생·사상 등의 부문별로 활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신간회는 열렬한 민족적 지지 속에서 전국 각지에 지회를 만들었다. 창립 10개월만인 1927년 12월 27일에 100번째 지회가 조직되었고, 1928년 말에는 모두 143개의 지회와 2만 명의 회원을 갖춘 전국 조직으로 성장하였다. 이어서 1930년에는 전국에 140여개의 지회와 3만9000여명의 회원을 확보하였으며, 일본에 까지 조직된 각 지회를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했다.

경기도의 경우도 물론 예외는 아니었다. 그런데 주목되는 것은 광주에 “광주지회”와 “광흥지회” 2개가 있었던 사실이다. 당시 지회 설립은 1개 부 혹은 군에 1개 지회 설립이 일반적이었다. 따라서 광주 지역에 상대적으로 신간회 활동이 활발했음을 알 수 있다. 신간회 창립당시 광주지역의 사회운동을 주도했던 단체는 광주중앙청년회, 소파광주청년회, 광명청년회, 진흥청년회, 노동공제회, 조선일보, 중외일보, 조선농민회지국 등이었다. 이렇게 경기도내 각지회에서 활동한 사람은 대부분이 지식인들로 신문기자, 교육계인사, 종교인 그리고 지역의 활동가들이었다.

광주지회는 한순회(韓順會)·한백봉·한백호·이대헌(李大憲)·유인목·박기환·한용희 등이 1927년 2월¹¹⁸⁾에 조직하여 1930년까지

활동했는데, 회장은 한순회(韓順會), 부회장은 석혜환이었다. 광주지회를 주도한 한순회(韓順會)는 돌마면 율리(현재 성남 율동공원) 사람으로 호가 재암이며, 족속인 한영창에게 한문을 수학하였고, 한학 7서에 통달하였다. 1910년과 1919년 3.1운동 대 투쟁에 참가하여 국민계몽과 운동에 투신하기도 하였다. 특히 그는 천도교에 귀의하여 천도교 광주교구장으로 이천·여주·원주·음성지역까지 연락 책임을 맡았다. 아울러 천도교 간부로서 포교를 위한 전국순회 강연회를 통해 독립정신을 고취했고 자금을 모아 상해에 보내기도 하였다. 부회장 석혜환은 원산총파업에 격문을 발송한 혐의로 10일간의 구류처분을 받는 등 지역적 한계를 넘어 반일운동에 종사하였다.¹¹⁹⁾

신간회 설립 때 발기인 중 한명인 유억겸은 하남 출신이다. 그는 1895년 11월 한말의 개화사상가였던 구당 유길준 선생의 차남으로 태어나 1947년 11월 별세하였다. 그는 교육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한민국장(정부훈장)이 추서되었다. 1920년 초부터 1946년에 이르기까지 연희전문학교(현 연세대학교)의 강사, 교수, 학감, 부교장, 그리고 해방 후에는 연희대학교의 초대 교장을 역임하였고 1946년에는 과도정부의 문교부장(현 교육부장관)에 취임하였다. 그는 일제하에서 1934년 미국에서 개최된 범태평양 회의에 김활란, 윤광선, 김유평 등과 함께 참석하여 약소민족의 자결권을 주장하였으며, 1937년에는

118) 한상도의 논문에는 <조선일보>1927년 7월 10일자 기사를 통하여 광주지역의 신간회 조직이 1927년 6월말에서 7월초 사이에 태동하였다고 한다.

119) 손승철·김세민·이상배 공저, 《역사속으로의 하남여행》, 하남역사박물관, 2005

이승만의 국내조직인 <홍업구락부>사건으로 구자옥, 변영로, 안재홍, 윤치영, 장택상, 최두선, 이춘호 씨 등과 함께 일본경찰에 체포되기도 하였다. 선생의 사후에 친구들이 동부초등학교에 [유억겸기념관]을 건립하였는데 이 기념관은 학생들의 강당으로 사용되다가 학생 수가 늘고 새 건물이 들어서면서 헐렸고 지금은 기념비석만 남아 있다.¹²⁰⁾

신간회 지회는 웅변대회와 연설회 개최 등의 계몽운동, 소비조합 설치와 농민들의 소작료와 소작권 보호문제 개입 등 생존권 수호운동 그리고 반봉건적인 성격의 활동을 하였다.

그런가하면 일제강점기 농민들은 농민조합, 농우회, 소작인 조합들의 농민단체를 조직하여 활발한 소작쟁의를 전개하였다. 1922년에는 소작쟁의 24건에 참가인원 2,539명이었고, 1925년에는 소작쟁의 204건에 참가인원 4,002명, 1930년에는 소작쟁의 726건에 참가인원 13,012명으로 급증하였다.¹²¹⁾

2. 광주수리조합의 활동

광주지역의 농민운동의 여러 사례 중 특히 광주수리조합의 사례는 주목할 만하다. 광주수리조합의 경우, 광주군 동부면, 구천면 일대 한강변의 땅을 대상으로 1927년 3월 31일 조선총독부로부터 관개시설

120) 하남문화원, 《위례문화》 제4호, 1999

121) 손승철·김세민·이상배 공저, 《역사속으로의 하남여행》, 하남역사박물관, 2005

설치인가를 받았지만 공사를 착수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 지역은 원래 방규환¹²²⁾이 관개시설 설치인가를 도모하다가 1925년 홍수로 인해 6백여 호의 이재민이 생기자 본격적으로 관개시설 건립이 문제시되었던 곳이다.

1927년 7월 26일 동부면사무소에서는 광주수리조합 제1회 평의원 회의가 소집되었다. 그런데 이 회의는 광주군민의 근대 시민의식 나아가 일제 식민지배기구에 대한 저항과 자주의식을 대변하고 있었다. 조선 총독부는 질 높은 공사를 위해서는 경험이 있고 감시가 용이한 대행회사가 전문적으로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전제하고, 아울러 예산상 상정된 공사대금의 원활한 지불을 위해서도 이런 회사가 사업을 시행하도록 주장하면서 조선토지개발회사에 위임할 방침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평의원을 중심으로 한 참석 지주 및 농민들은 “우리의 사업인 만큼 우리가 직영함이 본 사업의 목적”이라고 지적하며, 광주군의 일본인 내무부장과 농무과장의 계획을 제지하였다. “공기는 점차 긴장하여 평의원 대 당국자 간에 반대와 권고로 안색을 붉히”는 장면이 연출되었다. 급기야 방청 중이던 지주 50여명이 연서로 “본 조합 설립의 정신은 근년 수이재민 구제책에 전혀 정신이 있는”것이므로 광주군의 방침을 거부한다는 진정서를 제출하는 국면으로 진전되었다. 평의원들도 “한층 견고한 결심으로 직영을 주장함에,” “내무국장은 권고를 하다가 못하여 드디어 불안한 안색으로

122) 방규환 기념비는 현재 창우동 516번지에 있으며 1939년에 광주수리조합 유지일등이 건립하였다. 이 비석에 당시의 사건에 대하여 간략한 내용이 새겨져 있다.

《하남금석문대관》, 하남문화원, 2004

귀청(歸廳)하니, 이에 평의원 제씨와 방청객으로부터는 더욱 불안의 공기가 농후하여 자기 사업을 자기가 한다는데 타인에게 대항시키려는 무리한 권고는 절대 허용치 못하겠다는 반대성(反對聲)으로, 드디어 대다수 가결로써 직영하기로 결정”하고, 폐회하였다.¹²³⁾

그런데 “우리의 사업인 만큼 우리가 직영”하겠다는 군민의 자기의 지로 대변되듯이 일제 식민지배 당국과 관주군민간의 이해 대립은 2년이 지난 1929년 말까지도 해결되지 않았다. 유인목이라는 조선일보 송파지국 기자의 특별취재가 될 만큼 이 사건은 사회의 이목과 관심을 끌었다. 2년여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농민들은 단합하여 식민지배기관에 맞섰던 것이다.¹²⁴⁾

당시 조선에 있어 관개시설의 건설은 조선토지개량주식회사나 동양척식주식회사¹²⁵⁾ 토지개량부에 위탁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는 없었다. 그러나 사업의 자금을 대부분 식산은행 등에서 빌려야 하기 때문에 조선총독부의 지시를 받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 이 문제는 광주수리조합에만 해당된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모습은 일제 식민통치의 단면으로 경제적인 이익을 독점적으로 확대 재생산 하고자 하는 의도가 철저히 스며있었던 것이다. 1930년대 초에 이르러서는 광주군 동부면 하산곡리에서 50여명의 농민이 '금단농우회'를 창립하여

123) <조선일보> 1927년 8월 2일

124) 한상도, <일제하 성남지역의 항일민족운동>, 《일제하 성남지역의 민족해방운동양상》, 성남문화원, 2003

125) 동양척식주식회사는 1908년 일본이 한국에 설치한 독점적 특수회사로서 착취의 전위기관이었다. 그후 1917년에는 마침내 조선에 한정되던 칩략 및 착취의 대상을 몽골, 러시아령 아시아, 중국, 필리핀, 및 말레이 반도까지로 확대하였다.

농민운동을 벌이기도 하였다.

일제의 자료는 신간회 지회의 활동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지방에 있어 한인 항일주의자 중에서 상당히 유명한 인물은 거의 이미 (신간회에) 가입하였다. 또 집회나 회원권유, 시의 언동을 종합할 때 운동의 최종목표는 한국의 독립에 있음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뿐 아니라 지방행정, 시사문제 등에 대해서도 극력 개입하여 반항 움직임을 선동하며, (일제당국과의) 분규를 확대시키기에 힘쓰고, 기회를 포착하여 이를 민족적 반항의 원인으로 삼고 있어, 지방의 민심을 악화시키고 있음이 한심하기 짝이 없다.¹²⁶⁾

3. 광주공산당협의회의 활동

1931년 상반기 신간회 중앙 및 각 지회가 해소를 선언하기 시작하면서 광주지회의 활동도 쇠퇴 국면에 접어들었고, 신간회 광주지회를 구심점으로 축적된 운동역량은 '조선공산당재건운동'이라는 사회·경제적 국면을 배경으로 하여, 남한노동공조회와 광주공산당협의회의 활동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1930년대 중반 광주지역 최고의 운동관련 단체는 '광주공산당협의

126) 경상북도경찰부, <高等警察要史>, 1934, p.50

회'라고 할 수 있다. 1930년 석혜환, 정영배 등은 광주군 중부면 산성리에 근거를 두고 '남한산 노동공조회'를 조직하였다. 이들은 노동자·농민·상인 등을 망라하여 공산주의 사상을 선전하기 위해 야학을 설립하고, 강연회 등을 개최하여 의식화 작업을 전개하다가 일제 경찰의 탄압을 받게 되자 지하활동으로 전환 하였다. 이후 1933년에 '광주공동조합'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조직의 강화를 도모하다가 1934년 12월 '광주공산당협의회'로 조직을 개편하였다. 이는 조직 활동 범위가 협소한 점을 극복하기 위한 시도의 일환으로 비롯된 것으로 남한산성(南漢山城)에서 광주지역으로 범위를 확대한 것은 계통적인 노동조직 체계로 규합하려는 움직임에 반영한 것이었다. 광주공산당협의회는 대중교양을 위해 서적을 구입하고 교양사업을 전개하였다. 동시에 매월 1회씩 빠라를 작성하여 배포했는데, 조직원들은 서울인 천영등포 등지의 공장에 잠입하여 활동하기도 하였다. 이 조직의 주요 구성원은 석혜환¹²⁷⁾, 구본홍, 구자홍, 구창서, 이경재 등이었는데 1936년 1월에 이들이 '비밀결사조직' 혐의로 체포됨으로써 와해되었다.¹²⁸⁾

127) 석혜환은 광주에서 지주의 아들로 태어났다. 1920년대에 남한산노동공조회, 신간회 광주지회에 참가했다. 1935년 1월 광주 공산당 협의회 결성에 참여하고, 비서부 책임자가 되었다. 1936년 4월 경성지법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대전형무소에서 복역했다. 해방 후 남조선 노동당에 입당했고, 1949년 보도연맹에 가입했다. 1950년 7월 조선인민군 점령아래 경기도 광주군 인민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128) 한상도, <일제하 성남지역의 항일민족운동>, 《일제하 성남지역의 민족해방운동양상》, 성남문화원, 2003

4. 항일민족운동에 대한 재평가

한국민족운동은 위정척사사상과 개화사상, 동학사상 등의 세 흐름을 타고 이어져 왔으며 일제가 강제로 우리의 강토를 점령하는 시기에 결연히 맞서 투쟁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근대 항일민족운동은 그 양상에 따라 무장투쟁, 의열투쟁, 문화투쟁, 여성운동, 소년운동, 언론운동, 민족교육운동, 노동자·농민운동, 학생운동 등과 이념상으로는 민족주의, 사회주의, 무정부주의운동 등의 노선으로 분류된다. 여기서 우리가 재조명할 것은 무장투쟁이 아니라 하여 문화운동, 국학운동 등을 민족운동 선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당연히 민족운동의 범주에 넣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의열투쟁, 3.1운동 등에 대한 재평가 작업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종교계의 항일 투쟁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일본제국주의는 한국 강점의 전제적 조치로 민족정신의 파괴공작을 획책하였다. 이는 정치 경제 군사적 침략과 함께 종교적 침략을 병행하였음을 의미한다.¹²⁹⁾ 또한 1945년 광복 이전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활동은 광복 이후의 활동과 구분하여 연구되고 그 성격을 규명하여 항일민족운동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할 것이다.

129) 유준기, <한국민족운동의 올바른 이해와 현대적 의의>성남문화원, 2003

참 고 문 헌

1. 사료집

- 김세민 편저, 『하남시사료집』 3, 하남문화원, 1999
- 『고종실록』
- 광주문화원, 『광주향토사료집』 제5집, 광주시/광주문화원, 2001
-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제5권, 국가보훈처
-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별집1, 국사편찬위원회, 1991
-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별집3, 국사편찬위원회, 1992
-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별집6, 국사편찬위원회, 1993
-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10집, 국사편찬위원회, 1989
-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19집, 국사편찬위원회, 1994
-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20집, 국사편찬위원회, 1994
- 『독립신문』, 1899년 2월 24일
- 김기한(金起漢)신문조서(제2회, 제6회)
- 『3.1운동편』 (1),(2), 국학자료원, 1977
- 이병현, 『3.1운동비사』, 시사시보사출판국, 1959

2. 논문

- 김순길, 「광무연간 정구갑 살육 검안의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 김창수, 「3.1독립운동의 연구동향과 과제」, 『수원지역 민족운동의 역사적 위상』, 3.1운동 84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움 자료, 수원문화원, 2003
- 김호일, 「안성 4.1독립항쟁의 특성과 의의」, 『3.1운동과 안성의 4월 독립항쟁』, 안성문화원, 2002.
- 김호일, 「3.1운동에 있어서 지방의 역할」, 『사학지』 31, 1998
- 박경하, 「경기도 향토사 연구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의」, 경기문화재단세미나 질의 요지문, 1997
- 박민영, 「하남시의 근현대 역사와 인물」, 『하남의 역사와 문화』, 국학자료원, 2001
- 서승갑, 「성남지역 3.1운동의 특성」, 『일제하 성남지역의 민족해방운동양상』, 성남문화원, 2003
- 성주현, 「수원지역의 3.1운동과 천도교인의 역할」, 『수원지역 민족운동의 역사적 위상』, 수원문화원, 2003
- 윤선자, 「천주교회의 민족운동」, 『일제하 경기도지역 종교계의 민족문화운동』, 경기문화재단, 2001
- 윤정중, 「안성천주교회사」(2), 『가톨릭청년』, 1965
- 정진각, 「일제강점시기 경기도의 민족운동」, 『경기도의 어제와 오늘』, 경기도, 2001, 255쪽

3. 단행본

- 광주군지편찬위원회, 『광주군지』, 1990
- 하남시사편찬위원회, 『하남시사』 (역사도시하남), 2001
- 하남시/하남역사문화연구원, 『하남의 역사와 문화』, 국학자료원, 2001
- 이철재, 『하남의 역사』, 피플뱅크, 1995
- 하남시, 『하남의 맥』, 1992
- 하남시, 『하남의 맥』 증보판, 1997
- 윤종준 편, 『하남지명지』, 하남문화원, 1999
- 김인덕, 「근대하남사람들의 삶과 운동」, 『하남의 문화유산』, 하남역사박물관, 2004
- 성남문화원, 『성남의 역사와 문화유산』, 2001, p.125
- 경기도사편찬위원회, 『경기도 항일독립운동사』, 1995
- 박성수, 『한국독립운동사론』,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6
- 『하남문화』 제2호, 하남문화원, 1997
- 『위례문화』 제5호, 하남문화원, 2001
- 『남한산성(南漢山城) 품에 안긴 산성마을』, 한국향토사연구전국협의회, 1999
- 『위례문화』 제6호, 하남문화원, 2002
- 『위례문화』 제7호, 하남문화원, 2003
- F.A. 맥켄지 저/이광린 역, 『한국의 독립운동』, 일조각, 1995
- 한국기독교 장로회 신대리교회, 『한민족 수난속의 우리교회』,

1995,

- 『광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광주군, 2000
- 김승학, 『한국독립사』, 독립문화사, 1967
- 천주교구산성당, 『구산성지』, 성요셉출판사, 1989
- 구자관, 『송곡집』, 송곡집발간위원회, 2003
- 능성구씨 직장공파 세보
- 함평이씨 함성군파 세보
- 경주이씨 가계도
- 제임스 헌틀리 그레이스 지음, 강돈구 역, 『한국종교사』, 민족사, 1995
- 『한민족독립운동사』 3 (3.1운동), 국사편찬위원회, 1988
- 이인수, 신배섭, 임혜봉 편저, 『이천독립운동사』 이천시/이천문화원, 1996
- 경기도사편찬위원회, 『경기도사』 제1권, 1985
- 손승철·김세민·이상배 공저, 《역사속으로의 하남여행》, 하남역사박물관, 2005
- <방규환기념비> 《하남금석문대관》, 하남문화원, 2004
- 이철재, 《돋보기로 본 하남》, 피플뱅크, 1994
- 박민영, <하남시의 근현대 역사와 인물> 《하남의 역사와 문화》 -21세기 하남시의재발견-, 국학자료원, 2001

여 백

제 2부

경기도 하남지역 독립운동사 자료

여 백

◆ 하남지역에서의 의병 관련 기록

1. 동부면 의병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12(의병편 V)

六. 隆熙 二年(一九〇八·明治 四一), (一) 九月, 京畿道

○ 기사제목 : 一. 本月 十七日 廣州郡 東部面 暴徒偵察

○ 발 송 자 : 水原警察署長 警視 飯田章

○ 수 신 자 : 內部警務局長 松井茂

○ 발 송 일 : 隆熙 二年(明治 四一) 九月

○ 내 용 : 水原警察署長

警視 飯田章 內部警務局長 松井茂 앞

一. 本月 十七日 廣州郡 東部面 暴徒偵察로 向한 變裝 韓人 巡查 三名은 十八日 午後 二時 同面 屯池에서 暴徒 一名을 逮捕 取調한 結果 同人은 首魁 柳東直의 命에 依하여 日本兵의 所在 探偵을 兼하여 檄文 傳達을 爲하여 來하였음을 自白하였음에 依하여 同洞 所任으로 부터 檄文을 押收 歸所하였다.

同人의 陳述에 依하면 首魁 金炳吉은 目下 約 六十名의 部下를 갖고 到處를 徘徊하고 있었다. 首魁 柳東直은 楊州郡 德沼 附近에 있을 것 이라고 한다. 그리고 晝間에는 暴徒의 集團은 山中에 潛伏하고 交互 二, 三名의 偵察을 出하고 夜間에 行動을 하고 있다고 한다.

또 其 自白에 依하여 潛伏한 暴徒의 逮捕를 爲하여 日韓巡查 四名 守備兵(少尉 以下) 六名이 同人을 案内로 하여 廣州 漢沙村에서 暴徒 一名을 逮捕 歸途에 兩名은 監視의 隙을 窺하여 逃走를 企圖 抵抗하였으므로 兩名을 射殺하였다.

二. 本月 十九日 午後 二時 首魁 不明의 暴徒 十餘名이 廣州郡 門外洞 上山谷에 來襲 同所 執綱을 結縛 亂打 重傷을 입히고 草月面 方向으로 立去하였다. 또 同日 午後 六時 暴徒 十六, 七名이 草月面 司馬谷에 襲來 面長을 毆打 創傷을 입히고 拉去하였다고 하는 急報에 接하고 警察官 守備兵 憲兵은 即時 急行하였다.

以上 廣州郡駐在 日人巡查 報告
右 報告함.

2. 서부면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12(의병편 V)

六. 隆熙 二年(一九〇八·明治 四一), (二) 十月, 京畿道

- 기사제목 : 廣州郡 西部面 甘甘洞¹³⁰⁾ 洞民의 密報
- 발 송 자 : 水原警察署長 警視 飯田章
- 수 신 자 : 警務局長 松井茂
- 발 송 일 : 隆熙 二年(明治 四一) 十月

130) 甘甘洞 : 甘2洞으로 추정됨

○ 내 용 : 水原警察署長

警視 飯田章 警務局長 松井茂 앞

廣州郡 西部面 甘甘洞 洞民의 密報에 依하여 同郡 駐在 巡查 二名은 本月 四日 甘甘洞에서 楊州郡 暴徒首魁 金炳吉의 部下라 稱하는 暴徒 一名을 逮捕하여 歸所 途中 急히 抵抗逃走를 企圖하므로써 射殺하였다.

廣州郡 駐在 日人巡查 報告

右 報告함.

3. 서부면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12(의병편 V)

六. 隆熙 二年(一九〇八·明治 四一), (二) 十月, 京畿道

○ 기사제목 : 暴徒에 關한 件 水原警察署長 報告要領

○ 발 송 자 : 京畿警察部長 警視 飯田章

○ 수 신 자 : 警務局長 松井茂

○ 발 송 일 : 隆熙 二年(明治 四一) 十月

○ 내 용 : 京畿警察部長

警視 飯田章 警務局長 松井茂 앞

暴徒에 關한 件 水原警察署長 報告要領

本月 十六日 廣州郡 西部面 甘甘洞에 暴徒 二名이 來하여 金品強請의 報告에 接하고 警察官 三 憲兵 六이 討伐次 向하였으나 踪跡을

失하고 歸所하였다.

以上 廣州駐在所 報告
右 報告함.

4. 동부면과 서부면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12(의병편 V)

六. 隆熙 二年(一九〇八·明治 四一), (三) 十一月, 京畿道

- 기사제목 : 暴徒에 關한 件 水原警察署長 報告要領
- 발 송 자 : 京畿警察部長 警視 飯田章
- 수 신 자 : 警務局長 松井茂
- 발 송 일 : 隆熙 二年(明治 四一) 十一月
- 내 용 : 京畿警察部長 警視 飯田章 警務局長 松井茂 앞
暴徒에 關한 件 水原警察署長 報告要領

本月 一日 廣州郡駐在 韓人巡查 四名은 暴徒偵察로 同郡 西部面 東部面 各洞에 出張 中 別紙와 如한 軍用金募集의 回章文을 洞長에 配布한 것을 發見 數葉을 押收하였다. 右 回章文의 出處에 對하여 洞民 等の 말하는 바에 依하면 楊州郡 金炳吉의 行爲일 것이라고 한 다.

右 報告함.

5. 미사리, 구산, 둔지, 황산, 망월포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12(의병편 V)

六. 隆熙 二年(一九〇八·明治 四一), (三) 十一月, 京畿道

○ 기사제목 : 情報

○ 발 송 일 : 隆熙 二年(明治 四一) 十一月

○ 내 용 : 情報

一. 暴徒 首魁 故 李康年의 部下 約 三百名은 京畿道 廣州郡 內 龜山 屯芝 美土村 附近(約 一里 四方) 森林에 潛伏하여 많이 黃山 望月浦에 出沒하여 民財를 掠奪하여 人民은 其 被害에 不堪避難하는 者 많다고 한다. 此徒는 時時로 東大門 外 附近에도 襲來하는 일이 있어서 徒中 金俊植은 約 八十名을 引率하고 있으나 全部의 首魁가 없으므로 適當한 人物을 搜查하고 있다고 한다.

二. 金俊植의 徒는 北韓山脈을 經由 西大門 外의 新監獄署를 襲擊 破壞하겠다고 하는 所聞이 있다고 한다.

6. 미사촌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12(의병편 V)

六. 隆熙 二年(一九〇八·明治 四一), (三) 十一月, 京畿道

○ 기사제목 : 本月 一日 午前 四時頃 韓裝을 한 暴徒 五名

- 발 송 자 : 水原警察署長 警視 飯田章
- 수 신 자 : 內部警務局長 松井茂
- 발 송 일 : 隆熙 二年(明治 四一) 十一月
- 내 용 : 水原警察署長

警視 飯田章 內部警務局長 松井茂 앞

本月 一日 午前 四時頃 韓裝을 한 暴徒 五名(洋銃 三 携帶)이 廣州 郡 東部面 溪沙村¹³¹⁾에 侵入 洞長에게 朝食을 強要하였으나 應하지 않자 毆打를 加하고 楊州郡 方面으로 退去 廣州郡 駐在 日人巡查 報告

右 報告함.

7. 산곡동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12(의병편 V)

六. 隆熙 二年(一九〇八·明治 四一), (三) 十一月, 京畿道

- 기사제목 : 本月 十一日 夜 暴徒 七名
- 발 송 자 : 水原警察署長 警視 飯田章
- 수 신 자 : 內部警務局長 松井茂
- 발 송 일 : 隆熙 二年(明治 四一) 十一月
- 내 용 : 水原警察署長

131) 溪沙村 : 漢沙村의 잘못된 표기 ; 편집자 주

警視 飯田章 内部警務局長 松井茂 앞

本月 十一日 夜 暴徒 七名(其中 五名 洋銃 携帶)이 廣州郡 東部面 山谷洞에 侵入 某家에 食事を 強要하였으나 應치 않았으므로 家人을 毆打하고 退去하였다. 警察官 憲兵이 追躡하였으나 踪跡을 失하고 歸所하였다.

廣州郡駐在 日人巡查 報告

右 報告함.

8. 덕풍동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12(의병편 V)

六. 隆熙 二年(一九〇八·明治 四一), (四) 十二月, 京畿道

○ 기사제목 : 陰曆 十一月 四日 午後 十二時 暴徒 七名

○ 발 송 자 : 水原警察署長 警視 飯田章

○ 수 신 자 : 内部警務局長 松井茂

○ 발 송 일 : 隆熙 二年(明治 四一) 十二月

○ 내 용 : 水原警察署長 警視 飯田章 内部警務局長 松井茂 앞

陰曆 十一月 四日 午後 十二時 暴徒 七名(洋銃 及 劍 携帶)이 廣州 郡 東部面 德豐洞에 侵入 洞民 一名을 結縛 毆打한 後 金 二圓 九十五錢 及 六十圓의 어음을 強奪하고 또 他的 一戶에 七名 中 三名이 突入 金 六圓을 強奪 逃走하였다.

警察官은 直時 搜索하였으나 踪跡을 失하였다.

廣州郡駐在 日人巡查 報告

右 報告함.

9. 초이동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12(의병편 V)

六. 隆熙 二年(一九〇八·明治 四一), (四) 十二月, 京畿道

○ 기사제목 : 京城 冀洞 居 元兵丁(上等兵) 金聖太 二十八歲 右는
十一月 二十六日 拳銃을 携帶

○ 발 송 자 : 水原警察署長 警視 飯田章

○ 수 신 자 : 内部警務局長 松井茂

○ 발 송 일 : 隆熙 二年(明治 四一) 十二月

○ 내 용 : 水原警察署長 警視 飯田章 内部警務局長 松井茂 앞

京城 冀洞 居 元兵丁(上等兵) 金聖太 二十八歲 右(김성태 ; 편집자 주)는 十一月 二十六日 拳銃을 携帶 義兵 中軍의 使者라 稱하고 廣州 郡 西部面 草二洞에 侵入하여 金錢을 請求함을 洞民이 協力 逮捕하였다.

同人的 自白에 依하면 其 首魁 李根求는 元正尉로 部下 四百名을 갖고 目下 楊州郡 望月里에 潛伏하고 있다고 한다. 實否 明確하지 않으나 陳述한대로임.

廣州郡駐在 日人巡查 報告

右 報告함.

10. 고덕리¹³²⁾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12(의병편 V)

六. 隆熙 二年(一九〇八·明治 四一) (四) 十二月, 京畿道

○ 기사제목 : 本月 十九日 廣州郡 九川面

○ 발 송 자 : 水原警察署長 警視 飯田章

○ 수 신 자 : 警務局長 松井茂

○ 발 송 일 : 隆熙 二年(明治 四一) 十二月

○ 내 용 : 水原警察署長 警視 飯田章 警務局長 松井茂 앞

本月 十九日 廣州郡 九川面 高德里民은 暴徒 一名을 逮捕 逃走를 企圖하므로써 警察官 憲兵이 銃殺하였다. 同日 夕刻 高德里 崔性弼家에 暴徒 一名이 侵入 牛切庖丁을 휘두르며 金品을 强請하는 것을 洞民이 逮捕하였다. 警察官 憲兵은 此 報告를 得하고 直時 現場에 出張 取調한 바 該 暴徒는 每番 四, 五名이 群을 이뤘 時時로 良民을 괴롭히는 者이므로 同類 檢學를 爲하여 潛伏場所에 案内케 하고자 하였던 바 逃走를 企圖하므로써 此를 銃殺하였다.

廣州駐在 日人巡查 報告

132) 구천면 고덕리는 비록 하남의 행정구역은 아니지만 3.1운동 때 상일동 주계소로 만세군중이 몰려 갔던 것처럼 인접 지역으로서의 지리적 위치를 감안하여 본 자료집에 포함하였음.

右 報告함.

11. 구천면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14(의병편Ⅶ)

八. 隆熙 三年(一九〇九·明治 四二) (一) 四月, 京畿道

○ 기사제목 : 暴徒의 件에 關하여 本日 水原警察署長 報告要領

○ 발 송 자 : 京畿警察部長 警視飯田章

○ 수 신 자 : 警務局長 松井茂

○ 발 송 일 : 隆熙 三年(明治 四二) 四月

○ 내 용 : 京畿警察部長 警視飯田章 警務局長 松井茂 앞

暴徒의 件에 關하여 本日 水原警察署長 報告要領 廣州郡 九川面
面長 朴永祚(四十五歲)는 同面 各洞 税金徵收를 爲하여 出張 同面 蟹
川洞 洞長 趙京實家에 宿泊中 客月 三十日 午後七時頃 暴徒 二名(茶
褐色韓裝 三十年式銃을 携帶)이 侵入 朴永祚를 拉去하여 同所로부터
約一里의 地點에서 殺害 集金全部를 掠奪逃走하였다는 急報에 接하
고 6駐在巡查가 此를 追跡하였으나 끝내 踪跡을 失하였다.

該暴徒는 楊州方面으로부터 逃走한 首魁 李益三의 部下일 것이라
고 認定된다.

右 報告함.

12. 기타(의병에게 살해된 관리들)

『梅泉野錄』 제2권 建陽 元年 丙申(1896년) ①

<9. 의병에게 살해된 관리들>

진주관찰사 趙秉弼, 남원관찰사 白樂倫, 나주관찰사 趙漢根 등이 도주하였다.

그리고 강제로 단발을 행하다가 의병들에게 살해된 자들은 춘천관찰사 曹寅承, 안동관찰사 金爽中, 충주관찰사 金奎軾 등이며, 관찰사 이하로는 의성군수 李觀永, 영덕군수 丁在寬, 예천군수 柳寅衡, 안동경무관 林炳元, 우체국주사 金載潭, 청풍군수 徐相耆, 단양군수 權瀟, 천안군수 金炳塾, 나주參書官 安宗洙, 摠巡 朴善昊, 양양군수 楊命學, 고성군수 洪鍾憲, 강릉경무관 高俊植,三水군수 柳完秀, 함흥참서관 睦裕信, 主事 皮相國과 洪丙贊, 해주경무관 李敬善, 충순 黃穆, 세무관찰 印錫輔, 砥平군수 孟英在, 廣州府尹 朴基仁, 忠州府主事 洪裕政 등이다.

<官報>에 보도된 피살자는 이상에 그치지만 그 사망 일자는 자세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이것은 지난해 겨울과 올 봄에 있었던 일로 <官報>에 누락된 사망자도 있다고 한다.

◆ 광주 지역 의병활동에 대한 일본 측 기록

가. 남한산성 의병에 대한 일본 측 기록¹³³⁾

- 송(送) 제 호[조선 각지 폭도 봉기건 4]
- 발 간 일 : 한국 각지 폭동 잡건
- 발 신 일 : 메이지 29년(1896) 4. 10.
- 발 신 자 : 무쓰[陸奥] 외무대신
- 수 신 자 : 영국,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러시아, 이탈리아, 미국, 네덜란드, 청국 각 공사

1. 메이지 29년(1896) 3월 11일 재 경성 우치다[内田] 일등 영사의 보고

2월 23일 경성 부근 마포에서 야마구치 현 평민 다키가와 쥬이쓰[瀧川壽逸]에게 부상을 입힌 범죄인 조사 건에 대해서는 혐의가 있는 자 십 수명을 체포하여 현재 취조 중인 것은 이미 보고 드렸습니 다만, 그 후 엄중히 취조하였더니 실제 하수인은 이춘삼(李春三)과 안흥생(安興生)이라는 자로 판명되었기 때문에 곧바로 이들을 체포하

133) 독립기념관, 의병운동자료집 1권

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앞에서 말한 폭행 후 집안을 거두어 어디론가 도망쳐서 그 행방이 불분명하므로 어쩔 수 없이 체포 방법을 관계 당국에 조회하고 또 우리 경찰관을 시켜 이들을 탐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체포된 혐의자는 마을 사람 중에 중심이 되는 자로 하여금 마을 사람 일동은 결코 일본인을 향해 위해를 가해서는 안 되며 또 이번의 범인은 반드시 포박하여 데리고 올 것이라는 보호장(保護狀)을 제출하게 한 다음 모두 방환(放還)하였습니다.

2. 동 3월 16일 재 경성 우치다 일등영사의 보고

… 그런데 2월 6일 경기도分院(分院) 지방에서도 후쿠오카 현 의사 오노 요시토시[小野好敏]라는 자가 폭민에게 살해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으므로 ….

3. 동 3월 18일 재 경성 우치다 일등영사의 보고

지방의 폭도는 현재 광주성(廣州城)(서울에서 5리 떨어진 곳)에서 농성하며 여주, 안성 지방의 폭도와 기맥을 통하여 그 세력이 대단히 창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나라 정부에서는 친위대 및 강화도의 병력을 파견하여 토벌 중이지만 아직 첩보를 접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기타 각 지방의 폭도도 집산(集散)이 평소와 다르므로 조선인들 사이에는 갖가지 소문이 퍼져 있습니다.

4. 동 3월 18일 재 인천 하기와라 영사관 사무대리의 보고

… 수원 지방의 불온한 정황을 정찰하기 위해 출장 보낸 순사 등이 복명한 바에 따르면, 그곳은 아무런 이상이 없으나 그 근방 천안, 용인, 안성 등에는 수천 명의 폭도가 집합하여 난폭하게 약탈함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으며 심하게는 천안 군수를 죽여 그 목을 효수하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폭도의 대부분은 이 순사 일행이 수원에 도착하기 전에 벌써 광주(廣州) 지방으로 철수하였고 …,

5. 1896년 3월 18일 「재경성 일등공사 丙田定 木+追의 보고」(公信 제78호)

…그러나 지방의 폭도는 현재 廣州城(서울에서 50리 거리)에서 농성 중이고 여주, 안성 지방의 폭도와 기맥을 통하여 그 세력이 대단히 창궐한 형세로 조선 정부는 친위대와 강화도의 군대를 보내 征討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捷報에 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타 각 지방의 폭도도 집합과 해산이 일정하지 않다고 조선인 중에는 종종 소문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

6. 1896년 3월 28일 「재부산 일등 영사의 보고」(공 제69호), 1896년 4월 1일 접수

결국 의병진은 남한산성(南漢山城)을 점거한지 한 달 만에 관군의 공격을 받고 퇴각하게 되는데 이 때 의병들은 양근(양평) 및 양지(용인) 방면으로 이동하였다. 양근(양평)에 모인 의병은 3월 19일 이래

의병 1,000여 명이 모여 광주에서 후퇴한 병력과 합쳐 약 2천명이 넘었다

나. 남한산성 의병에 대한 「동경조일신문」 1896년 2월 28일 보도

남한산성(南漢山城) 안의 적(의병) 수는 약 1,600여 명이다. 그 가운데 1,000여 명은 광주, 이천, 그리고 양근(양평)의 포군, 즉 구 지방병이고, 그 나머지 600명은 광주의 농민이다. 적의 수괴(의병장)는 광주 의병장 심영택, 이천의병장 박준영(또는 박주영), 양근의병장 이석용(李錫容) 등 3명이다.

다. 남한산성 의병에 대한 주한일본공사관기록

- 문서제목 : 1) [廣州 및 驪州 부근 폭도에 관한 통보] 1
- 발 송 일 : 1896년 2월 27일 오후 6시 40분 仁川 발신 (1896-02-27)
- 발 송 자 : 大佐 高井
- 수 신 일 : 1896년 2월 27일 오후 6시 43분 京城 착신 (1896-02-27)
- 수 신 자 : 公使 小村
- 내 용 :

방금 松坡鎭 守備隊長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보고가 있었음.

1. 오늘 아침 폭도 1,000명가량이 廣州에 모여 그 일부는 성안으로 진입하고 일부는 성 밖을 포위하여, 정밀 양호한 무기를 가졌으며 그 세가 극히 창궐하다고 그곳에서 도망쳐 온 순검이 보고했음.

2. 광주는 20리 거리에 있음.

3. 그곳 民情이 약간 불온하다 함.

이상 통보드립니다.

라. 정미의병(丁未義兵) 당시 광주지역의 상황에 대한 일본 측 기록

1. 메이지 40년 7월에서 동(同) 41년 1월까지 한국에 있어서 제2회 만국평화회의에의 밀사파견과 동국 황제의 양위 및 일한협약체결 1건

○ 기수 제2268호 제천(提川) 및 진천(鎭川), 광주(廣州) 방면에서의 폭도 소탕 상황에 관한 한국주차군 사령관의 보고 이첩의 건

○ 발 간 일 : 메이지 40년 7월에서 동(同) 41년 1월까지 한국에 있어서 제2회 만국평화회의에의 밀사파견과 동국 황제의 양위 및 일한협약체결 1건

○ 발 신 일 : 1907-08-27

○ 수 신 일 : 1907-08-28

- 발 신 자 : 외무대신
- 수 신 자 : 외무대신
- 참1발 제82호
- 메이지 40년 8월 27일
- 한국주차군 사령관 보고
- 8월 27일 오전 10시 45분 발전(發電)
- 동월 동일 오후 3시 3분 착

조치원(鳥致院)에서 명령대기 중이던 이시카와(石川) 소좌가 지휘하는 부대(보병 1개 중대와 1개 소대)는 26일 오후 4시에 그곳을 출발하여 진천(鎭川), 죽산(竹山), 이천(利川), 광주(廣州) 부근의 폭도를 소탕하고 용산(龍山)으로 귀환시킬 예정임.

2. 메이지 40년 7월에서 동(同) 41년 1월까지 한국에 있어서 제2회 만국평화회의에의 밀사파견과 동국 황제의 양위 및 일한협약체결 1건

- 기수 제2311호 한국 각지에서의 적도 정황에 관한 한국주차군 사령관의 보고 이첩의 건
- 발간일 : 메이지 40년 7월에서 동(同) 41년 1월까지 한국에 있어서 제2회 만국평화회의에의 밀사파견과 동국 황제의 양위 및 일한협약체결 1건

- 발신일 : 1907-08-31
- 수신일 : 1907-08-31
- 발신자 : 외무대신
- 수신자 : 외무대신
- 참1발 제89호
- 메이지 40년 8월 31일
- 한국주차군 사령관 보고
- 8월 31일 오전 12시 25분 발
- 동 일 오전 2시 45분 착

1. 경성(京城) 부근은 평온함.

2. 진주(晋州)진위대는 오늘 오전에 해산을 마침.

3. 오늘 아침의 보고 가운데 이천(利川) 남쪽에서 폭도와 만났던 소대는 점차 폭도가 증가해서 약 400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격전을 치른 끝에 이들을 격퇴시켰음. 이때에 지휘관(한국장교)으로 보이는 자를 저격하여 죽였음. 적은 시체 2구를 남겨 두고 일부는 광주가도(廣州街道) 쪽으로, 그 대부분은 설봉산(雪峰山) 정상을 지나 남쪽으로 퇴각했음.

◆ 광주 출신 의병 인물 기록

1. 구만서(具萬書)

○ 『국역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고종 42년 을사(1905, 광무 9) 5월 21일(계사, 양력 6월 23일) 맑음

<군부에서 군사를 파견하여 의병을 소탕하게 할 것 등을 청하는 의정부 참정 심상훈 등의 계>

의정부 참정 심상훈(沈相薰), 내부 대신 이지용(李址鎔)이 삼가 아뢰기를,

“방금 경기 관찰사 정주영(鄭周永)의 보고서를 보니, ‘지평 군수(砥平郡守) 이석호(李皙鎬)가 보고하기를, 「음력 5월 2일에 의병(義兵)이라고 하는 총을 멘 군사 39명이 양근(楊根) 등지로부터 본군(本郡)의 북면(北面)에 와서 머리를 깎은 사람 1인을 쏘아 죽였고, 7일에는 갑자기 읍 안에 이르러 일진회원(一進會員) 8인을 붙잡아 쏘아 죽였는데, 그 정경(情景)이 매우 참혹하였습니다.」라고 하였으니, 조사한 다음에 군부(軍部)에 조회를 보내어 군사를 파견하여 소멸하기 바랍니다.’ 하였습니다.

뒤이어 해당 관찰사 정주영의 보고서를 보니, '양근 군수 이범석(李範奭)의 보고서에, 「음력 이달 7일에 광주부(廣州府)의 지경에 사는 구만서(具萬書)라는 사람이 패거리 45명을 거느리고 각각 총과 칼을 가지고 지평(砥平)으로부터 본군의 읍에 당도하여 창의(倡義)를 내세워 일진회를 소멸한다고 하면서 지회(支會)가 있는 곳을 포위하였는데, 회원들이 기미를 먼저 알아차리고 도주하였으므로 한 사람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놈들이 장터에 달려 나가서 무수히 총을 쏘아 대니, 저자를 보던 사람들이 모두 피하여 흩어졌습니다. 이런 와중에 본군의 읍내면(邑內面) 장안리(長安里)에 사는 백사수(白四洙)라는 자가 탄환에 맞아 죽게 되자, 도로 객주(客主) 이경구(李景九)의 집에 들어가 집물(什物)을 깨부수고 돈과 재물 수만금어치와 물건, 의복 등 많은 수량을 탈취해 가지고는 곧장 지평, 곡수(曲水) 등지로 향했습니다. 그때의 위태롭고 급박한 광경은 이루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하였습니다. 조사한 다음 체포하고 안무할 방도에 대해 별도로 처분을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였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비적 무리가 횡행한 읍과 촌락을 조사해 보건대, 조금도 거리낌 없이 사람을 살해하고 재물을 약탈하였고 점점 걷잡을 수 없이 날뛰었으니, 진압을 위한 방도를 조금도 늦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 속히 군부로 하여금 군사를 파견하여 소탕하도록 해야 합니다. 두 군수로 말하면,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 여러 날 관청을 비운 것만 해도 너무도 놀랍고 탄식할 일입니다. 그리고 경보(警報)가 이처럼 급하였는데도 즉시 달려가 진압하지 않고 편안히 집에 있었을 뿐 아니라 마치 예사로운 일처럼 뒤늦게야 보고하였습니다.

수령(守令)의 도리에 있어 어찌 이러한 사체(事體)가 있단 말입니까. 이는 그대로 두고서 따지지 않아서는 안 될 것이니, 지평 군수 이석호와 양근 군수 이범석은 모두 우선 본관을 면직하고, 법부로 하여금 조율(照律)하여 징계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삼가 상주합니다.”

하였는데, 아뢴 대로 하라는 칙지를 받들었다.

○ 「황성신문」 1905년 6월 14일, 6월 19일 및 6월 20일자에 구만서의 활동에 관한 상세한 보도

2. 구만선(具萬善)¹³⁴⁾

『梅泉野錄』 제4권 光武 9년 乙巳(1905년) ②5

<25.李文鎬, 具萬善 등의 倡義>

砥平李文鎬, 廣州具萬善, 原州元容八 등이 의병을 일으켰다.

원용팔은 8월에 日兵에게 체포되었다.

3. 김춘호(金春浩)

『梅泉野錄』 제6권 隆熙 2년 戊申(1908년) ④

134) 구만선(具萬善) : 매천야록에서 기록하고 있는 시기로 볼 때 구만서(具萬書)를 잘못 기록한 것으로 짐작됨 ; 편자 주

<42. 侍天敎人の 沒殺과 各郡의 의병장>

侍天敎人 21명이 泰仁의 杏壇店에서 자고 있었다. 이때 일본 순사들은 그들을 의병으로 오인하고 포위하여 모두 살해하였다. 일본인들은 이 소문을 듣고 대위 1명을 한국으로 보내 그 진상을 조사하였다. 이때 경기와 해서 지방에는 의병이 치열하여 楊州는 黃在浩, 廣州는 金春浩, 朔寧은 延基浩, 坡州는 李仁順, 平山은 李鎭龍, 延安은 沈魯述, 李根洙 등이 있었다. 그들의 수는 1천명 내지 100명으로 수효가 같지 않고 혹은 10명도 있었으므로 백성들은 살 수가 없었고, 일본인들도 매우 괴롭게 여겼다.

4. 김광희(金光喜), 김광준(金光浚), 유학근(兪鶴根), 안상근(安商根)

『梅泉野錄』 제6권 隆熙 3년 己酉(1909년) ①

<47. 3月 義報>

鄭海朝의병대 수백 명은 高陽, 坡州 등지에서 橫行하였으며 7일에는 興陽, 같은 날 또 海南, 25일에는 開城, 26일에는 朔寧, 22일에는 鎭川, 16일에는 長城에서 싸우고, 金土城의 병대는 陽城으로 들어갔으며, 24일에는 汶山浦, 25일에는 朔寧, 23일에는 高山, 15일에는 順興, 22일에는 定平, 27일에는 通津, 20일에는 靈光에서 싸우고, 申堧石은 太白山과 小白山 사이에서 다시 의병을 일으켰으며 20일에는

谷城의 桐裏山, 19일에는 羅州에서 싸웠다.

崔君心은 間島에서 의병을 모집하였으며 金光喜, 金光浚은 부하 800명과 함께 廣州로 들어가고, 兪鶴根과 安商根은 의병 500명을 인솔하고 寶蓋山을 점거하고 있었다.

5. 이춘삼(李春三)¹³⁵⁾

『梅泉野錄』 제6권 隆熙 3년 己酉(1909년) ④

<34. 11月 義報>

20일에는 李漢喆, 安鍾根이 坡州로 들어가고 李春三은 廣州로 들어갔다. 9일에는 蔡應彦이 谷山으로 들어가고 23일에는 楊州에서 전투를 벌이고, 申貞熙는 平山으로 들어갔다.

6. 이만년쇠(李萬年釧)

판결

거주 : 광주군(廣州郡) 거주

직업 : 농민

피고 : 이만년쇠(李萬年釧)

135) 이춘삼은 윤치장 의병장이 일본군에 체포된 후 지휘권을 이양받아 활동하였다. 그리고 李益三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할 필요가 있음.

연령 : 31세

상기한 피고 이만년쇠의 내란범 사건을 검사 공소(公訴)에 의하여 심리한즉, 피고가 작년 음력 8월 그믐께 폭도에 투입하여 그 도당 54명과 짝을 지어 대장의 명령으로 광주군 동부(東部) 이병욱(李炳旭) 집에 가서 군수전 1백 원을 탈취하여 그 중에서 40원은 피고가 써 버리고 2달 수행하다가 비로소 집에 돌아 와서 체포되었다.

이 사실은 피고의 진술에 의하여 명백한지라, 피고 이만년쇠를 형법 대전 제195조 내란율과 동 제135조 '종속범은 주범의 율에서 1등을 경감한다'는 조문과 동 제107조 '유형은 사형을 제외한 반란에 시행한다'는 율에 비추어 종신 유형에 처한다.

피고는 이 선고에 대하여 5일내에 상소할 수 있다.

(독립운동사 자료집 별집1-이만년쇠 판결문)

◆ 하남지역 만세운동 관련 기록

1. 상일리 만세시위

- 제 목 : 獨立運動에 관한 건(제29보)
- 문서번호 : 高 第9146號
- 발 송 일 : 1919/03/28 ○발송자
- 수 신 일 : - ○수 신 자 : 長谷川好道(朝鮮總督) 외
- 사건 및 활동
京城 安國洞警察派遣所 투석, ……京畿道 廣州郡 上一里 군중 만세 시위, …

2. 서부면과 중부면 만세시위

- 제 목 : [3月 27日 시위 상황]
- 문서번호 : 密 제102호 其136, 제28호
- 발 송 일 : 1919/03/29
- 발 송 자 : 兒島? 次郎(朝鮮憲兵隊司令官)
- 수 신 일 : 1919/03/30
- 수 신 자 : 田中義一(陸軍大臣)

○ 관련단체 : 奉日川憲兵駐在所, 西部面事務所, 昌道憲兵駐在所, 良
堡憲兵駐在所, 老泉寺

○사건 및 활동

廣州郡에서 西部面事務所 습격과 投石, 廣州郡 中部面에서 面長 구
타, ...

3. 동부, 서부, 상일리, 경안 등지의 만세시위

○ 제 목 : 獨立運動에 관한 건(제30보)

○ 문서번호 : 高 第9351號

○ 발 송 일 : 1919/03/29

○ 발 송 자 :

○ 수 신 일 : -

○ 수 신 자 : 長谷川好道(朝鮮總督) 외

○ 사건 및 활동 :

... 京畿道 廣州郡 中部面 山城里 中部面 주민 만세시위 및 中部面
長 구타, 京畿道 廣州郡 九川面 吉리와 中部面 東部面 西部面 등지
군중 만세시위, 京畿道 廣州郡 九川面 上一里 군중 헌병주재소 습격
투석 및 만세시위, 京畿道 廣州郡 慶安面 京安里 군중 만세시위 및
군수 협박 헌병보조원 총기 탈취, ...

4. 동부면, 서부면, 중대면,

- 체 목 : 騷擾事件에 관한 狀況(1919.3.26-1919.4.5)
- 문서번호 : 朝特報 第9號
- 발 송 일 : 1919/04/07
- 발 송 자 : 朝鮮軍參謀部
- 수 신 일 : 수신자
- 첨부문건 : 軍司令官의 希望事項 要旨(1919.4.1), 朝特報 第9號騷擾事件에 관한 狀況 附錄(1919.4.7)
- 사건 및 활동 :
 - … 京畿道 廣州郡 中岱面에서 군중들의 면사무소와 주재소 습격,
 - … , 京畿道 高陽郡 蘓島에서 군중들의 면사무소 습격, … , 京畿道 廣州郡 東·西部面에서 군중들의 주재소 습격, … , 京畿道 廣州郡 酒幕里에서 군중들의 군청 습격, … .

5. 3.1운동 일차(日次)보고(조선군사령관, 1919년)

- 密 제102호 其134. 3월 29일 제9호
 - 광주군 상일리 주재소에 지난밤 1천여 시위군중이 침입하여 부상자가 나오고 또 광주산성에 약 300명이 집합하여 시위를 하므로 공포를 쏘아 해산

○ 密 제102호 其136. 3월 31일 제28호

27일 경기도 광주군 서부면사무소에 군중 1천명이 돌을 던지는 등 시위를 하므로 헌병이 발포하여 해산, 시위자 사망 1명, 부상자 2명. 같은 군 중부면에 시위 군중이 모여 면장을 구타 폭행하므로 헌병이 발포하여 해산.

○ 密 제102호 其137. 3월 31일 제54호

광주군 주막리(경안)에 약 1천명의 군중이 봉기하여 시위를 벌이므로 보병 79연대를 응급 지원하여 진압. 시위대 측에 약간의 사상자 발생

6. 3.1운동 일차보고(조선총독부 경무국 발, 1919년)

○ 3월 30일 오전 10시 20분 着

27일 광주군 서부면, 28일 광주읍내에 시위 군중 다수 군집하여 헌병 또는 경찰관이 발포하여 진정시킴. 28일 광주군 중부면, 동부면의 시위군중 해산

○ 1919년 3월 28일 高 제9146호

광주군 상일리 27일 상일리 헌병주재소 주위 고지 5-6곳에 약 천명의 군중이 운동을 개시하여 목하 진압 중.

○ 1919년 3월 29일 高 제9351호

광주군 산성리. 3월 27일 중부면 수진동, 탄리, 단대리 주민 300명 집합 운동개시, 중부면장의 머리를 곤봉으로 구타, 인사불성 되도록 폭행하여 헌병 발포 해산.

27일 길리 및 동부면사무소 앞에서 군중이 만세를 높이 외쳤다. 또 동부와 서부 두 면 산위 및 남한산성에서 봉화로 신호를 올리며 만세를 불렀다.

같은 날 상일리에는 시위 군중 1천명이 구한국 깃발을 앞세우고 상일리 헌병주재소로 나아가 에워싸고 극렬한 시위를 전개하므로 헌병이 발포하여 사망자1, 부상자 2명이 발생.

경안면에서는 28일 시위대 1천명이 경안리에서 만세시위를 개시하여 군청 문 앞에서 만세를 높이 부르며 군수를 협박하였다. 또 헌병 보조원의 총기를 빼앗고 투석을 하여 우체국 유리창이 깨졌다. 헌병의 발포로 5명이 죽고 10여 명이 부상했다.

7. 조선군참모부의 ‘소요사건에 관한 상황’ 부록에 수록된 광주(하남)지역의 만세운동 상황 발췌

秘

朝特報 제9호

대정8년(1919) 4월 7일

소요사건에 관한 상황(3월 26일부터 4월 5일 까지) 부록

월일	장소	폭동행위 개요	군대파견	暴民側 死傷數
3/26	광주군 중대면	약 300명의 군중이 면사무소와 주재소를 습격		
=	광주군내 2개소	봉화를 올리고 만세를 높이 외침		
3/27	광주군 중부면	약 200명의 군중이 소요를 일으키고 면장이 부상당함		
=	광주군 동·서부면	약 천명의 군중이 주재소를 습격		사망1 부상2
3/29	광주군 주막리(경안)	약 천명의 군중이 군청 습격 폭행	경성에서 보병 1개 소대 파견	
3/29	광주군 주막리 부근	3개소에서 각각 2-300명의 군중 소요	주막리에서 각 5-6명의 병졸 파견	

하남 지역 3.1 운동 지도자 관련 자료

여 백

◆ 구희서(具羲書)



1. 구희서 공적조서

- 유공자명 : 구희서(具羲書)
- 생존여부 : 사망
- 성 별 : 남
- 생년월일 :
- 사망년월 : (양)1951년 02월 07일
- 본 적 :
- 독립운동당시 주소 :

- 관리번호 : 4932
- 운동계열 : 3.1운동
- 소속 및 지위
- 독립운동기간
- 활동지역 : 廣州
- 수형년수 : 징역 8월 집행유예
- 복역년수
- 추천훈격 : 대통령표창
- 사정훈격 : 대통령표창
- 공적개요 :

1919. 3. 27 京畿道 廣州郡 西部面事務所와 憲兵駐在所 앞에서 洞民 40여명과 같이 朝鮮獨立萬歲를 高唱하여 시위행진하다 日警에게 被逮되어 懲役 8月을 받은 功績이 認定되므로 大統領表彰에 該當하는 分으로 思料됨.

2. 구회서 판결문

판결

주소·본적 경기도 광주군 서부면(西部面) 감일리(甘一里) 246번지
농업 구회서(具義書) 48세

상기자에 대한 보안법 위반 피고사건에 대하여 조선총독부 검사대리 화촌미수(花村美樹) 관여로 심리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주문

피고를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피고는 구 한국 독립을 꾀하는 많은 군중과 같이 시위운동을 하려고 기도, 대정 8년 3월 27일 자기가 거주하는 동리 이민 약 40명을 선동 인솔하여 광주군 서부면 면사무소 및 동면 상일리(上一里)헌병주제소 앞에 몰려들어 이들 이민과 함께 조선독립만세를 부름으로써 공안을 방해한 자이다. 이상 사실은,

1. 당 법정에서 피고가 말한 '경성 어떤 학생의 협박을 받아 부득이 관시 날 민중을 지휘 인솔하여 서부면 사무소 및 상일리헌병주제소에 이르러 그 곳에서 군중과 같이 만세를 부른 일이 있다'는 취지의 공술에 의하여 이를 인정한다.

법에 비추건대, 피고의 소위는 보안법 제7조, 조선형사령 제42조에 해당하는 바, 위 범행 후 대정 8년 4월 15일 제령 제7호 제1조에 따라 형이 변경 되었으므로 형법 제6조·제10조에 의하여 경중을 비교 대조하여 경한 보안 법 제7조의 소정형 중 징역형을 선택, 처단할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한국독립운동사자료집5 삼일운동재판기록)

判決

住所及本籍

京畿道廣州郡西部南甘一里

二百四十六番地 農業

具 義 書

右者ニ對スル保安法違反被告事件ニ付

判決 原本

朝鮮總督府裁判所

朝鮮總督府檢事代理花村美樹子與富

理判決スルト左ノ如シ

主 文

被告ヲ懲役八月ニ處ス

理 由

被告ハ韓國ノ獨立ヲ計スル多象共同シ

テ示威運動ヲナワシテ企テ大正八年三月

0053

二十七日居村民約四十名ヲ煽動引率シテ

廣州郡西部南甘事務所及全南上一里

憲兵駐在所前ニ殺倒シ是等里民ト共

ニ朝鮮獨立萬歲ト叫ビ以テ公安ヲ害シ

タルモノナリ

以上事實

一 憲法違反於此被告ノ京城ニ某學生

判決 原本

朝鮮總督府裁判所

ノ脅迫ニ遭ヒ止ム判示日民衆ヲ指

揮引率シテ西部南事務所及上一里憲

兵駐在所ニ至リ全所ニテ群眾ト共ニ萬

歲ヲ叫ビタルコトアル旨ノ供述

ニヨリ認定ス

法ニ照スニ被告所爲ハ保安法第七條刑

事令第四十二條ニ該當スル右犯行後

0054

大正八年四月十五日 命令第七號第一條

ヨリ刑ニ変更アリタルヲ以テ 刑法第六條第七

十條ニヨリ輕重ヲ比照シ輕キ保安法第七

條ノ所定刑中 懲役刑ヲ選擇スルハ

新ニ一キモノトス

仍ラ主文ノ如ク 判決ス

大正八年五月六日

判決原本

朝鮮總督府裁判所

京城地方法院

朝鮮總督府判官 鏡

一

以

朝鮮總督府判官 平田 昌

0055

구희서 경성복심법원 판결문

大正八年四月七日 裁判所

大正八年刑控第三八四號

判決

京畿道唐州郡西都面廿一里

二百四十六番地 農業

具 裁 書

當四十八年

右當事人違反農林事件ニ付大正八年

五月六日京城地方法院ノ言渡シタル

有罪判決ニ對シ被告ヨリ控訴ヲ申立

テシタル事ニ對シ被告精存檢事水野重

功干與シ審理ヲ遂ケ判決スルコト尤

ノ部ニ

主 文

本件控訴ヲ棄却ス

理由

被害ハ政府攻撃ノ目的ヲ以テ大正八年三月二十七日露露通産省郡西部郡廿一里ナル居里名民約四十名ヲ煽動引率シテ同面々事務所前及同面上一里露兵駐在所前ニ殺傷シ居里民ト共ニ朝鮮姓支萬歳ヲ叫ビ以テ治安ヲ妨

相決

朝鮮總督府裁判所

害シタルモノナリ

右露露ハ露露公判始末書中判示ニ符合スルガ實ノ自認記載ニ依リ之ヲ認定ス

法ニ照ラスニ其所為ハ刑法第六條第八條ニ依リ懲罰法第七條朝鮮刑事令第四十二條ト大正八年四月十五日制

令第七條第一條トテ對照シ輕キ前段ハ法條ニ依リ懲罰スヘキ犯罪ナルヲ以テ其所定刑中懲役刑ヲ選択シ被告ヲ懲役八月ニ處スヘキモノトス然レハ刑判決ハ右判旨ニ適合シ正當ナルヲ以テ被告ノ控訴ハ理由ナレ

仍テ刑事訴訟法第二百六十一條第一項ニ則リ主文ニ輕ク判決ス

相決

朝鮮總督府裁判所

大正八年六月二十一日

東京控訴法院 刑事第三部

裁判長 朝野龍太郎

鈴木健三郎

判官 長岡平太郎

箱田淳

判官 池田幸次郎

津路幸四郎

書記 朝倉徳太郎

乙巳年

大正八年刑上第九四〇號

判決書

京畿道廣州郡西部面廿一里

二百四十六番地農

被告人 具 羲 書

四十八年

刑事判決原本

— 高等法院 —

右 保安法違反 被告事件ニ付大正八年

六月廿一日京城覆審法院ニ於テ言渡シ

タル判決ニ對シ被告人ヨリ上告ヲ申立タリ依

テ當院ハ朝鮮總督府檢事草場林五郎ノ意見ヲ

聽キ判決スルコト左ノ如シ

主 文

大正八年刑上第九四〇號

0663 部面廿一里

被告人 具 羲 書

四十八年

刑事判決原本

— 高等法院 —

右 保安法違反 被告事件ニ付大正八年

六月廿一日京城覆審法院ニ於テ言渡シ

タル判決ニ對シ被告人ヨリ上告ヲ申立タリ依

テ當院ハ朝鮮總督府檢事草場林五郎ノ意見ヲ

聽キ判決スルコト左ノ如シ

主 文

本件上告ハ之ヲ棄却ス

理由

上告趣意ハ自己ノ行為ハ朝鮮民族トシテ正義人道ニ基ク意思ノ發動ニシテ犯罪ニアラス然ルニ第一審及第二審ニ於テ受ケタル有罪ノ判決ハ不當

刑事判決原本

—高等法院

ニシテ服従スル能ハサル違法ノモノ

ナリ依テ上告スト云フニ在レトモ原

審認定ノ事實ニ依レハ被告ノ所為ハ

原審適用ノ法條ニ該當スル犯罪ヲ構

成スルコト明ナレハ原審カ該法條ヲ

適用シ處斷シタルハ相當ナリ論旨ハ

自己ノ事實トスル所ヲ述ヘ被告一個ノ意見ニヨリ自己ノ所為ハ罪トナラスト主張スル者ニ外ナラサレハ上告ノ理由ナシ

刑事判決原本

—高等法院

右説明ノ如ク本件上告ハ理由ナキヲ以
テ刑事訴訟法第二百八十五條ニ則リ主
文ノ如ク判決ス

大正八年



日

高等
裁判所
事務部

裁判長 朝鮮總督府判事

刑事判決原本

岩本 以明
高等法院

朝鮮總督府判事 石川 正四

朝鮮總督府判事 横山 俊夫

朝鮮總督府判事 水野 正之助

朝鮮總督府判事 原 正三

朝鮮總督府裁判所書記 桑池 徳次郎

◆ 김교영(金敎永)



1. 김교영 공적조서

- 유공자명 : 김교영(金敎永)
- 생존여부 : 사망
- 성 별 : 남
- 생년월일 :
- 사망년월 : (양)1929년 05월 09일
- 본 적 :

- 독립운동당시 주소 : 京畿 廣州 東部 望月 323
- 관리번호 : 9160
- 운동계열 : 3.1운동
- 소속 및 지위
- 독립운동기간
- 활동지역 : 京畿 廣州
- 수형년수 : 징역 1년 6월
- 복역년수 : 1년 7개월 0일
- 추천훈격 : 애족장
- 사정훈격 : 애족장
- 공적개요

경기도 광주군 동부면 망월리의 구장으로 1919년 3월 20일 경 조선 각지에서 시위운동이 전개되고 있음을 듣자 이에 찬동하고 동월 27일 동리 사환 김용문과 함께 이민 9명을 불러 모아 이들을 인솔하고 동면 면사무소 앞으로 독립만세 운동을 전개하다가 피체되어 징역 1년 6월을 받은 공적이 인정되므로 건국훈장 애족장에 해당하는 분으로 사료됨.

2. 김교영 판결문

판결

본적·주소 경기도 광주군 동부면(東部面) 망월리(望月里)323번지
농업 천주교도

김교영(金敎永) 12월 20일생 62세

위에 대한 보안법 위반 피고사건에 대하여 조선총독부 검사대리 사법관 시보 화촌미수(花村美樹) 관여로 심리·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주문

피고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피고는 전기 피고가 거주하는 동리의 구장인 바, 대정 8년 3월 20일 경 타인에게서 조선 각지에서 조선독립시위운동이 행하여지고 있음을 전해 듣자 이에 찬동하여 정치변혁의 목적으로 피고가 거주하는 동리에서도 역시 같은 운동을 하고자 동월 27일 피고 스스로 또는 동리 사환 김용문(金用文) 등으로 하여금 이민에게 대하여 ‘조선 독립시위운동을 할 터이니 집합하라’고 전달한 결과 모인 이민 약 9명을 인솔하고 동면 면사무소 앞으로 가서 동일 오후 1시 경부터 오후 4시 경까지 군중과 같이 조선독립만세를 연달아 부름으로써 정치에 관하여 불온 언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치안을 방해한 자이다. 위의 사실은,

1. 검사의 피고 신문조서 중, 스스로 말한 판시함과 같은 취지의 공술,

1. 헌병의 증인 김용문 신문조서 중, ‘자기는 망월리의 사환인데 대정 8년 음 2월 26일 (양 3월 27일) 조반 후 밭 일에 나가 있었던

바, 자기 3남 김흥돌(金興堧)이 “이민을 모아 만세를 부르니 빨리 이장 댁으로 오라”는 뜻의 말을 전하므로 이장 댁에 갔더니, 피고는 자기에게 대하여 “조선을 독립시키고자 시위운동으로서 만세를 부르니 곧 이민들에게 집합하라고 전하라”는 취지의 명령을 받고 자기는 이민 약 9호에 그 뜻을 전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집합한 9명을 인솔하고 동부면 면사무소로 가서 만세를 불렀다’는 취지의 공술 기재.

1. 동 참고인 김흥돌 신문조서 중, ‘자기 부친이 밭에 가고 없는 동안에 피고가 자기 집에 와서 “모두 만세를 부르는데 어찌 나오지 않느냐? 빨리 아버지를 불러 오라”고 하여, 자기는 곧 아버지를 부르러 갔다. 그리고 그 때 또한 피고의 명령으로 이민 3명에게 “빨리 면사무소로 가서 만세를 부르라”고 전하였다’는 취지의 공술 기재 등이 있음을 종합하여 증빙이 충분하다.

법률에 비추건대, 본건은 범죄 후에 법률로써 형이 변경되었으므로 형법 제6조·제8조·제10조에 따라 신·구 양법을 비교 대조하면 구법에서는 보안법 제7조, 조선형사령 제42조에 해당하고 신법에서는 대정 8년 4월 15일 제령 제7호 제1조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구법인 보안법 제7조의 형이 경하므로 동 법조 및 조선형사령을 제42조를 적용하여 소정형 중 징역형을 선택하여 그 형기 범위 내에서 처단할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독립운동사자료집5, 삼일운동재판기록)

判決

本籍住居不 京畿道 廣野郡 東部面

碧月里 二百二十三番地 農文全 放徒

全 教 永

大正二十二年六月二十日

右 對 大 保 安 法 違 反 被 告 事 件

判決 原本

朝鮮總督府裁判所

付 朝鮮總督府 代理 司法官 試

補 花 村 美 樹 子 與 審 理 判 決 大 正 二 年

小

主 文

被告ヲ懲没一年六月、處ス

理由

被告ハ府署ヒル被告居村巴長ナル事

0592

0593

大正八年三月二十日頃他ヨリ朝鮮各
地ニ於テ朝鮮獨立ノ示威運動行

ニシテ、アルヲ聞知スルヤ之レニ賛同シ政

治變革ノ目的ヲ以テ、被告居村ニ於

テモ亦同運動ヲ爲サント欲シ同月二

十七日被告自ラ若クハ里小使人身用

文字ヲシテ里民ニ對シ朝鮮獨立ノ

判決 原本

朝鮮總督府裁判所

示威運動ヲ爲サレトシ集合セヨト傳

タル結果集合レシ里民約九名ヲ率

ヒ同面々事務不前ニ判リ同日午後一

時頃ヨリ午後四時頃迄衆ト共ニ朝鮮

獨立ヲ慶祝シ連呼レ以テ政治ニ関レ

不穩ノ甚クシテ同ヲ治安ヲ妨害ス

ニタルモノナリ

右事實

一 總事、被告訊問調書中に別示同

旨、自供

一 憲兵、證人全用文訊問調書中に自

合、翌月里、小使ナレガ天正八年陰二月

二十六日一三月二十七日一朝食後畑、仕事

、此う居りたる處、自分ノ上男全興を

判決原本

朝鮮總督府裁判所

が里氏ヲ集メテ、其ノ罪狀ヲ唱フル故、早蓮里

長毛ニ來レト、旨、中レ侍ヘタル故、里長

毛ニ卷リタル處、被告ハ自分ニ對シ朝鮮

ヲ獨ラズスル處、亦殊ニ違フトシテ、其ノ罪狀ヲ

唱フルベシキハ、里氏ハ、其ノ罪狀ヲ唱フル

トナシ、命セシタル故、自分ハ、里氏ハ

元戶ニ其ノ旨傳ヘタリ、而シテ、被告ハ

合シタル元名ヲ、其ノ罪狀而シテ、其ノ旨傳

ヘタル處、亦殊ニ違フトシテ、其ノ罪狀ヲ

載

一同、其ノ旨傳ヘタル處、亦殊ニ違フトシテ、其ノ罪狀ヲ

合、又、畑ニ行キ、不在中、被告ハ自分

方ニ卷リタル處、被告ハ自分ニ對シ朝鮮

ヲ獨ラズスル處、亦殊ニ違フトシテ、其ノ罪狀ヲ

判決原本

朝鮮總督府裁判所

合、又、畑ニ行キ、不在中、被告ハ自分

際、被告ハ、命セシタル故、里氏ハ、其ノ罪狀ヲ

而シテ、其ノ旨傳ヘタル處、亦殊ニ違フトシテ、其ノ罪狀ヲ

載

法、其ノ旨傳ヘタル處、亦殊ニ違フトシテ、其ノ罪狀ヲ

法律ニ照ス

本件ハ、犯罪後、法令ニヨリ、刑ヲ

更アリテハ刑法第六條第八條
第十條ヨリ、此爲民法ニ比照スルニ

民法ニ於テハ、民法第六條ハ保安法第六

七條朝鮮刑事令第四十二條ニ該當

シ民法ニ於テハ、大正八年四月十五日制

令第六號第一條ニ該當ス因テ民法

第六條保安法第六條ノ刑輕ヤリ以テ

判決原本

朝鮮總督府裁判所

同法條又朝鮮刑事令第四十二條ヲ

適用シ不定期中懲役刑ヲ選擇

シ其ノ刑期範圍内ニ於テ處斷スベ

キモノトス

何テモ文ノ如ク判決セリ

大正八年四月二十九日

京城地方法院

朝鮮總督府裁判所
大正八年四月二十九日

朝鮮總督府裁判所
大正八年四月二十九日

判決原本

朝鮮總督府裁判所

大正八刑控第三五四號

判決

京畿道廣州郡東部面望月里三百二十三番地在籍同所住農業天主教徒

入金 教 永

大正八年四月二十九日京城地方法院

右保安法違反脅迫被告事件付キ

大正八年四月二十九日京城地方法院言渡シタル有罪判決ニ對シ被告ヨリ控訴ノ申立アリタルヲ以テ當法院ハ朝鮮總

督府檢事寺田恒太郎干與審理判決スルコト左ノ如シ

主文

本件控訴ハ之ヲ棄却ス

理由

被告ハ天主教徒ニシテ居村區長ヲ勤ム居ル者ナルカ大正八年三月二十日頃鮮内各地ニ於テハ朝鮮獨立ノ示威運動行ハレ其運動方法トシテ朝鮮獨立萬歲ト唱ヘ居ル由ヲ

0598

聞知スルマ其趣旨ニ賛同シ居村ニ於テモ亦之レト同一行動ニ出テント企テ同月二十七日被告自ラ若クハ里小使金用文等ヲシテ里民ニ對シ朝鮮獨立示威運動方法トシテ朝鮮獨立萬歲ト唱フルニ依リ集合スヘキ旨ヲ傳ヘタル結果集合セル里民約九名ヲ率ヒ居面事勢所前ニ赴キ同日午後一時頃ヨリ午後四時頃マテ右里民ト共ニ朝鮮獨立萬歲ト連

呼シ以テ治安ヲ妨害シタリ以上事實ハ當公廷ニ於ケル被告、里民ト共ニ朝鮮獨立萬歲ト連呼シタル點ヲ除キ判示ト同一趣旨ノ自供檢事、被告人認問調書中自分ハ大正八年三月二十七日朝鮮獨立示威運動ヲ爲ス者ト集合セヨト達シテ里民ヲ集合セシメ其結果集マリタル九人、者ヲ率ヒ面事務所ニ到リ午後一時頃ヨリ午後

0599

四時頃迄、間同所ニ於テ朝鮮獨立萬歳ヲ連呼シタル旨、供述記載憲兵上等兵、被告訊問調書中自分、大正八年三月二十七日居村、金成烈、カ里民約四十名ヲ連テ東部面事務所、方ヘ萬歳ヲ唱ヘツ、行ケラ見早速村、小使ヲ遣ハシ殘餘ノ里民約十名ヲ集合シ共ニ東部面、面事務所前ニ到リ萬歳ヲ唱ヘタル旨、供述記載ヲ綜合

0600

シラズラ認定ス
法律ニ照スニ被告、所為、犯罪後ノ法律ニ依リ刑、變更アリタルカ故ニ刑法第八條第六條ニ則リ新舊法、刑ヲ比照シ輕キニ從フヘク新法ニヨレハ大正八年制令第七號第一條第一項ニ舊法ニヨレハ保安法第七條朝鮮刑事令第四十二條ニ據リ對照スルニ舊法ノ刑輕キヲ以テ前示保安法ヲ適用シ所

定二年以下、懲役刑ヲ選擇シ其範圍内ニ於テ被告ヲ懲役一年六月ニ處スヘリ
被告カ大正八年三月二十七日獨立運動、為メ居村里民ヲ集合スルニ際シ右里民ニ對シ若シ集合セサルトキハ其居宅ヲ燒燬スヘキ旨申關ケタル旨、公訴事實ハ之ヲ認ムヘキ證據十分ナラス然レトモ該事實ハ判示所為ト一個ノ行為タル

關係アルモノトシテ起訴セラレタルモノナルカ故ニ特ニ此點ニ付キ主文ニ於テ無罪ノ一言度ヲ為サ、ルモノトス然ラハ右ト同一趣旨ニ出テタル原判決ハ相當ニシテ被告ノ控訴ハ理由ナキニ依リ刑事訴訟法第二百六十一條第一項ニ則リ主文、如ク判決ス

大正八年六月二日
京城覆審法院刑事部

0601

東洋...

朝鮮...

朝鮮...

朝鮮...

右膠本也

大正八年六月六日


京成檢査法院檢事

朝鮮總...

杉原 勲

杉原友太郎
喜頭兵一
山口均四郎
石山徳兵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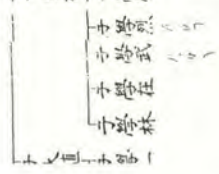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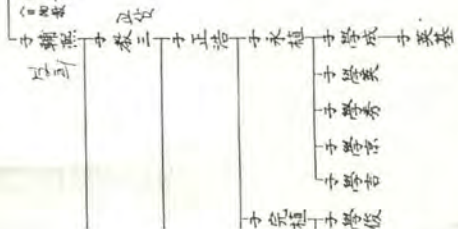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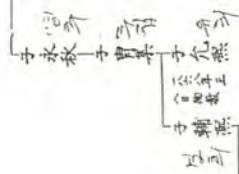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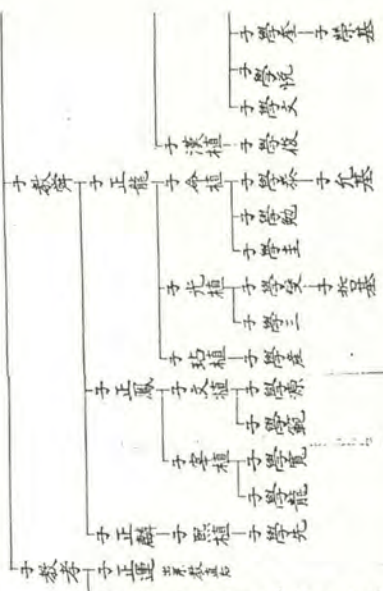
김교영 수형기록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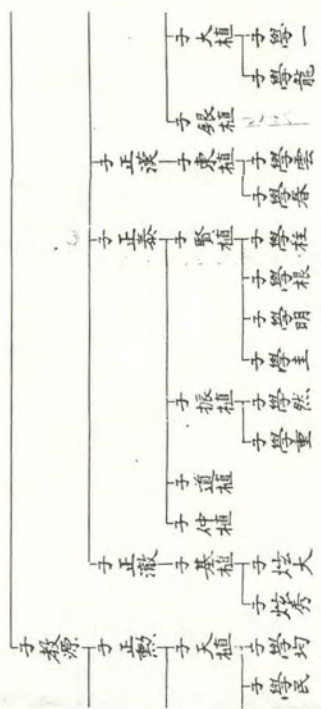
受刑事項						身分	住所	出生地	本籍
及其事由	執行監獄	言渡裁判所	刑ノ始期	言渡年月日	刑名				
出獄年月日 大正九年九月二十八日 滿期易犯假出獄	西大ノ監獄	京城府法院	大正八年七月廿日	大正八年七月廿日	禁錮 一年六月	强盜 法違反	西大	京城府 西大	京城府 廣中區 車馬面
備考						職業	農		
前科						初犯			

21110 - 1111

氏名	年齡	生年 月 日	指紋番號
金 教 永	身長	4 尺 9 寸 8 分	No. 88767
特徵			79869







김교영 훈장증과 훈장

제 2491 호



훈 장 증



고 김 교 영

위는 우리나라 자주독립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바 크므로 대한민주헌법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훈장을 추서함

건국훈장 애족장

1994년 3월 1일

대통령 김 영



국무총리 이 퇴 항

이름은 건국훈장부에 기입함

총무처장관 황 영





<김교영 묘역>

金教永先生 功績碑文 (案)

公은 朝鮮朝 哲宗 8년(서기 1857년)에 京畿道 廣州郡 東部面 望月里 龜山에서 諱元熙公과 淸州韓氏의 長男으로 나시었다. 公의 本貫은 慶州이며, 鷄林君派의 始祖이신 諱罷의 十八世孫이다. 이곳 龜山에는 公의 六代祖이신 通德朗 諱聲佐께서 漢陽에서부터 立郷하신 이래 累代에 걸쳐 慶州金氏 一門이 世居해온 곳이다. 公의 집안은 祖父 때부터 篤實하게 天主教를 믿어온 家門이다. 公의 祖父이신 諱萬集(아우구스띠노)은 1839년 己亥迫害 때에 아우인 諱文集(베드로)과 함께 체포되어 殉教하셨다. 公의 큰 祖父되시는 諱禹集(안또니오)도 아우

들의 뒤를 이어 곧 체포되어 殉教하셨으니, 이가 곧 한국 천주교 103위 聖人 중 한 분이시다. 그 후 大院君執政期인 1866년 丙寅迫害 때에도 公의 집안에 큰 禍亂이 미치어 叔父 諱次熙, 堂叔 諱聖熙, 敬熙께서 殉教하셨다. 公은 이러한 집안의 영향으로 어려서부터 天主教를 믿으셨고 父母를 따라 信仰生活을 하시었다. 丙寅迫害 때에는 집안에 미치는 禍亂을 피해 九歲少年이었던 公은 父親을 따라 一時 江原道 杆城에 隱遁하였다가 平亂 이후 龜山으로 回鄉하셨다.

公은 天品이 剛直해 不義를 보면 참지 못하였으며 周圍의 信望이 두터웠다.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긴 뒤 公은 늘상 時局을 慨嘆해 마지 않았다. 1919년에 드디어 우리 民族의 滔滔한 力量이 一時에 噴出되어 侵略者 日帝의 肝膽을 서늘케 하였으니, 己未萬世運動이 그것이다. 이때 公은 六十二歲로, 三千里 全土로 울려 퍼지던 獨立萬世 소리에 적극적으로 呼應하여 廣州의 示威運動을 주도하시었다. 3월 26일 區長일을 맡고 계시던 公은 住民을 이끌고 마을 뒤의 龜山으로 올라가 蠟燭을 밝히며 목청껏 獨立萬世를 불렀다. 翌日에도 公은 數百名의 示威隊를 先導하여 천현리에 있던 東部面事務所로 行進하며 萬世를 외쳤다. 獨立萬世 喊聲에 놀란 面長과 書記들은 황급히 逃亡하기에 이르렀다. 이 날의 示威에는 公의 長男 正海, 次男 正淑, 三男 正洙, 五男 正弼을 비롯하여 堂姪 正運, 姪婿 勸明奎 등 여러 血族이 同參하였다. 公은 이어 群衆을 이끌고 황산고개를 넘어 삼일리에 있던 日帝 憲兵近衛所로 향하면서 示威를 계속하였다. 다급해진 日帝 憲兵은 맨손의 示威群衆을 향해 發砲하면서 示威隊를 強制로 解散시켰다. 公은 이처럼 다급한 상황에서도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獨立

萬世를 絶叫하다가 결국 日帝에게 체포되고 말았다. 그 후 公은 形言할 수 없는 온갖 拷問을 당하셨다. 몸을 거꾸로 매단 채 물을 먹이기도 하고 손가락 사이에 대나무를 끼우고 비트는 등 野蠻的인 方法으로 公에게 갖은 身體的 苦痛을 가했던 것이다. 결국 公은 廣州의 萬世示威運動을 主導한 嫌疑로 1919년 四月 二十九日 京城法院에서 1년 6월의 懲役刑을 言渡받고 서울 西大門刑務所에서 모진 獄苦를 치룬 끝에 滿期出所하시었다. 하지만 監獄에서 얻은 病魔로 인해 三年間 病席에서 고생하시다가 1923년 陰曆 四月 二十五日 亡國의 痛恨을 품은 채 六十六歲를 一期로 他界하시었다. 公이 가신 지 七十一一年 뒤인 1994년에 公은 獨立運動에 끼친 功績을 認定받아 大韓民國政府로부터 建國勳章愛族章을 追敘받으셨다.

公은 海州吳氏와의 사이에 正海·正淑·正洙·正夏·正弼의 다섯 아드님을 두셨으며, 그 아래에 여러 親孫을 보셨다. 長子 正海는 寬植·鍾植, 第二子 正淑은 仁植·俊植·憲植·浩植(出系正夏後), 第三子 正洙는 龍植·鎭植, 第四子 正夏는 浩植(系子), 第五子 正弼은 弘植을 두었으니, 선생의 直孫만도 아홉이요, 다시 그 아래에 子孫이 심히 繁昌하였으니, 公이 끼치신 蔭德의 所産이라 아니할 수 없다.

近來에 下南市의 近現代 歷史를 整理한 일이 緣故가 되어 이에 鈍筆이 公의 功績을 삼가 撰하는 바이다.

2004년 2월 獨立紀念館 研究員 文學博士 朴敏泳 謹撰

◆ 김홍렬(金弘烈)



1. 김홍렬 판결문

판결

경기도 광주군 동부면(東部面) 풍산리(豊山里)

농업 김홍렬(金弘烈) 34세

위 보안법 위반 피고사건에 대하여 조선총독부 검사대리 사법관 시보 화촌미수(花村美樹) 관여로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주문

피고를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피고는 손병희 등의 조선독립 선언 취지에 찬동하여 정치변혁의 목적으로 이의 시위운동을 하려고 기도, 대정 8년 3월 26일 오후 10시 경 피고가 거주하는 동리인 경기도 광주군 동부면 풍산리 이민에게 대하여 독립만세를 부르라고 권유하여 이를 선동한 다음 위의 이민 약 20명과 함께 같은 동리 산 위에 올라가 봉화를 올리고 이튿날 27일 오전 3시 경에 이르기까지 조선독립만세를 연달아 높이 부름으로써 안녕질서를 방해한 자이다. 위의 사실은, 피고가 당 법정에서 판시함과 같은 취지의 공술에 의하여 이를 인정한다.

법에 비추건대, 피고의 소위는 보안법 제7조, 조선형사령 제42조에 해당하는 바, 위 범죄 후에 발포된 대정 8년 4월 15일 제령 제7호에 의하면 동 제령 제1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6조·제8조·제10조에 따라 신·구 양법을 비교 대조하면 구법인 보안법 제7조의 형이 경하므로 동 법조를 적용하여 소정형 중 징역형을 선택, 그 범위 내에서 처단할 것으로 여겨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독립운동사자료집5, 삼일운동 재판기록)

米 米 決

米 米 決 米 米 決 米 米 決

金 弘 烈

三十七年

大 保 署 長 官 及 補 告 事 由 一 月 於 終

多 於 補 於 事 由 終 了 後 補 於 米 米 決

判 決 原 本

朝鮮總督府裁判所

樹 干 思 米 決 元 十 六 日 也

主 文

補 告 事 由 沒 一 年 之 久 矣

理 由

補 告 事 由 於 東 照 不 能 終 結 矣 矣 矣

矣 矣 矣 矣 矣 矣 矣 矣 矣 矣

ナ 之 カ 米 米 決 元 十 六 日 也

三十七年三月二十七日午後十時於補告

米 米 決 米 米 決 米 米 決

米 米 決 米 米 決 米 米 決

米 米 決 米 米 決 米 米 決

米 米 決 米 米 決 米 米 決

米 米 決 米 米 決 米 米 決

米 米 決 米 米 決 米 米 決

米 米 決 米 米 決 米 米 決

米 米 決 米 米 決 米 米 決

米 米 決 米 米 決 米 米 決

米 米 決 米 米 決 米 米 決

米 米 決 米 米 決 米 米 決

米 米 決 米 米 決 米 米 決

米 米 決 米 米 決 米 米 決

判 決 原 本

朝鮮總督府裁判所

呼 之 以 米 米 決 元 十 六 日 也

主 文

補 告 事 由 沒 一 年 之 久 矣

理 由

補 告 事 由 於 東 照 不 能 終 結 矣 矣 矣

矣 矣 矣 矣 矣 矣 矣 矣 矣 矣

ナ 之 カ 米 米 決 元 十 六 日 也

四月十日、知令第七号、依二同知令

第一号、依三同知令、依三同知令

第一号、依三同知令、依三同知令

第一号、依三同知令、依三同知令

第一号、依三同知令、依三同知令

第一号、依三同知令、依三同知令

第一号、依三同知令、依三同知令

第一号、依三同知令、依三同知令

第一号、依三同知令、依三同知令

第一号、依三同知令、依三同知令

第一号、依三同知令、依三同知令

第一号、依三同知令、依三同知令

第一号、依三同知令、依三同知令

0580

김홍렬 경성복심법원 판결문

大正八年刑控第三六五號

判決

京畿道廣州郡東部面豊山里 農業

金弘烈

當三十四年

右保安法違反被告事件二付大正八年五月二日京城地方法院被告ヨリ控訴ヲ申立テタルヲ

朝鮮總督府裁判所

以テ朝鮮總督府檢事水野重功干與シ審理ヲ遂ケ判決スルコト左ノ如シ

本件控訴ヲ棄却ス

被告ハ政治變革ノ目的ヲ以テ大正八年三月二十六日午後十時頃京畿道廣州郡東部面豊山里ニ居村落々民約二十名ニ

0581

對シ朝鮮獨立萬歲ヲ唱フヘキ
 旨ヲ告ケテ煽動シタル上右村
 民ト共ニ同里山上ニ至リ篝火
 ラ焚キ翌朝三時頃ニ至ル迄朝
 鮮獨立萬歲ヲ高唱連呼シ因
 テ治安ヲ妨害シタルモノナリ
 右ノ事實ハ原審公判始末書
 中被告ノ判示事實ニ符合ス
 ル事實ノ自認記載ニ依リテ
 之ヲ認定ス

朝鮮總督府裁判所

法ニ照ラスニ其所爲ハ刑法第六
 條第八條ニ依リ保安法第七條
 朝鮮刑事令第四十二條ト大正
 八年四月十五日制令第七號第
 一條トヲ對照シ輕キ前段ノ法
 條ニ依リテ處断スヘキ犯罪ナ
 ルヲ以テ其所定刑中懲役刑
 ヲ選擇シ被告ヲ懲役一年ニ
 處スヘキモノトス然レハ原
 判決ハ右判示ニ符合シ正當

ナルヲ以テ被告ノ控訴ハ理由ナ
 シ
 仍テ刑事訴訟法第二百六十
 一條第一項ニ則リ主文ノ如
 ク判決ス

大正八年六月二十一日

京城覆審法院刑事第三部

裁判長 朝鮮總督府判事

判事 朝鮮總督府判事

判事 朝鮮總督府判事

判事 朝鮮總督府判事

岡忠孝

朝鮮總督府裁判所

右謄本也

大正八年八月十五日

京城覆審法院檢事



福新

大正八年刑五三八号

判決

系畿道慶州郡東部南東山里

農業

被告人

金弘烈

吉平軍

高等法院

右係金弘烈及被告事件ニ付大正八年六月廿一日多必覆審法院ニ於テ言渡シタル判決ニ對シ被告人ヨリ上告ヲ申立タリ依テ當院ハ朝鮮總督府檢事草場林五郎ノ意見ヲ聽キ判決スルコト左ノ如シ

主文

本件被告人之テ棄却ス

理由

右係起意ハ自レノ行爲ハ朝鮮民族トシテ正義人道ニ基キ意思發動ニシテ

0584

犯案トシテ然レニ第一審及第二審ニ對シ更ニ有罪ノ判決ハ不當トシテ服從スル鶴ハ其ノ送送シテ行依テ止

然レトモ原判決ニ對シ被告ノ行爲ハ原判決ニ適用せん法條ニ該當スル治案野案ノ思ハ辨認せんモノ

ヲ以テ原審カ其適用せん法條ニ該當シテ受罰シムルニ正當ナリ被告於テ

被告ノ行爲ハ原審トシテ正當ナルモノ

認辯シテ原判決ヲ以テ議スルハ採用スルニ足ラザルヲ以テ本議者ハ其理由ナレ

稱讚人ニ滿願藏トモ進加趣意等一處ハ原審人犯意ノ有無ヲ審究セ

九送送シテ原判決ニ對シ改治

要革ノ目的ヲ以テ云々被告ヲ以テ

中者カ若クテ煽動シ云々被告ヲ以テ

以連係シ以テ治案ヲ妨害シ云々

丁トシテ行爲ニ關スル事實ヲ以テ

之對スル禁決ニ對シ云々止テ

結

高等法院

判決

被告

金弘烈

0585

行政法之要素 是れ可能性 有らん
モノトコトヲ認識し居らん中存中ノ事
實ノ如キハ之ヲ判示らんコトヲ要セザル
以テ原審ヲ所屬ノ事官ヲ判示らんコト
ナクハ在法條ノ同撰し居らん 理由不備
ヲ来さんコトナキニ依リ本論 告ハ其理
由ナシ

同第ニ是ノ原則ハハ被告ノ煽動者ナ
コトヲ認メザリ而シテ又被告ハ私を以
ルニ之ヲ認メザリ 判令第七号 第一條中

— 高等法院

煽動行為ハ同ノ第ニ第ニ次ニ後アリ此
ノ第ニ次ニ適用せん可らん或ハ裁
論ニシテ之ノ如ク同ノ人ニテ第ニ一ニ次
ノ行為ヲ候クモ其ノ如ク同ノ人ニテ第ニ一ニ次
ノ行為ニテ行爲中ニ包含せらレ此レ
今ノハ第ニ一ニ次ニ適用せんモノナリト
テハハ第ニ一ニ次ヲ掲記せんハ要せん中抑
又第ニ一ニ次ニ第ニ次ニ第ニ一ニ次ニ
ノ規定ナラズ故ニ第ニ一ニ次ニ適用ス
云々ニテ第ニ二ニ次ニ適用せんハ同ノ第ニ一

ルハ之ヲ第一ニテ適用スルハ何レトモ適
用法規ヲ細視せん可らん此ニ是レ何
ト云フニ在リ

然レ是レ大正八年判令第七号 第一條第
ニ次ニ第ニ次ニ同一性質ニテ其利ニ由
同レテ之ヲ依リ第一ニ次ニ第ニ一ニ次ニ
見行爲ニテ同條第一ニ次ニ第ニ一ニ次ニ
空ニ事ニ次ニ依當らんモノナリ人ニテ
宅族の、觀察ト一家トテテテテテ
中ニノテテテテテテテテテテテテ

— 高等法院

テハ同ノ第ニ一ニ次ニ適用スルハ其第ニ一ニ次
ナリト第ニ一ニ次ニテテテテテテテテテテ
ト云々ニテ、非テテテテテテテテテテテテ
被テテテテテテテテテテテテテテテテテ
テテテテテテテテテテテテテテテテテ
トテテテテテテテテテテテテテテテテテ
テテテテテテテテテテテテテテテテテ
テテテテテテテテテテテテテテテテテ
テテテテテテテテテテテテテテテテテ
テテテテテテテテテテテテテテテテテ
テテテテテテテテテテテテテテテテテ
テテテテテテテテテテテテテテテテテ

ハシ以テ予ニ對シテハ字ノ同テ第一條ノ適用シ
 其第一條ニテ予ニ對シテハ第二條ニテハ明テセズシ
 テ予ニ對シテハ字ノ同テ第一條ノ適用シ
 係リ本條 昔ハ其理由ナシ

高等法院

0590

右説明ノ如ク本件上告ハ理由ナキヲ以
 テ刑事訴訟法第二百八十五條ニ則リ主
 文ノ如ク判決ス

大正八年八月七日

高等法院刑事部

裁判長 朝鮮總督府判事

朝鮮總督府判事

朝鮮總督府判事

朝鮮總督府判事

朝鮮總督府判事

朝鮮總督府裁判所書記

高等法院

右



八月七日

等法院

朝鮮總督府裁判所書記

李國基



05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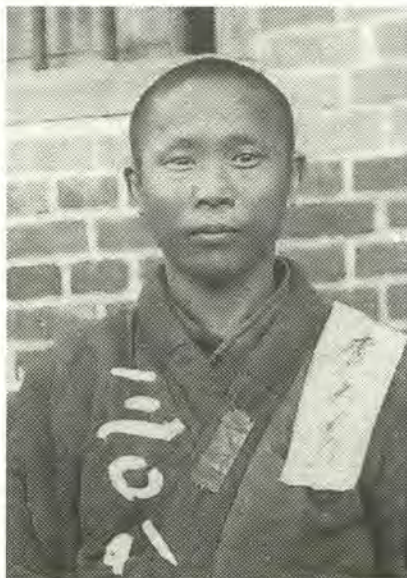
김홍렬 수형기록카드

受刑事項					身 分	住 所	出 生 地	本 籍
及其事由	出獄年月日	執行監獄	言渡裁判所	刑ノ始期				
滿期免假出獄	大正九年八月十八日	西大田監獄	神戶高等法院	大正八年八月七日	西班	職業	洋商	前科犯
備考					科	前科犯		

氏名	年 齡	1915年12月7日生	指 紋 番 號
尾 弘 烈	身 長	5尺6寸2分	104966
	特 徵		No. 5050



◆ 이대헌(李大憲)



1. 이대헌 공적조서

- 유공자명 : 이대헌(李大憲)
- 성 별 : 남
- 생년월일 :
- 사망년월일 : (양)1944년 06월 08일
- 본적 1. :
- 독립운동당시 주소 : 京畿 廣州郡 東部面 校山里 160

- 관리번호 : 1233
- 운동계열 : 3.1운동 소속 및 지위
- 독립운동기간 :6월
- 활동지역 : 京畿 廣州
- 수형년수 : 복역년수
- 추천훈격 : 애족장
- 사정훈격 : 애족장
- 공적개요 :

1919. 3. 27 京畿 廣州郡 東部面 校山里 區長職에 있으면서 독립운동만세시위를 계획하고 태극기를 만들어 山頂에 올라가 烽火하며 독립만세를 고창하고 하산 후 2회에 걸쳐 수십명의 시위군중을 집결시켜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시위를 주도하다 체포되어 징역 1년형을 언도받은 공적이 인정되므로 대통령표창에 해당하는 분으로 사료됨

2. 경성법원 판결문

판결

본적지 경기도 광주군 동부면(東部面) 교산리(校山里)

현주소 위와 같은 곳

농업 (무종교)

이대헌(李大憲) 11월 14일생 37세

위에 대한 보안법 위반 피고 사건에 대하여 조선총독부 검사대리

사법관 시보 등촌영(藤村英) 관여로 심리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주문

피고 대헌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 물건은 이를 몰수한다.

이유

피고는 상기 피고가 거주하는 동리의 구장인 바, 최창근(崔昌根)이란 자로부터 조선 각지에서 조선독립시위운동이 일어났음을 전해 듣자 피고가 거주하는 동리에서도 역시 조선독립시위운동을 하려고 피하여 정치변혁의 목적으로 대정 8년 3월 26일 위 피고가 사는 면의 면사무소 앞 길가에서 한국 국기 1류(증제1호)를 만들어 두었다가 이튿날 27일 오전 2시 경 이민 10수 명을 불러 모아 이를 인솔하고 위의 한국기를 휘두르며 피고가 사는 동리에 있는 무명산(無名山) 꼭대기에 올라가 봉화를 올리고 약 1시간 가량 함께 조선독립만세를 연달아 부르다가 오전 3시 경 그 산꼭대기에서 동면 면사무소 앞으로 몰려가 그 곳에서 약 30분 쯤 같이 조선독립만세를 절규한 다음 일단 해산하였으며, 동일 오전 11시경 다시 이민 약 30여 명을 규합, 출선하여 동면 면사무소 앞으로 가서 동일 오후 2시 경까지 일제히 조선독립만세를 미친듯이 부름으로써 정치에 관하여 불온한 언동을 하므로 말미암아 치안을 방해한 자이다. 위의 사실은,

1. 피고가 당 공판정에서 말한 판시함과 같은 취지의 자백,

1. 헌병 상등병 후등정차랑(後藤政次郎)이 대정 8년 4월 5일 부로 광주헌병분견소장 앞으로 낸 보고서 중에, '피고는 판시한 일시에 동

리의 사환을 시켜 이민을 모아 동리의 앞 산에서 봉화를 올리고 약 1시간 가량 군중과 함께 조선독립만세를 높이 불렀으며, 동일 오전 3시 30분 경부터 동부면 사무소 앞에서 많은 군중과 같이 조선독립만세를 부르고, 동일 오전 11시 경부터 동일 오후 2시 경까지 동면 사무소 앞에서 또 다시 독립만세를 연달아 부른 자이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것, 압수한 조선국기가 현존하는 것 등에 징험하여 증빙이 충분하다.

법에 비추건대, 본건은 범죄 후의 법률로 말미암아 형이 변경되었으므로 형법 제6조·제8조·제10조에 의하여 신·구 양법을 비교 대조하면 구법에 있어서는 보안법 제7조, 조선형사령 제42조에 해당하고 신법에 있어서는 대정 8년 4월 15일 제령 제7호 제1조에 해당하므로 구법인 보안법의 형이 경하므로 동법 제7조, 조선형사령 제42조를 적용, 소정형 중 징역형을 선택하여 그 형기범위 내에서 처단할 것이며, 압수물건은 범죄에 공용된 피고 소유의 것이므로 형법 제19조에 의거 몰수할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독립운동사 자료집 5 삼일운동재판기록)

判決

本籍地系畿道廣山郡東部面校山里

現係不右因不 農 (甲宗教)

李 天 憲

十月十日 五十七年

判決 原本

朝鮮總督府裁判所

右ノ對スル保身法違反被告事件

付朝鮮總督府府務事代理司法官 試補

藤村 箕千世 被告 判決スルモノ如シ

事 文

被告天憲、懲役二年、處ス

押收物件ハ之ヲ投收ス

理由

被告ハ、府署ヒテ被告店住里邑長

0040

三

テハ處 崔昌根ナル者ヨリ朝鮮各

地ニ於テ朝鮮獨立ノ示威運動

勃發スルヲ聞知スルヤ 被告店村

所ニモ亦朝鮮獨立ノ示威運動ヲ

為サント企圖シ政治變革ノ目的

ヲ以テ大正八年三月二十六日右被告

店而テ事勢不測ノ路傍ニ於テ韓

判決 原本

朝鮮總督府裁判所

玉々族一統(韓宗一神)ヲ作成シ置キ

翌二十七日午前二時頃里民千數

名ヲ集集シ之ヲ引率シテ右韓

宗旗ヲ振舞ヒ被告店村不立ノ

島名山頂ニ登リ篝火ヲ焚キ約一時

間許リ共ニ朝鮮獨立萬歲ヲ連

呼ビ午前三時頃同山頂ヨリ同向

0041

而事營不為、殺到レ河所、於テ約

三十分間許、兵、朝鮮獨立黨

歳ヲ絶叫レタル上、一ト先ブ解散レ

同日午前十一時頃、河民約三十

餘名、糾合、率先シテ河面ヲ事

勢所為、到リ同日午後二時頃

迄、一高、朝鮮獨立黨歳ヲ狂呼

判決原本

朝鮮總督府裁判所

レ以テ敗退、圍レ不穩、言動ヲ為シ

用、殆無ク妨害レタルニトス

右尋突ハ

一、被告、當公廷、於ケル別小同旨、

白

一、憲兵上等兵後藤政太郎、文正八年四

月五日附廣州憲兵官造所長先、

三六

被告事中、被告ハ別小日時里、

小使ヲ使役シ、里民ヲ聚合シ、寫不

立、前山ニ於テ著火ヲ焚キ、約一

時間許、衆ト兵、朝鮮獨立黨

歳ヲ高唱シ、同日午前三時三十一

分頃ヨリ、衆部向々事營不為、於

テ多衆トヒ、朝鮮獨立黨歳ヲ

判決原本

朝鮮總督府裁判所

唱、同日午前三時頃、同日午後

午後二時頃迄、河而事營不為、

於テ河ニ獨立黨歳ヲ高唱レタルニ

トシ、一、被告、

了、ト却收、朝鮮不穩、現在スル

等、徴レ、控馮ハ十分ナリ

法ニ照ス

大正八年刑控第三四號

判決

京畿道廣州郡東部面板山里
房住 今上在籍 農 李 大 憲

二月十四日 三十七年

右保安法違反被告事件ニ付大正八年
四月二十九日有城地方法院ニテ有罪
ノ判決ニ對シ被告ヨリ控訴ノ申立アリ
以テ朝鮮總督府檢事 誼谷 有 子
ニ以テ

與審理判決スルニ付、如シ

朝鮮總督府裁判所

主文

原判決ヲ取消ス。被告ノ懲役一年ニ處
ス。押收物件ハ之ヲ沒收ス。

理由

被告ハ肩書被告房里ノ區長ナル處大
正八年三月申崔昌根ナル者ヨリ朝鮮內
各地ニ於テ舊韓國ノ旗ヲ打振リ朝鮮獨
立萬歲ト高唱スル朝鮮獨立示威運動
ノ行ハレ居ル事ヲ聞知シ其趣旨ニ賛同シ

之ト同一行動ヲ執ラントシ今テ同年
三月二十六日肩書被告房里ノ事務所
前、跡傍ニ於テ舊韓國ノ旗一旗(證物
一號)ヲ作成シ翌ニ十七日午前ニ時頃ヨリ
同日午後ニ時頃迄里民十數名ヲ糾合
シテ之ヲ引率シ前記舊韓國ノ旗ヲ振リ
醫シ被告居在所在、然石山項及被
告居里、面事務所前ニ於テ前示群衆
ト共ニ朝鮮獨立、示威運動方法トシテ共
ニ朝鮮獨立萬歲ト高唱シ因テ治安ヲ

朝鮮總督府裁判所

如書ニテスルニ付

右事實ハ常法ニ於ケル被告ノ判示犯罪
事實ト同趣旨ノ供述並証物一併舊
韓國ノ旗、現在ニヨリ之ヲ認ム

法律ニ照スニ被告ノ所爲ハ犯罪後ノ法令ニ

ヨリ刑ノ變更アリタル故ニ刑法第八條第
六條ニ則リ新舊法ノ刑ヲ比照シ輕キモノヲ

適用スルハ新法ニテハ大正八年刑令第
七號第一條第一項ニ舊法ニテハ朝鮮

刑事令第四十二條ヲ以テ刑名ヲ變更

シテル保身法律七條ニ該當シ刑法第九條
第九條ニ據リ對照スルニ舊法、刑輕キヲ
以テ前示保身法ヲ適用シ所定二年以下
ノ懲役刑ヲ選擇シ其刑期範圍内ニ於テ
被告ノ懲役一年ニ處スルヲ押收物件ハ被
害、所有シテ犯罪行為ノ供用物ナルヲ以テ
刑法第九條第一項第一號第二項ニ則リ
沒收スヘキモノトス

然レハ原告判決ニ於ケル犯罪事實ノ認定
ハ正當ナルニ科刑重キニ失スルヲ以テ被告
ノ控訴ハ理由アリ

仍テ刑事訴訟法律第百六十一條第二項ニ
則リ本文、如ク判決ス

大正八年七月九日

京城覆審法院刑事部

原告 山崎均
被告 山崎均
大正八年七月九日

右勝本也

朝鮮總督府裁判所

大正八年九月九日

判官 山崎均

朝鮮總督府裁判所

大正八年利上第七二九號

判決書

京畿道廣多郡系御面

校山聖農

被告人

李大憲

三十七年

高等法院

看係安法遠及被告事件ニ付大正八年七月

九日初級覆審法院ニ於テ言渡シタル判決ニ

對シ被告人ヨリ上告ヲ申立タリ依テ當院ハ朝

鮮總督府檢事草場林五郎ノ意見ヲ聽キ判決ス

ルコト左ノ如シ

主文

本件上告ハ之ヲ棄却ス

理由

0050

三列

高等法院

上告趣意ハ自己ノ行爲ハ朝鮮民族トシテ
正義人道ニ基ク意思發動ニシテ犯罪ニ
アラズ然ル。第一審及第二審ニ於テ受タ
ル有罪ノ判決ハ不當ニシテ服従スル能ハ
ルハ違法ノ云ノナリ依テ上告スト云フニ在
リ

然レトモ原判決ニ記載セシ原告認定ノ事實ハ
原告通商ノ法條ニ被指スル犯罪ヲ構成スルコト
明カニシテ原告カ被告ノ計ハコトナリ依テ
適用被遮断シタル相違ニシテ原告ハ自己ノ
事實ヲ主張シ被告一個ノ意見ニ原告ヲ基據スル
ノ非トイフナルコトヲ論述スル過キスレシハ原告
アリタルヲ以テ理由ナリ

0051

右説明ノ如ク本件上告ハ理由ナキヲ以テ刑事訴訟法第二百八十五條ニ則リ主文ノ如ク判決ス

大正八年九月十一日

高等法院刑事部

裁判長 朝鮮總督府判事 渡邊 正揚

朝鮮總督府判事 石川 正揚

朝鮮總督府判事 横田 俊史

朝鮮總督府判事 水嶋 正之丞

朝鮮總督府判事 原 正典

朝鮮總督府裁判所書記 高等法院

加茂見 佐

右謄本也

大正八年九月十一日

高等法院

朝鮮總督府裁判所書記 李周敏



이대헌 수형기록카드

受刑事項					身分	住所	出生地	本籍
及其事由	出獄年月日	執行監獄	言渡裁判所	刑ノ始期				
滿期因免假出獄	大正九年九月十八日	西芳内 監獄	高津區役所 法院	大正八年九月十五日	大正八年九月十五日	禁錮 懲役	倭妻持送 友	廣島縣中野郡枝山町石台
備考					職業	男		
前科					犯			

411200

氏名	李 大 憲	年 齡	29 年 1 月 14 日 生	指 紋 番 號	
		身 長	5 尺 2 寸 5 分		No. 10678
		特 徵			44788



3042

◆ 義烈투쟁인물

구승회(具承會)

신 분 : 용일양조장 고용인

본 적 : 광주군 서부면 감일리 246번지

형 기 : 2년

수형장소 : 서대문형무소

활동분야 : 의열투쟁

1. 독립운동사 제7권 의열투쟁사. 802쪽

다음에, 1935년 서울 공덕동(孔德洞)에 있던 용일양조장(龍一釀造場)에서 의혈 청년 6명이 소위 조선총독부 고관을 폭살하려는 계획이 추진되었다. 그런데, 이것은 당시 보도 관제로 말미암아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귀에 설게 들릴지도 모른다.

이 계획의 주동자는 조안득(曹安得)으로 당시 27세의 청년이었으며 그는 용일 양조장에서 배달부로 일하고 있었다. 그는 의기 상통하는 친구 이금진(李金振)·윤낙삼(尹樂三)·최영진(崔榮鎭)·인진명(印振明)·국승회(具承會) 등과 함께 용일 양조장에 모여 계획을 세웠는데, 그들은 평소 안중근(安重根)·윤봉길(尹奉吉)·이봉창(李奉昌) 의사를 숭배하여 그 분들과 같은 방법으로 일본 제국주의 도배를 폭살하는 기회를

소망하고 있었다. 그들이 비록 양조장에서 노무자로 일하고 있을 지라도 일제가 한국을 침략한 위에 또 만주를 침공하고 있는 사실에 의분을 참지 못하고 있었으며 항상 토론을 벌이며, 민족주의에 사회주의적 색채도 다소 가미하여 항일 의식이 철저하였다. 그리하여, 투쟁 대상과 방법을 결정하였는데 당시의 조선 총독 우원(宇垣一成)과 정무총감 이하 각 고관을 폭살하고 철도와 체신국 등 주요 기관을 폭파하는 것이었다.

그러한 계획의 구체적 절차는 알 수 없으나, 그들은 광산(鑛山)에서 화약을 구하여 폭탄을 만들었다. 그리하여 우선 우원총독 등 총독 부 고관을 폭살하려고 했는데, 때마침 우원이 제 나라 일본에 갔다 돌아오는 것을 서울역에서 폭살하려다가 여의하지 않아 거사치 못하고 다시 그 우원이 온양(溫陽) 온천에 휴양하고 돌아오는 것을 서울역 앞 세브란스 병원 근방에서 폭살하려다가 또 여의하지 않아 뒤로 미루었다. 왜 거사하지 못 하였는지 확실하지 않으나, 처음과 두 번째의 거사 계획 장소가 약간 이동하고 있는 점을 보아 경비 상황이 폭살하는 데 적당치 않았던 것 같다. 즉 총격이 아니고 폭살이니 난 점이 있었을 것이고, 더구나 당시는 이봉창·윤봉길의 의거가 있는 지 얼마 안 되었고 또 대련(大連)이나 국내 곳곳에 일제 고관을 총격, 또는 폭살하려고 상해에서 특파된 의사가 계속 검거되고 있던 실정이었으니, (본편 제2장 참조) 일제는 특별한 경계망을 펴고 있었던 것을 추측하기 어렵지 않을 것이다.

두 번이나 성사하지 못한 그들은, 다시 폭탄을 완벽하게 조정하고 효창공원(孝昌公園)에서 시험 폭파까지 해 보니 그 위력이 대단하여

거사에 자신을 갖고 기회를 찾고 있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발각되고 말았는데 이 계획의 주동자 조안득이 평소에 사람들에게 일제 침략을 규탄하는 이야기를 자주했던지, 일제 사복 경찰이 이발소에서 조안득의 사상 동향이 이상하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그러한 말을 들은 사복 경찰(형사)은 끈질기게 조안득의 뒤를 조사하며 그 거동을 살피다가 용일 양조장을 기습하여 6명을 모두 체포하니 이것은 1935년 12월 28일의 일이었다.

1930년대 초기는 국내외에서 의열투쟁이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전개되던 시기였다. 그러나 모두 전술한 바와 같이 한인애국단·병인의용대·남화한인청년연맹 등의 조직에 의해서 추진되었는데, 조안득 등의 의거는 해외나 국내의 어느 단체를 배경으로 하지 않았고, 또 어떤 저명한 지도자의 지도를 받고 있지도 않은 독자적 의혈 의기에서 출발하였고 계획 추진했다는 데에 더욱 의미가 깊은 것이다. 그리고, 의열투쟁을 추진하기가 비교적 용이한 해외가 아니라 국내에서 6명의 청년이 공동으로 추진했다는 점에도 남다른 의미가 있고, 더구나 노무직에 종사하던 청년이었다는 데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일이 있고 난 뒤, 일제는 이것에 대한 보도를 철저히 통제하여 일반인은 알기조차 못했다. 1936년 8월 7일 비로소 간단히 발표했는데 그것도 아주 줄여 대수롭지 않은 일이었는양 간략히 공개했던 것이다.

6명의 청년은 1936년 5월 16일에 각기 선고를 받았는데 조안득 10년, 최영진 3년 6월, 윤락삼 2년 6월 그 외 각각 2년의 연도를 받았다.

2. 독립운동사 자료집 14 대중투쟁사자료집 908쪽

1935	조안득(曹安得)	경성용일양조소	용산경찰서	《동아일보》
.12.2	이금진(李金珍)	(京城龍一釀造所)	체포	1935. 8.18.
8.	최영진(崔榮鎭)	배달원		
	윤학수(尹鶴洙)			
	구승회(具承會)	총독암살 계획		
	조천복(曹千福)			
	인진명(印振明)			

3. 우승규(禹昇圭) 《나절로만필》 (《동아일보》 1974년 6월 29일자와 7월 6일자).참조

구승회 수형기록카드

31210

氏名	貝承會		異名		指番紋號	1-9-9-9-9-9-9	
年齡	明治 44年 12月 9日 生		手口番號	第 號			
身分	流刑場產人		身長	尺 寸 分	特徵番號	第 號	
木籍	京 藏	縣 廣 州 市 西 新 町 面 甘 一 村 里 246	雷地	常 用 手 口 概 要			
生地	〃	縣 道 〃 市 郡 〃 町 面 〃 村 里 〃	雷地				
住居	京 城 方	縣 道 〃 市 郡 橋 南 町 面 〃 村 里 112	雷地				
最	罪 名	流刑維持法違反		其他前科	檢 舉		
	刑名刑期	懲役 禁錮 2年 月 日		初 犯			
官渡官署	京城地方法院						
近	官渡年月日	昭和 11年 5月 26日					
入所年月日	昭和 5年 5月 5日						
出所年月日	昭和 13年 6月 25日						
刑	刑務所名	西大門 刑務所 支所					
檢 舉 官 署	道 警 察 署						

51



昭和 11年 2月 15日 於テ撮影 保存原板 (11) 第 25989 番

◆ 광주(光州) 학생운동관련

1. 구장회(具鏘會)



- 제 목 : 京城市內 各 中等學校 學生을 網羅
- 연 월 일 : 1928-12-06
- 출 전 : 東亞日報 1928.12.7
- 내 용 :

경성 시내(京城市內) 각 중등학교(中等學校) 학생을 망라(網羅)하여
금년 2月 21日 C·S共産黨(學生共産黨)을 조직하여 전조선학생(全朝
鮮學生)을 적화(赤化)코자 각 중등학교(中等學校) 內에 세포단체(細胞
團體)로 학생비밀결사(學生秘密結社)를 배치(配置)한 사건의 관계자
(關係者) 中 重要간부(重要幹部) 5名은 도피(逃避)하고 다음 13名이
경성지방법원 검사국(京城地方法院 檢事局)으로 송치(送致)되다.

...

本籍 京畿 廣州郡 西部面 廿一里 361

現住 京城 苑洞 14

朝鮮學生社會科學研究會員

普成高普 5年

具辦會(23)

...

2. 광주학생독립운동동지회, 광주학생독립운동사, 편 광주시,
국제문화사, 1974

역사 항일 식민지 독립운동 신문기록 참조

구장회 수형기록카드

考		備		果 結 分 處				引致官署	引致官署	引致年月日	戶主ノ 附柄	職業	年 齡	住 所	生 地	本籍
其 他	出獄後ノ歸住地	共犯者氏名	犯罪常用手段	前科種別及犯數	項 事	刑 受	釋 放									
				計 犯	官 渡 官 署	刑 名、刑 期(金 額)	大 正 年 月 日	大 正 年 月 日	大 正 年 月 日	大 正 年 月 日	四 日 力	生 子 生	三 年 二 月 三 日 生	宮 城 村 花 洞 一 四	宮 城 道 廣 州 神 西 郡 面 甘 蘇	
							大 正 年 月 日	大 正 年 月 日	大 正 年 月 日	大 正 年 月 日	父 母 氏 名 具 藤 善 吉	戶 主 氏 名 具 藤 善 吉	身 分 七 市 氏			

氏 名	具 藤 會	身長特徵	五 尺 一 寸 分	指紋番號	No. 27839 23548
異名	—				



明治33年12月5日西大門署ニ於テ撮影|保存原板(11)第9576號

◆ 사회, 교육 운동 관련자료

1. 동부면 천현리, 풍산리 소작 쟁의 사건

- 문서철명 : 治安情況(昭和 十三年 九月, 京畿道)
- 문서제목 : 附表 - 昭和 十二年中 主要 小作爭議 概況
- 발 송 일 : 1938년 09월
- 관련단체 : 東洋拓殖株式會社
- 사 건 : [小作契約 更新, 小作料 査定에 대한 不滿]
- 지 역 : 京畿道 廣州郡 東部面 泉峴里 東拓農場,
京畿道 廣州郡 東部面 豊山里 東拓農場
- 기 타 : 地主, 小作人, 定租, 小作料, 小作權
- 첨부자료 小作爭議 調査表(昭和 十二年)

2. 시장의 개설

가. 창우시장 개시

- 날 짜 : 1913-99-99
- 연표소개 : 창우(倉隅市場). 매월 2, 7일 (월6회) 개시.
경기도 광주군 동부면 창우리 소재.
- 출 전 : 朝鮮總督府, 《朝鮮地誌資料》, 1919년

나. 신장시장 개시

- 제 목 : 京畿道 廣州郡 東部面 新長리에
- 연 월 일 : 1928-09-99
- 출 전 : 朝鮮總督府官報 1928.10.2
- 내 용 : 京畿道 廣州郡 東部面 新長리에 新長市場이 설치 허가
되다.

3. 신간회 활동¹³⁶⁾

가. 신간회 광주지회 설립

- 제 목 : 新幹會 廣州支會가 設立되었는 바
- 연 월 일 : 1927-08-24
- 출 전 : 東亞日報 1927.8.27
- 내 용 : 新幹會 廣州支會가 設立되었는 바 會長에는 韓順會,
副會長에 石蕙煥이 선임되다.

나. 신간회 광주지회 정기대회 개최

- 제 목 : 新幹會 廣州支會에서 정기대회를 열다.
- 연 월 일 : 1928-12-20

136) 국사편찬위원회, 일제침략하 한국 36년사

- 출 전 : 東亞日報 1928.12.26
- 내 용 : 新幹會 廣州支會에서 정기대회를 열고 文盲退治, 消費組合, 迷信打破 등을 결의하다.

다. 경기도 광주지회장 석혜환

- 제 목 : 京畿道 廣州新幹支會長 石惠煥은
- 년 월 일 : 1929-03-05
- 출 전 : 東亞日報 1929.3.5
- 내 용 : 京畿道 廣州新幹支會長 石惠煥은 元山罷業에 격문을 발송한 혐의로 10日間 구류처분을 받다.

라. 임시대회 개최

- 제 목 : 新幹會 廣州支會가 臨時大會를 열고
- 년 월 일 : 1929-08-08
- 출 전 : 東亞日報 1929.8.14
- 내 용 : 新幹會 廣州支會가 臨時大會를 열고 執行委員長 俞仁穆 등을 改選하다.

마. 상무집행위원회가 금지 당함

- 제 목 : 新幹會 廣州支會 常務執行委員會가 警
- 년 월 일 : 1929-10-20
- 출 전 : 東亞日報 1929.10.26

- 내 용 : 新幹會 廣州支會 常務執行委員會가 警察에 의해 禁止당하다.

바. [全朝鮮水災救濟會發起會] 集會取締 狀況報告(通報)

- 문서철명 : 思想에 關한 情報綴 第7冊
- 문서제목 : [全朝鮮水災救濟會發起會] 集會取締 狀況報告(通報)
- 문서번호 : 京鍾警高秘 제10984호
- 발 송 자 : 京城 鍾路警察署長
- 발 송 일 : 1930년 07월 21일
- 수 신 자 : 京城地方法院 檢事正
- 수 신 일 : 1930년 07월 22일
- 관련인물 : 兪仁穆
- 관련단체 : 全朝鮮水災救濟會, 新幹會, 東亞日報社, 朝鮮日報社, 中外日報社, 新幹會 京城支會, 朝鮮物産獎勵會, 每日申報社, 조선교육협회, 조선청년총동맹, 여자기독교청년회, 미곡상조합, 형평사, 漢城醫師會, 한성은행, 韓一銀行, 전당포조합, 한약조합, 천도교청년당, 천도교청년동맹, 상업은행
- 사 건 : 全朝鮮水災救濟會 發起
- 첨부자료 : 全朝鮮水災救濟會 委員 및 出席者 名單

사. 신간회 본부 통문의 건

- 문서철명 : 思想에 關한 情報綴 第7冊
- 문서제목 : 新幹會本部 通문의 건

- 문서번호 : 京鍾警高秘 제11121호의 1
- 발 송 자 : 京城 鍾路警察署長
- 발 송 일 : 1930년 07월 28일
- 수 신 자 : 京城地方法院 檢事正
- 수 신 일 : 1930년 07월 29일
- 하남관련 인물 : 유인목(신간회 집행위원장)
- 관련단체 : 新幹會, 全朝鮮水災救濟會
- 사 건 : 寄附金 募集
- 기 타 : 水災被害狀況, 救濟金, 寄附金募集規則
- 첨부자료 : 水災被害狀況及救濟에 관한 指令(1930.7.21)

아. 신간회 대표회원 선거상황에 관한 건

- 문서절명 : 思想에 關한 情報綴 第10冊
- 문서제목 : 新幹會代表會員 選舉狀況에 관한 건
- 문서번호 京鍾警高秘 제-14794호
- 발송자 京城 鍾路警察署長
- 발송일 1930년 10월 11일
- 수신자 京城地方法院 檢事正
- 수신일 1930년 10월 13일
- 관련인물 : 유인목
- 사 건 : 新幹會 代表會員 選舉, 新幹會 全國代表大會 開催
- 기 타 : 新幹會運動, 中堅人物 ○ 첨부자료 : 支會로부터 選定 報告된 代表會員, 本부에서 지정된 대표회원

신간회 본부통문 자료

* 본 자료에 신간회 광주지회 회원이 65명이었음을 알 수 있음.

檢事正

總務檢事

總務檢事

新刊會本部通文(第一)

昭和五年七月廿八日

京城鍾路警察署長

新刊會本部通文一件

六月廿八日

新刊會本部通文一件
紙水災被害伏及救済ニ関スル指
令ニ通信ヲ郵送セシムルノ旨中
救済金ルヲ收集シ金尺縣水



一階 監 官 監

4. 교육활동 관련 자료¹³⁷⁾

가. 동부공립보통학교 인가(조선총독부 관보)

- 제 목 : 京畿道 廣州郡 東部面 德豊리에
- 연 월 일 : 1933-09-19
- 출 전 : 朝鮮總督府官報 1933.10.4
- 내 용 : 京畿道 廣州郡 東部面 德豊리에 東部公立普通學校의 設立이 認可되다.

나. 동부공립보통학교 인가(조선중앙일보 보도)

- 신 문 명 : 조선중앙일보
- 기사제목 : 동부공보인가(東部公普認可), 12월 중 개교
- 발행년월일 1933-10-15
- 내 용 :
광주군 동부면에는 교육기관이 없어 면민들은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던 바 수년 전부터 동면장과 유지들의 발기로 건축비를 면민들이 거출(釀出)한 후 당국에 인가신청 중이던 바 지난 9월 20일에 인가가 되었으므로 래(來) 12월중에 개교 예정이라고 한다.

137) 교육 관련 기사는 신문에 보도된 문장을 원래의 의미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필자가 현대 문장으로 고침

다. 동부공립보통학교 개교식 성황

- 신 문 명 : 조선중앙일보
- 기사제목 : 동부공보의 개교식 성황
- 발행년월일 : 1934-05-22
- 내 용 :

광주군 동부면에서는 당지에 초등학교 하나 없어서 새싹이 트는 어린이들의 배움의 굶주림을 지극히 유감으로 생각하던 바 지금으로부터 2년 전에 보고 기성회를 조직하고 관민 유지의 활동으로 요사이 와서 교사(校舍)까지도 준공되었으므로 지난 19일에 광주군수 박제승씨 사회로 관민유지의 다수 참여하에 개교식을 성대히 거행하였다 한다.

라. 하산곡 간이학교

- 신 문 명 : 조선중앙일보 1934년 3월 1일
- 기사제목 : 광주군에 간이학교 2교 설치, 염곡, 산곡 兩里로 내정
- 발행년월일 1934-03-01
- 내 용 :

광주군에서는 2개소의 간이공보교(簡易公普校)를 설치할 예정으로 언주면 염곡리와 동부면 하산곡리로 내정하고 당국에 신청 중이라는 바 교실은 임시로 전기(前記) 양개리(兩個里)의 강습소를 빌려 오는 4월부터 개학 할 터이라고 한다.

마. 사설강습소 폐지명령

- 제 목 : 京畿道 廣州廳은 郡內 私設講習所
- 년 월 일 : 1936-12-26
- 출 전 : 朝鮮日報 1937.1.7
- 내 용 : 京畿道 廣州廳은 郡內 私設講習所 20餘個에 대하여
閉鎖命令을 내리다.

5. 수리조합 관련¹³⁸⁾

가. 광주수리조합 설립

- 회사조합명 : 廣州水利組合
- 사장/대표 : 方奎煥
- 업 종 : 수리조합
- 설 립 일 : 1927-03-31
- 본점주소 : 경기도 광주군 동부면 망월리
- 출 전 : 해방전조합자료

나. 일본인 중역 근무

- 회사조합명 : 廣州水利組合
- 사장/대표 : 方奎煥
- 중 역 : 石川政次郎

138) 국사편찬위원회, 한국근현대 회사조합자료

다. 본점 이전

- 회사조합명 : 廣州水利組合
- 사장/대표 : 李宜均
- 중 역 : (이사)洪淳瓊
- 설 립 일 : 1927-03-31
- 본점주소 : 경기도 광주군 동부면 덕풍리

라. 망월수리조합 총회 개최

- 제 목 : (경기도 광주군) 東部面과 九川面을 포함하는 望月水利組合
- 출 전 : 일제하사회운동사자료집 3 p.120 동아일보 1923.2.18.
- 내 용 : (경기도 광주군) 東部面과 九川面을 포함하는 望月水利組合 건설 설계가 완공되어 水利組合 총회 개최. 200여명의 地主가 참석하여 水利法規와 利害에 관한 설명 듣고 대표위원 20명을 선출(委員長 方奎煥).

마. 광주수리조합기공

- 제 목 : 경기도 廣州郡 廣州수리조합 기공(몽리구역 : 광주군 구천면 일대)
- 날 짜 : 1928년 11월 16일

- 출 전 : 동아일보 1928. 11. 21. 일제하사회운동사자료집 3 p. 121.
- 내 용 : 경기도 廣州郡 廣州수리조합 기공(몽리구역 : 광주군 東部面·九川面 일대 722町 7反 9畝).

바. 방규환기념비

- 위치: 창우동 516
- 건립년도 : 1936년
- 건립자 : 광주군 수리조합유지일동
- 방규환 :
온양 방씨. 광주수리조합장 역임. 광주군 동부면, 구천면 일대 한강 변 땅을 관개시설 설치 인가를 도모한 공로를 기념하여 세운 비

6. 백제수양단 창립

- 제 목 : 京畿道 廣州郡 內에 百濟修養團이
- 연 월 일 : 1928-08-21
- 출 전 : 東亞日報 1928.8.26
- 제 목 : 京畿道 廣州郡 內에 百濟修養團이 創立되다.
- 신문내용 :
경기도 광주군 경안면 역리에서는 동지청년 제씨의 활약으로 수양단을 조직하고 지난 21일 오후 8시에 정윤식(鄭胤植)씨 집에서 최병두(崔炳斗)씨의 개회사로 창립총회를 개(開)하고 한철기(韓哲基)씨의

취지설명이 있는 후 임원선거며 사업방침에 대하여 원만히 토의하고
 동 10시에 무사 폐회 하였는 데 피선된 임원은 다음과 같다 하더라.

인원=단장 최병두, 부단장 한?聲, 智育部長 金得福(김득복), 德育部
 長 李永德(이영덕), 體育部長 金熙在(김희재), 産業部長 姜遠(達?)馨
 (강원(달?)형), 幹事 崔貴用(최귀용)

7. 금단농우회 창립

- 제 목 : 京畿道 廣州郡 東部面 下山谷里에서
- 년 월 일 : 1930-05-13
- 출 전 : 朝鮮日報 1930.5.22

用錄	日期	概況	會名
廣州農友會	五月十三日	<p>廣州農友會의 창립은 京畿道 廣州郡 東部面 下山谷里에서 五月十三日에 行하여 金得福을 단장으로 崔貴用을 幹事로 選出하고 李永德, 姜遠, 金熙在, 韓?聲을 副團長으로 選出한 바 있다.</p> <p>會名 廣州農友會</p>	<p>廣州農友會 京畿道 廣州郡 東部面 下山谷里에서 五月十三日</p>
<p>廣州農友會 京畿道 廣州郡 東部面 下山谷里에서 五月十三日</p>	<p>廣州農友會 京畿道 廣州郡 東部面 下山谷里에서 五月十三日</p>	<p>廣州農友會 京畿道 廣州郡 東部面 下山谷里에서 五月十三日</p>	<p>廣州農友會 京畿道 廣州郡 東部面 下山谷里에서 五月十三日</p>

○ 내 용 :

京畿道 廣州郡 東部面 下山谷里에서 農民 50餘名이 黔丹農友會를 創立하다.(국사편찬위원회, 국내외 항일운동문서, 「昭和9년 3월 치안 상황」 문서 16쪽)

8. 공산당 관련 활동

가. 남한산노동공조회

○ 제 목 : 京畿道 廣州郡 中部面 山城里에서

○ 년 월 일 : 1936-03-06

○ 출 전 : 東亞日報 1936.3.6

○ 내 용 : 京畿道 廣州郡 中部面 山城里에서 南漢山勞動共助會를 組織하고 面民을 망라하여 共產思想을 선전하였다는 혐의로 체포되었던 石啓煥 등 10명이 京城地方法院으로 送局되다.

나. 광주공산당협의회

○ 제 목 : 京畿道 廣州共產黨協議會를 조직하여

○ 년 월 일 : 1936-03-16

○ 출 전 : 東亞日報 1936.3.17

○ 내 용 : 京畿道 廣州共產黨協議會를 조직하여 활동하였다는 혐의로 체포되었던 石惠煥 등 12명에 대한 治安維持法違反事件이 公判에 廻附되다.

9. 기타

가. 초이동 주재소 설치

- 제 목 : 廣州警察署 草二警察官駐在所
- 년 월 일 : 1923-01-01
- 출 전 : 朝鮮總督府官報 1923.1.9
- 내 용 : 廣州警察署 草二警察官駐在所(廣州郡 西部面 草二里)가 開所되다.

나. 신장우편취급소 설치

- 제 목 : 平北 慈城郡 梨坪面 榛松洞에 梨坪
- 연 월 일 : 1939-03-06
- 출 전 : 朝鮮總督府官報 1939.3.21
- 내 용 : … 廣州郡 東部面 新長리에 新長郵便取扱所, … 取扱所가 각각 설치되다.

다. 신장우편국 설치

- 제 목 : 京畿道 廣州郡 東部面 新長리에
- 연 월 일 : 1941-03-26
- 출 전 : 朝鮮總督府官報 1941.3.20
- 내 용 : 京畿道 廣州郡 東部面 新長리에 新長郵便局, … 郵便局이 각각 설치되다.

라. 미사촌교회 설립 계출(届出)

- 제 목 : 京畿道 廣州郡 草月面 龍水里에
- 연 월 일 : 1942-04-10
- 출 전 : 朝鮮總督府官報 1942.7.9
- 내 용 : 京畿道 廣州郡 草月面 龍水里에 朝鮮耶蘇教長老會의 龍水里教會, 京畿道 廣州郡 東部面 漢沙村에 朝鮮耶蘇教長老會 漢沙村教會가 設立 届出되다.

마. 선산진흥회(善山振興會)

선산진흥회의 활동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다. 다만 이성산성 아래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활동하였던 모임으로 추정된다. 이성산성 아래 춘궁동(선산동) 마을에는 휘문고등학교 설립자인 민영휘(閔泳徽)의 생가터가 있고 인근에 1938년 김규연(金奎演)이 짓고 민형식(閔衡植)이 쓴 '琴南先生閔承宣廣植慈惠碑(금남선생민승선광식자혜비)'가 남아 있는데 이 비석을 '선산진흥회'에서 건립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민광식은 휘문고등학교의 교감을 지냈고, 공회당을 짓고 야간학교를 설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광주공산당협의회 활동자료

가. 국사편찬위원회, 국내외 항일운동 문서

1. 秘密結社 組織에 관한 件

- 문서철명 : 警察情報綴 拱(昭和 11년)
- 문서제목 : 秘密結社 組織에 관한 件
- 문서번호 : 永警高秘 제173호
- 발 송 자 : 永登浦 警察署長
- 발 송 일 : 1936년 01월 10일
- 수 신 자 : 京畿道 地方法院 檢事正
- 수 신 일 : 1936년 01월 11일
- 관련인물 : 李良載, 鄭永濤, 石惠煥, 具滋弘, 具喜書, 金元植,
金興鍾, 李順應, 崔靑龍, 具昶書, 姜達永
- 하남관련 인물 : 구자홍, 구희서
- 관련단체 : 不老商會

2. 秘密結社 廣州共產黨協議會 事件 檢舉에 관한 件

- 문서철명 : 警察情報綴 拱(昭和 11년)
- 문서제목 : 秘密結社 廣州共產黨協議會 事件 檢舉에 관한 件

- 문서번호 : 地檢秘 제36호
- 발 송 자 : 京城地方法院 檢事正
- 발 송 일 : 1936년 01월 11일
- 수 신 자 : 法務局長 등
- 수 신 일 : 1936년 01월 11일
- 관련인물 : 李良載, 鄭永潏, 石惠煥, 具滋弘, 具喜書, 具完會,
崔靑龍, 金貴用, 姜達永, 具昶書, 具承會, 具本興,
金興鍾, 金元植, 李順應
- 하남관련인물 : 구자홍, 구희서, 구승희, 구완희
- 관련단체 : 廣州共產黨協議會, 不老商會 鷺梁津支店,
永登浦警察署, 龍一酒店 西部支店
- 사 건 명 : 秘密結社 廣州共產黨協議會事件
- 관련서명 : 京城日報, 朝鮮日報, 每日申報
- 첨부자료 京高特秘 제46호 秘密結社 廣州共產黨協議會 事件 檢舉
에 관한 件

3. 비밀결사 광주공산당협의회 검거에 관한 건1

- 문서철명 : 警察情報綴 拱(昭和 11년)
- 문서제목 : 秘密結社 廣州共產黨協議會 檢舉에 관한 件 1
- 문서번호 : 地檢秘 제56호
- 발 송 자 : 京城地方法院 檢事正
- 발 송 일 : 1936년 01월 16일

- 수 신 자 : 法務局長 등
- 수 신 일 : 1936년 01월
- 관련인물 : 具本興, 李良載, 鄭永潁, 具承會, 金興鍾, 石惠煥, 崔靑龍, 姜達永, 具和書, 李順應, 具滋弘, 具喜書, 金元植, 石奇峰, 金貴用, 具完會
- 하남관련인물 : 구승희, 구자홍, 구희서, 구완희
- 관련단체 : 廣州共產黨協議會, 鍾路警察署, 不老酒商會 鷺梁津支店, 龍山警察署, 永登浦警察署, 南漢勞動共助會, 新幹會 廣州支會, 京城工業學校, 龍一酒場 西部支店, 朝鮮神宮
- 사 건 명 : 秘密結社 廣州共產黨協議會事件
- 첨부자료 : 永警高秘 제278호 秘密結社 廣州共產黨協議會 檢舉에 관한 件

4. 秘密結社 廣州共產黨協議會 檢舉에 관한 件 2

- 문서철명 : 警察情報綴 拱(昭和 11년)
- 문서제목 : 秘密結社 廣州共產黨協議會 檢舉에 관한 件 2
- 문서번호 : 永警高秘 제278호
- 발 송 자 : 永登浦 警察署長
- 발 송 일 : 1936년 01월 14일
- 수 신 자 : 京城地方法院 檢事正 등
- 수 신 일 : 1936년 01월 16일

- 관련인물 : 具本興, 李良載, 具承會, 金興鍾, 石惠煥, 崔靑龍, 鄭永潏, 姜達永, 具昶書, 具喜書, 具滋弘, 李順應, 金元植, 金貴用, 具完會
- 하남관련인물 : 구승희, 구자홍, 구희서, 구완희
- 관련단체 : 廣州共產黨協議會, 鍾路警察署, 不老酒商會 鶯梁津支店, 龍山警察署, 廣州協同組合, 新幹會 廣州支會, 京城工業學校, 朝鮮神宮, 原州警察署, 南漢勞動共助會, 龍一酒場 西部支店
- 사 건 명 : 秘密結社 廣州共產黨協議會事件

5. 秘密結社 廣州共產黨協議會 檢舉 送局에 관한 件

- 문서철명 : 警察情報綴 拱(昭和 11년)
- 문서제목 : 秘密結社 廣州共產黨協議會 檢舉 送局에 관한 件
- 문서번호 : 永警高秘 제1124호
- 발 송 자 : 永登浦 警察署長
- 발 송 일 : 1936년 03월 09일
- 수 신 자 : 京城地方法院 檢事正 등
- 수 신 일 : 1936년 03월 12일
- 관련인물 : 李良載, 金興鍾, 李順應, 金元植, 鄭永培(일명 鄭永潏), 石惠煥, 金貴用, 姜達永, 具昶書, 具承會, 具滋弘, 具喜書, 具完會, 具本興, 朴昌禧, 石衍煥, 崔基喆, 馬秉億, 許長福, 姜炫辰, 李吉載, 朴準浩, 具廷書, 마르크스, 卞重熙, 金世豐, 具滋欽, 李重習, 李奇淳, 金銅植, 石永均,

具完書, 崔靑龍, 石壽均, 宣鎭秀, 李承吉, 宣天秀, 張錫眞, 李在善, 秋斗鎬, 레닌

- 하남관련인물 : 구승희, 구자홍, 구희서, 구완희
- 관련단체 : 廣州共產黨協議會, 不老酒場 鶯梁津支店, 京城地方法院, 私立廣興學校, 全州巡查教習所, 釋王寺 佛教研究所, 朝鮮佛教布教所, 廣州勞農產業獎勵會, 南漢山勞動共助會, 廣州協同組合, 新幹會 廣州支會, 元山勞動組合, 廣州警察署, 廣州協同組合, 南漢山公立普通學校, 南漢少年會, 南漢勞動共助會, 廣州公立普通學校, 傲新學校, 京城基督教青年學館, 리미즈마紐製造會社, 京都基督教青年會, 京都 西陳警察署, 京都 下鴨警察署, 京城 大同印刷所, 培材高等普通學校, 間島共產黨, 廣州共產黨青年會, 廣州共產黨準備會, 朝鮮共產黨, 中央高等普通學校, 京城不老酒場 本店, 朝鮮神宮, 朝鮮皮革會社, 安養人絹會社, 朝鮮織物株式會社, 龍一酒場, 龍山警察署, 京信酒場, 德興書林, 日本共產黨, 京城高等工業學校
- 사 건 : 秘密結社 廣州共產黨協議會事件, 間島共產黨事件, 日本共產黨事件, 元山勞動爭議
- 서 명 : 共產黨事件의 眞相, 露國革命史와 레닌, 이러타, 衝擊隊, 인터내셔널, 社會問題講座, 大衆之友, 레닌의 一生記, 建設期の 소비에트文學, 戰略戰術史議錄, 樂天囚人, 나가자, 無產者政治教程, 農民鬪爭, 戰旗, 群旗

- 기 타 : 治安維持法, 夜學講習會事件, 民族單一主義, 共產主義, 無產大衆, 民族主義, 消費組合論, 러시아革命, 日本帝國主義, 三月革命, 메이데이, 無產階級
- 첨부자료 : 誓約文, (秘密結社 廣州共產黨協議會 檢舉 被疑者로부터 압수한)書籍名

6. 秘密結社 廣州共產黨協議會 事件 檢舉에 관한 件

- 문서철명 : 警察情報綴 拱(昭和 11년)
- 문서제목 : 秘密結社 廣州共產黨協議會 事件 檢舉에 관한 件
- 문서번호 : 京高特秘 제731호
- 발송자 : 京畿道 警察部長
- 발송일 : 1936년 04월 09일
- 수신자 : 警務局長 등
- 수신일 : 1936년 04월 11일
- 관련인물 : 李良載(不老酒釀造場 鷺梁津支店 書記, 廣州協同組合 常務理事), 鄭永培(일명 鄭永潏, 南漢山少年會 德育部長 및 文藝部長, 廣州共產黨協議會 教養部 및 調查宣傳部責任), 石惠煥(廣州勞農產業獎勵會 執行委員長, 南漢山勞動共助會 執行委員長, 新幹會 廣州支會長, 廣州協同組合 組合長, 廣州共產黨協議會 秘書), 金元植, 金興鍾(廣州協同組合 理事), 崔靑龍, 具滋弘(廣州協同組合 理事, 廣州共產黨協議會 經財部責任), 具本興(廣州

協同組合 理事，組合長，廣州共產黨協議會 經財部責任)，具承會(廣州協同組合 理事，廣州共產黨協議會 教養部責任)，具稔書，具喜書(面書記，廣州協同組合 理事)，具完會，李順應，金貴用，姜達榮，延吉福，朴昌禧，石衍煥，崔基喆(南漢勞動共助會 執行委員長)，馬秉億，許長福，姜炫辰(廣州勞農產業獎勵會 常務委員)，마르크스，曹安得，李吉載(廣州勞農產業獎勵會 總務委員)，朴準浩(廣州勞農產業獎勵會 常務委員)，具延書(廣州勞農產業獎勵會 常務委員)，卞重熙(廣州協同組合 專務理事)，金世豐(廣州協同組合 理事)，具滋欽(廣州協同組合 理事)，李重習(廣州協同組合 理事)，李奇淳(廣州協同組合 幹事)，金銅植(間島共產黨事件 關係者)，石永均，石壽均，宣鎮秀，張錫眞，宣天秀，秋斗鎬，李在善，레닌

○ 하남관련인물 : 구승희, 구자홍, 구희서, 구완희

○ 관련단체 : 南漢勞動共助會，廣州協同組合，不老酒釀造場 鶯梁津支店，永登浦警察署，新幹會，廣州共產黨協議會，西大門刑務所，朝鮮佛教研究所，私立廣興學校，全州巡查教習所，釋王寺 佛教研究所，朝鮮佛教布教所，光明眼鏡店，廣昌旅館，廣州勞農產業獎勵會，南漢山勞動共助會，新幹會 廣州支會，元山勞動組合，廣州警察署，南漢山公立普通學校，南漢山少年會，京都基督教青年會，京都 西陣警察署，京都 下加茂警察署，南漢勞動共助會 附設 夜學部，培材高等普通學校，中央高等普通學校，龍一酒釀造

場, 朝鮮神宮, 龍山警察署, 京城高等工業學校, 露西亞共產黨, 京都市 松原通 미즈마紐製造會社, 廣州共產黨準備會, 朝鮮共產黨, 京信酒場, 間島共產黨, 廣州共產黨青年會, 日本共產黨

- 사건명 : 秘密結社 廣州共產黨協議會事件, 間島共產黨事件, 廣州共產黨協議會 第一回 創立準備委員會, 日本共產黨事件, 元山勞動爭議
- 관련서명 : 準備(廣州共產黨協議會 機關紙), 마르크스의 消費組合論, 露西亞의 三月革命(廣州共產黨協議會 機關紙), 四月 十六日 日本共產黨事件, 레닌의 誕生, 五月 메이데이, 南漢勞動組合의 解体를 보라
- 기타 : 治安維持法, 元山勞動爭議, 夜學講習會事件, 消費組合論, 民族單一主義, 共產主義, 無產大衆, 民族主義, 消費組合論, 러시아革命, 日本帝國主義, 三月革命, 十一月革命, 메이데이, 小부르주아단체, 프롤레타리아, 國際勞動祭日, 마르크스紀念日
- 첨부자료 : (黨員)誓約文, 『準備』 제3호(1935.04.04, 廣州共產黨協議會 機關紙)

7. 秘密結社 廣州共產黨協議會 事件 檢學에 관한 건

- 문서철명 : 警察情報 寫(副本)(昭和 11년)
- 문서제목 : 秘密結社 廣州共產黨協議會 事件 檢學에 관한 건

- 문서번호 : 京高特秘 제731호
- 발 송 자 : 京畿道 警察部長
- 발 송 일 : 1936년 04월 09일
- 수 신 자 : 警務局長 등
- 수 신 일 : 1936년 04월
- 관련인물 : 李良載(不老酒釀造場 鶯梁津支店 書記, 廣州協同組合 常務理事), 鄭永培(일명 鄭永潏, 南漢山少年會 德育部長 및 文藝部長, 廣州共產黨協議會 教養部 및 調查宣傳部責任), 石惠煥(廣州勞農產業獎勵會 執行委員長, 南漢山勞動共助會 執行委員長, 新幹會 廣州支會長, 廣州協同組合 組合長, 廣州共產黨協議會 秘書), 金元植, 金興鍾(廣州協同組合 理事), 崔靑龍, 具滋弘(廣州協同組合 理事, 廣州共產黨協議會 經財部責任), 具本興(廣州協同組合 理事, 組合長, 廣州共產黨協議會 經財部責任), 具承會(廣州協同組合 理事, 廣州共產黨協議會 教養部責任), 具昶書, 具喜書(面書記, 廣州協同組合 理事), 具完會, 李順應, 金貴用, 姜達榮, 延吉福, 朴昌禧, 石衍煥, 崔基喆(南漢勞動共助會 執行委員長), 馬秉億, 許長福, 姜炫辰(廣州勞農產業獎勵會 常務委員), 마르크스, 曹安得, 李吉載(廣州勞農產業獎勵會 總務委員), 朴準浩(廣州勞農產業獎勵會 常務委員), 具延書(廣州勞農產業獎勵會 常務委員), 卞重熙(廣州協同組合 專務理事), 金世豐(廣州協同組合 理事), 具滋欽(廣州協同組合

理事), 李重習(廣州協同組合 理事), 李奇淳(廣州協同組合 幹事), 金銅植(間島共產黨事件 關係者), 石永均, 石壽均, 宣鎮秀, 張錫眞, 宣天秀, 秋斗鎬, 李在善, 레닌

○ 관련단체 : 南漢勞動共助會, 廣州協同組合, 不老酒釀造場 鶯梁津支店, 永登浦警察署, 新幹會, 廣州共產黨協議會, 西大門刑務所, 朝鮮佛教研究所, 私立廣興學校, 全州巡查教習所, 釋王寺 佛教研究所, 朝鮮佛教布教所, 光明眼鏡店, 廣昌旅館, 廣州勞農產業獎勵會, 南漢山勞動共助會, 新幹會 廣州支會, 元山勞動組合, 廣州警察署, 南漢山公立普通學校, 南漢山少年會, 京都基督教青年會, 京都 西陣警察署, 京都 下加茂警察署, 南漢勞動共助會 附設 夜學部, 培材高等普通學校, 中央高等普通學校, 龍一酒釀造場, 朝鮮神宮, 龍山警察署, 京城高等工業學校, 露西亞共產黨, 京都市 松原通 미즈마紐製造會社, 廣州共產黨準備會, 朝鮮共產黨, 京信酒場, 間島共產黨, 廣州共產黨青年會, 日本共產黨

○ 사건명 : 秘密結社 廣州共產黨協議會事件, 間島共產黨事件, 廣州共產黨協議會 第一回 創立準備委員會, 日本共產黨事件, 元山勞動爭議

○ 관련서명 : 準備(廣州共產黨協議會 機關紙), 마르크스의 消費組合論, 露西亞의 三月革命(廣州共產黨協議會 機關紙), 四月 十六日 日本共產黨事件, 레닌의 誕生, 五月 메이데이, 南漢勞動組合의 解体를 보라

- 기 타 : 治安維持法, 元山勞動爭議, 夜學講習會事件, 消費組合論, 民族單一主義, 共產主義, 無產大衆, 民族主義, 消費組合論, 러시아革命, 日本帝國主義, 三月革命, 十一月革命, 메이데이, 小부르주아團體, 프롤레타리아, 國際勞動祭日, 마르크스紀念日
- 첨부자료 : (黨員)誓約文, 『準備』 제3호(1935.04.04, 廣州共產黨協議會 機關紙)

나. 신문보도

1. 조선중앙일보 보도

- 기사제목 : 광주공산협 의사건 관계자 8명 기소,
경성지방법원 공판으로 회부,
5명은 불기소 석방
- 발행년월일 1936-03-17
- 면수 : 02
- 단수 : 04
- 주요내용 : 최청룡(崔靑龍)과 구희선(具喜善) 등 다섯명은 기소중지로 석방되고 8명은 기소되어 공판에 회부됨(8명 : 석혜환, 정영호, 김홍중, 구분홍, 구자홍, 이양재, 구창서, 구승회)

2. 동아일보 보도

- 제 목 : 경기도 廣州共產黨協議會事件으로 구속된 石惠(啓)煥.
- 년 월 일 : 날 짜 : 1936년 03월 05일
- 출 전 : 동아일보 1936. 3. 6. 일제하사회운동사자료집 3 p.
123
- 내 용 : 경기도 廣州共產黨協議會事件으로 구속된 石惠(啓)煥.
鄭榮信 등 10명, 경성지방법원으로 송국됨.

- 제 목 : 京畿道 廣州共產黨協議會를 조직하여
- 년 월 일 : 1936-03-17
- 내 용 : 京畿道 廣州共產黨協議會를 조직하여 활동하였다는 혐
의로 체포되었던 石惠煥 등 12名에 대한 治安維持法
違反事件이 公判에 廻附되다.

永警高秘第一七三號

昭和十一年一月十日

永登浦警察署

京坂地方法院検事正 敬

教密結社組織ニ関スル件

管内始興郡北面本洞里并在不老高
會支店書記李良載ナルモノハ最近京
坂市内居住不良女人間ヲ屢ニ性
来シ其行動容疑ノ点アルヲ以テ
注意中ニ屬客年十二月二十九日反

一 警 察 官 署

一 警 察 官 署

人ナル廣州郡中部面山城里居住鄭
永濤ナルモノニ對シヨ君ノ所持セル左傾
書籍ハ此ノ際處理スヘシ云々トノ通
信ヲ為シタル旨聞込ミタルヲ以テ全
年十二月三十日李良載ヲ本署ニ同行
取調ハタルニ鄭永濤間ニ何等
カノ教密行動ヲ為シ居ルヤノ疑アリ
タルヲ以テ本年一月七日以来鄭永濤
外左記ハ名ヲ本署ニ同行目下取調
中ニ休キ一應報告ス

本籍廣州郡中部面山城里四七九番地
住所右全

養蚕業

石惠煥

當四十五年

本籍廣州郡中部面山城里一三八番地
住所右全

自轉車修繕業

鄭永洋

當三十五年

本籍廣州郡西部面廿一里二四六番地
住所石全

警察官醫

木工

具滋弘

當三十五年

本籍廣州郡西部面廿一里三三八番地
住所右全

面書記(西部面)

具喜書

當三十三年

本籍廣州郡中部面山城里二六八番地
住所始興郡西二面安養里金元植方

店員

金興鍾

當三十四年

本籍廣州郡中部面山城里三四三番地

警察官醫

住所始興郡西面安樂里 全元植方
店員 李順應

當三十年

本籍廣州郡中部面山城一四三番地

住所右全

人絹行商

崔青龍

當三十二年

本籍廣州郡中部面山城五三四番地

住所仁川府花平里二七五番地

眼鏡商

具祖壽 三十五年

本籍廣州郡中部面山城四八番地

一警 察 官 醫

住所右全

農業

姜建永

當三十五年

비밀결사 광주인산당협의회 사건 검거

地檢秘第 五二 號

控

昭和十一年一月十一日

檢事正

京城地方法院檢事正

京南總署

法務局長

高等法院檢事長 殿

忠恕館總署

秘密結社廣州共產黨協議會事件
檢擧ニ関スル件

首題ノ件ニ付京畿鐵道

警察署長ヨリ別紙

寫ノ通報告アリタリ

同文報告先
〔法務局局長〕
〔高等法院檢事長〕
〔京城控審法院檢事長〕

追テ、本件、昭和十一年一月九日京城日報夕刊ニ

「赤イ事件」ト題シ、今月十日朝鮮日報夕刊ニ
「地下工作準備中廣州青年十三名路上拾
得封筒書ガ端緒トナリ永登浦署ニ於テ
檢擧」ト題シ、今月十日朝刊毎日申報ニ
「永登浦中心ノ赤色秘社綻露」ト題シ、各々
掲載セラレ居ルヲ以テ申添フ 以上

京高特執第四六號

昭和十一年一月十日

京畿道警察部



警務局長殿
京畿道方法院檢事正殿

秘密結社廣州共産党協議會事件
檢舉ニ関スル件

管下始興郡北面本洞里所在不花商會支店書記李良載
ハ最近屢ニ京城方面居住友人間ヲ往來スル等行動
疑ノ夫アルヲ以テ所轄永登浦警察署ニ於テ注意中ノ
處容年十二月二十九日管下廣州郡中部面山城里居住

ノ友人鄭永潁ニ對シ「君ノ所持セル九傾書籍ハ此ノ
際處理シ置クヘシ」云々ノ通信ヲ為シタル旨聞込ミ
旧臘三十日李良載ヲ令署ニ同行取調ヘタルモ言ヲ左
右ニシテ要領ヲ得ス更ニ一月七日前記鄭永潁ヲ本籍
地ヨリ令署ニ同行取調ヘタルニ容年旧正月初旬來廣
州共産党協議會ナル秘密結社ヲ結成活動中ナルコト
踏判明スルニ至レルヲ以テ其ノ一味タル左記者等ヲ
順次檢舉引續キ嚴重搜查中ナリ
右一應報告ス

左記

本籍 廣州郡中部面山城里四七九番地
住所 右全

養蚕業 石 惠 煥 當四十五年

本籍 廣州郡中部面山城里一三八番地
住所 右全

自轉車修繕業 鄭 永 潯 當三十五年

本籍 廣州郡西部面廿一里
住所 右全

木工 吳 滋 弘 當三十五年

本籍 廣州郡西部面廿一里
住所 右全

面書記(西部面) 具 喜 書 當三十五年

本籍 廣州郡西部面廿一面

住所 右全

農業 具 兒 會 當三十五在

本籍 廣州郡中部面山城里一四三番地
住所 右全

人絹行商 崔 青 龍 當三十二年

本籍 廣州郡中部面山城里
住所 江原道原州郡神林面神林市 右奇峰方

金 貴 甲 當三十五在

本籍 廣州郡中部面山城里
住所 右全

農業 姜 達 永 當三十五年

本籍 廣州郡中部面山城里
住所 仁川府花平里

本籍 眼鏡商 具 租 官 當二十三年
住所 廣州郡西部面甘一里
京城府橋南洞以下不詳
龍一酒店西部支店書記

(報署 權差 安健 (其下 手 取 綱 中))

本籍 廣州郡九川面道村里
住所 右全 具 承 會 當二十七年位

○ 本籍 農業 具 本 興 當二十八年位

住所 廣州郡中部面山城里二六八番地
始興郡西二面安養里

本籍 店員 金 興 鍾 當三十四年
住所 廣州郡西部面山城里番地不詳
始興郡西二面安養里 金元植方

○ 本籍 店員 李 順 楚 當三十年
住所 廣州郡中部面山城里九四二番地
始興郡北面本洞里三八三番地

不老商會 鸞架津支店
委託 李 良 載 當二十六年

備考

○ 印 八 未 檢 舉

◆ 조선총독 암살계획 관련자료

1. 조선총독 암살미수사건 검거에 관한 건

- 문서철명 : 警察情報綴 拱(昭和 11년)
- 문서제목 : 朝鮮總督暗殺未遂事件 檢舉에 관한 件
- 문서번호 : 京龍高秘 제11151호
- 발 송 자 : 京城 龍山警察署長
- 발 송 일 : 1936년 01월 24일
- 수 신 자 : 京畿道 警察部長 등
- 수 신 일 : 1936년 01월 29일
- 관련인물 : 曹安得(일명 曹안드리아), 金九, 宇垣一成(朝鮮總督), 崔榮鎭, 李金珍, 印振明, 尹樂三(일명 尹鶴洙), 姜穆求, 鄭泰玉, 金兌鎬, 曹雅各(일명 曹千福), 具承會, 曹守福, 李雲燮, 徐今順, 李山玉, 林春玉, 吳芙蓉, 蔡駟錫, 伊藤博文, 安重根
- 관련단체 : 龍一酒釀造場, 朝鮮總督府, 水原公立普通學校, 香山印刷所, 近蓀印刷所, 新東潭印刷所, 重石鑛山, 社會主義讀書會, 片岡印刷所, 東洋自動車部, 天興商會, 順興商會, 京城菓子會社, 세브란스病院, 朝鮮銀行, 東洋拓殖株式會社 京城支店, 咸興警察署, 基督教聖公會

2. 조선총독 암살미수사건 검거에 관한 건

- 문서철명 : 警察情報 寫(副本)(昭和 11년)
- 문서제목 : 朝鮮總督 暗殺未遂事件 檢舉에 관한 건
- 문서번호 : 京龍高秘 제11151호
- 발 송 자 : 京城 龍山警察署長
- 발 송 일 : 1936년 01월 24일
- 수 신 자 : 京畿道 警察部長 등
- 수 신 일 : 1936년 01월 29일
- 관련인물 : 李雲燮, 曹安得(일명 曹안드리아), 金九, 宇垣一成(朝鮮總督), 具承會, 曹雅各(일명 曹千福), 崔榮鎭, 尹樂三(일명 尹鶴洙), 李金珍, 姜穆求, 鄭泰玉, 金兌鎬, 印振明, 曹守福, 徐今順, 李山玉, 崔業鍾, 韓壽玉, 吳芙蓉, 蔡駟錫, 伊藤, 安重根
- 관련단체 : 龍一酒釀造場, 南京軍官學校, 順興商會, 片岡印刷所, 水原公立普通學校, 香山印刷所, 近藤印刷所, 新東洋印刷所, 龍一酒釀造場 東部支店, 龍一酒釀造場 西部支店, 鐵道郵便局, 東洋自動車部, 京城菓子會社, 朝鮮神宮, 咸興警察署, 京城覆審法院, 社會主義讀書會, 基督教 聖公會
- 사 건 : 曹安得 등의 宇垣一成 總督 暗殺未遂事件, 朝鮮共產黨 青年同盟 再建運動事件
- 첨부자료 : (朝鮮總督 暗殺未遂事件 관련)取調狀況

京龍高秘第一二五二號
 昭和十一年一月二十四日
 京畿道警察部長
 京畿道地方法院檢察官
 京畿道各警察署長
 水原警察署長
 元山警察署長
 坡州警察署長
 廣州警察署長
 總督暗殺計畫者檢舉
 檢舉
 關件

11.29
 124

3. 총독 암살계획자 검거에 관한 건

- 문서철명 : 警察情報 寫(副本)(昭和 11년)
- 문서제목 : 總督 暗殺 計劃者 檢舉에 관한 건
- 문서번호 : 京高特秘 제243호
- 발 송 자 : 京畿道 警察部長
- 발 송 일 : 1936년 02월 06일

- 수 신 자 : 警務局長 등
- 수 신 일 : 1936년 02월
- 관련인물 : 색인어 이름 : 曹安得(일명 曹안드리아), 李雲燮, 伊藤, 安重根, 李金珍, 曹守福, 曹雅各(일명 曹千福), 印振明, 宇垣(總督), 崔榮鎭, 尹樂三(일명 尹鶴洙), 具承會, 林凡振, 李鍾和, 徐今順, 奉公先, 李山玉, 林春玉, 吳芙蓉, 姜穆求, 鄭泰玉, 金兌鎬, 蔡駟錫
- 관련단체 : 水原公立普通學校, 龍一酒釀造場, 龍山警察署, 京城地方法院 檢事局, 順興商會, 片岡印刷所, 龍一酒釀造場 東部支店, 香山印刷所, 近藤印刷所, 新東洋印刷所, 基督教 聖公會, 水原勞動組合 出版部, 龍一酒釀造場 西部支店, 鐵道郵便局, 東洋自動車部, 廣昌樓, 朝鮮銀行, 東洋拓殖株式會社 京城支店, 朝鮮神宮, 咸興警察署, 京城覆審法院, 社會主義讀書會, 大奧商會
- 사 건 : 曹安得 등의 宇垣一成 總督 暗殺未遂事件, 朝鮮共產黨 青年同盟 再建運動
- 기 타 : 治安維持法違反, 爆發物取締罰則, 銃砲火藥類取締令
- 첨부자료 : (總督 暗殺 計劃者 檢舉에 관한)犯罪事實 概要, 爆發物 圖面 第1,2,3號

4. 총독암살계획자 검거에 관한 건

- 문서철명 : 警察情報綴 拱(昭和 11년)

- 문서제목 : 總督暗殺計劃者 檢舉에 관한 件
- 문서번호 : 地檢秘 제9999호
- 발 송 자 : 京城地方法院 檢事正
- 발 송 일 : 1936년 02월 08일
- 수 신 자 : 法務局長 등
- 수 신 일 : 1936년 02월 08일
- 관련인물 : 曹安得(일명 曹안드리아), 李雲燮, 伊藤博文, 安重根,
李金珍, 印振明, 宇垣一成(朝鮮總督), 崔榮鎮,
尹樂三(일명 尹鶴洙), 具承會, 曹雅各(일명 曹千福),
林凡振, 李鍾和, 徐今順, 李山玉, 林春玉, 吳芙蓉,
姜穆求, 鄭泰玉, 曹守福, 金兌鎬, 蔡駟錫
- 관련단체 : 龍一酒釀造場, 水原公立普通學校, 龍山警察署,
香山印刷所, 近藤印刷所, 新東洋印刷所, 基督教
聖公會, 水原勞動組合, 片岡印刷所, 天興商會,
세브란스病院, 朝鮮銀行, 東洋拓殖株式會社 京城支店,
朝鮮神宮, 咸興警察署, 京城覆審法院,
朝鮮共產青年同盟, 社會主義讀書會
- 사 건 : 總督暗殺計劃, 朝鮮共產青年同盟 再建運動
- 기 타 : 治安維持法, 同盟罷業, 共產主義
- 첨부자료 : 京高特秘 제243호 總督暗殺計劃者 檢舉에 관한 件

京高折紙第一四二號

昭和十一年一月六日

京畿道警界部長

警務局 敬

京城地方法院在事正 敬

各道警界部長 敬

京畿道大塚長 敬

管下各警界部長 敬

總督府設計局有檢査二関スル件

本籍 京畿道水原府水原邑德山里一四

住所 京畿道丹波町一五五

龍一河塚造場龍造大監督

地檢秘第 號

昭和十一年二月八日

控

檢事正

京城地方法院檢事正

次席檢事

殿

既報甚済ナル旨、本報在

昭和十一年

總督府設計局者檢査關スル件

首題ノ件ニ付 京畿道 警察署長ヨリ別紙

寫ノ通報告アリタリ

同文報告先 法務局局長
高等法院檢察事長
京城檢査法院檢察事長

◆ 所謂 ‘치안유지법’ 및 ‘국가총동원법’ 위반 등의 죄목으로 복역한 운동가들

○ 구자홍(具滋弘)

생년월일 :

직업 : 大工(木公)

본적 :

주소 : 상동

죄명 : 치안유지법 위반

형명 및 형기 : 징역 1년

출소연월일 : 소화 11년 4월 20일

형무소명 : 서대문형무소

기타 : 3년간 형집행유예로 출감

○ 안병국(安秉國)

생년월일 :

신분직업 : 학생

본적 :

주소 :

죄명 : 치안유지법 위반

형명형기 : 징역 1년 6개월

출소연월일 : 소화10년 12월 20일

형무소명 : 서대문형무소

○ 김현문(金顯文)

생년월일 :

본 적 :

출 생 지 : 상동

주 소 : 상동

죄 명 : 국가총동원법 위반

형명 및 형기 : 4개월(30일 감)

언도관서 : 경성지방

언도연월일 : 소화17년 2월 16일

출소연월일 : 소화17년 5월 17일

○ 박흥렬(朴興烈)

생년월일 :

신 분 : 농업

본 적 :

주 소 : 상동

죄 명 : 국가총동원법 위반

형명형기 : 징역 1년

언도관서 : 경성지방법원

언도연월일 : 소화 18년 4월 9일
입소연월일 : 소화 18년 1월 11일
출소연월일 : 소화 19년 4월 9일
형무소명 : 서대문형무소

○ 안병균(安秉均)

생년월일 :
직업 : 농업
본적 :
주소 : 상동
죄명 : 국가총동원법 위반
형명형기 : 징역 6개월
언도관서 : 경성지방법원
언도연월일 : 소화17년 6월 1일
출소연월일 : 소화17년 12월 1일
형무소명 : 서대문형무소

○ 안용웅(安龍雄, 또는 安龍煥)

생년월일 :
직업 : 농업
본적 :
주소 : 상동
죄명 : 국가총동원법 위반

형명형기 : 징역 6개월
언도관서 : 경성지방법원
언도연월일 : 소화 17년 6월 1일
입소연월일 : 소화 17년 6월1일
출소연월일 : 소화 17년 12월 1일
형무소명 : 서대문형무소

○ 이승동(李昇童)

생년월일 :
직업 : 농업
본적 :
주소 : 상동
죄명 : 국가총동원법 위반
형명형기 : 징역 단기 6개월 장 2개월
언도관서 : 경성지방법원
언도연월일 : 소화 17년 8월 24일
입소연월일 : 소화 17년 9월 1일
출소연월일 : 소화 18년 3월 1일 / 소화19년 9월 1일
형무소명 : 서대문형무소

○ 이무성(李武成 또는 李源國)

생년월일 :
직업 : 농업

본 적 :

주 소 :

죄 명 : 국가총동원법 위반

형명형기 : ?

연도관서 : 경성지방법원

연도연월일 : 소화 ?년 9월 1일

입소연월일 : 소화 17년 9월 1일

출소연월일 : 소화 16년 9월 1일

형무소명 : 서대문형무소

구자홍 수형기록카드

氏名	具 滋 弘		異名	42100		指紋號	1-1-1-1-1-1-1-1-1-1	
年齡	昭和 44年 2月 15日		日生			手口番號	第 號	
身分	職業	大工		身長	尺 寸 分		特徵番號	第 號
本籍	京 畿 道 京 畿 道 京 畿 道 京 畿 道 京 畿 道 京 畿 道 京 畿 道 京 畿 道 京 畿 道		縣	市	郡	面	里	番地
生地	京 畿 道 京 畿 道 京 畿 道 京 畿 道 京 畿 道 京 畿 道 京 畿 道 京 畿 道 京 畿 道		縣	市	郡	面	里	番地
住居	京 畿 道 京 畿 道 京 畿 道 京 畿 道 京 畿 道 京 畿 道 京 畿 道 京 畿 道 京 畿 道		縣	市	郡	面	里	番地
最	譯名	治安維持班班長			其他前科	檢 舉		
	刑名刑期	懲役	1年 月 日		出監 三年間刑執行猶予			
首渡官署								
近	首渡年月日	昭和	年	月 日				
	入所年月日	昭和	年	月 日				
刑	出所年月日	昭和	1年 4月 20日					
	刑務所名	西大門 刑務所 支所						
檢舉官署	道 警察署							



안병국 수형기록카드

77-220

氏名	安秉國		異名	秉潤	指紋番號	1-9 8 8 5 9 9	
年齡	大正	三年	十一月	下	生日	手口番號	第
身分	普通	職業	學生	身長	尺	寸	分
本籍	高平	縣道	市郡	町面	村	番地	常用手口番號
生地	〃	縣道	市郡	町面	村	番地	J 11
住居	京城	縣道	市郡	町面	村	番地	
最近	罪名	治安維持法違反			其他前科	檢舉	
	刑名刑期	懲役禁錮	1年	〇	監	四年間刑執行終了	
	曹渡官署						
	入所年月日	昭和	年	月	日		
	出所年月日	昭和	10年	12月	20日		
刑務所名	西大門	刑務所	支所				
檢舉官署	道 警察署						

	 <p style="text-align: center;">安秉國 25587</p>	<p>2</p> <p>刑執行終了</p>
昭和 9 年 11 月 5 日 西大門刑務所 於之撮影 保存原板 (小) 第 25587 番		

박흥렬 수형기록카드

氏名	朴村興烈 (225) 異名 朴改 ²⁴		指番 紋號	1-257-25	
年齡	明治24年 11月 17日生		手口番號	第 號	
身分	職業 農子	身長 尺 米 寸 分	特番番號	第 號	
本籍	京畿 道 橫井 郡 冬山 村里 150 番地	常用手口番號			
生地	" 道 " " " " " " 番地				
住居	" 道 " " " " " " 番地				
最	罪名	國家統制法違反		其他前科	被 擧
	刑名刑期	懲役 禁錮 1年 1月 日			
近	曾渡官署	京城地方法院			
	曾渡年月日	昭和 18年 4月 9日			
刑	入所年月日	昭和 〇年 〇月 〇日			
	出所年月日	昭和 19年 〇月 〇日			
	刑務所名	西大門 刑務所 支所			
檢舉官署	道 警務署				



昭和 18年 3月 31日 西大門刑務所 一於 撮影 保存原板(小) 第 58467 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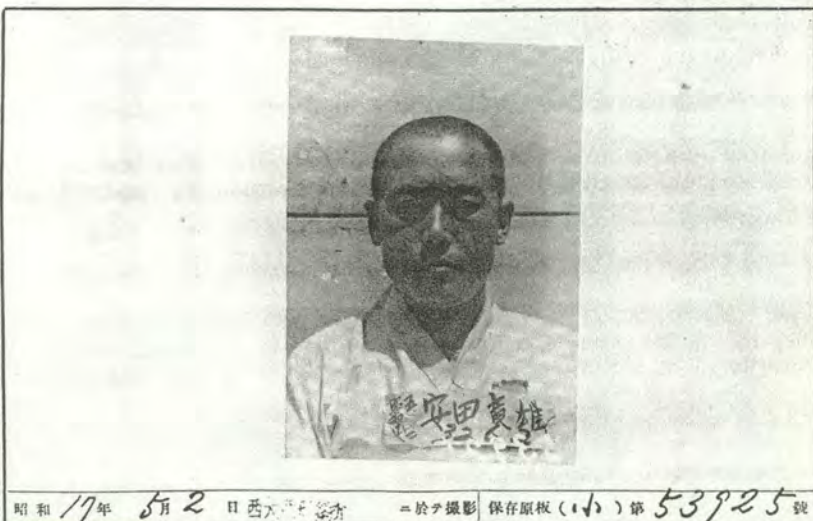
안병균 수형기록카드

氏名	安田秉均	異名	安秉均	指紋號	1-11111111
年齡	大正 5 年 4 月 6 日生			手口番號	第 號
身分	職業	身長	尺 寸 分	特徵番號	第 號
本籍	京畿道 廣州 西部 春宮 里 224	番地	常用手口概要		
生地	道 市 町 村 番地	5112			
住居	合 道 上 市 町 村 番地				
最	罪名	國家總動員法違反		其他前科	檢 舉
	刑名刑期	監禁 年 6 月 1 日			
近	曾渡官署	京城地方法院			
	當渡年月日	昭和 17 年 6 月 1 日			
刑	入省年月日	昭和 年 月 日			
	出省年月日	昭和 17 年 12 月 1 日			
	刑務所名	西大門 刑務所 支所			
檢舉官署	道 警 察 署				

	
昭和 17 年 5 月 2 日	於 7 撮影 保存原板 (小) 第 53923 號

안용웅 수형기록카드

氏名	安田龍雄	異名	10710 安龍煥	指番 紋號	8 2 6 6 7 8 4 7 6 8
年齡	昭和三十九年	生日	五月二十五日	手口番號	第 號
身分	職業	裝束	身長	尺 寸 分	特徵番號
本籍	京畿道 安山府 西面 洞 村 里 164	番地	常用手口番號		
生地	〃 〃 〃 〃 〃 〃 〃 〃 〃 〃	番地			
住居	〃 〃 〃 〃 〃 〃 〃 〃 〃 〃	番地			
最	罪名	兇犯 懲罰 刑法違反		其他前科	檢 罪
	刑名刑期	懲役 禁錮 年 6 月 日			
近	首渡官署	京畿地方法院			
	首渡年月日	昭和 17 年 6 月 日			
刑	入獄年月日	昭和 17 年 6 月 日			
	出所年月日	昭和 17 年 12 月 日			
	刑務所名	西大內 刑務所 支所			
檢 査 官 署	道 警 察 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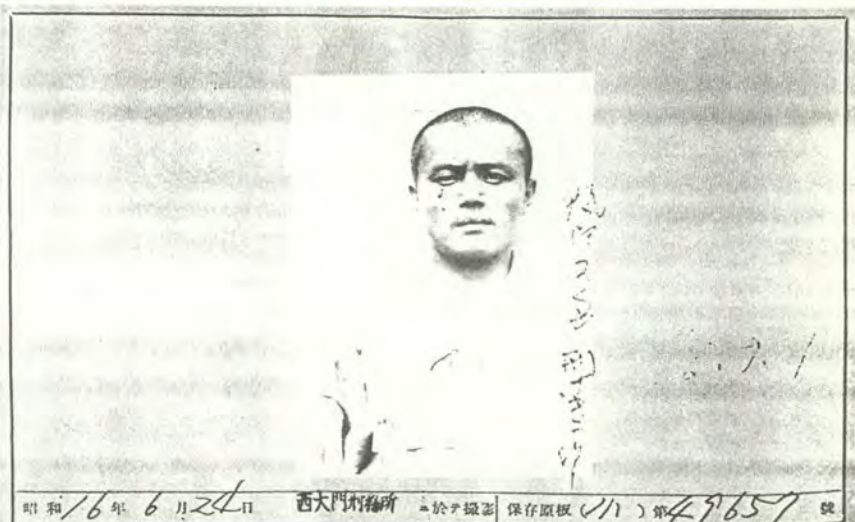
이승동 수형기록카드

氏名	國本昇童		異名	李昇童	指紋號	1 2 3 4 5 6 7 8 9 10	
年齡	大正 13 年 9 月 13 日 生				手口番號	第 號	
身分	職業	農	身長	尺 寸 分	特徵番號	第 號	
本籍	京 畿 道 廣 州 府 西 部 甘 一 村 里 村 里 村 里	73 番 地	常 用 手 口 概 要				
生 地	京 畿 道 廣 州 府 西 部 甘 一 村 里 村 里 村 里	番 地	6131				
住 居	京 畿 道 廣 州 府 西 部 甘 一 村 里 村 里 村 里	番 地					
最 刑	罪 名	同 盜 竊 初 犯 法 道 友			其他前科	檢 舉	
	刑 名 刑 期	懲 役 禁 錮 七 年 八 月 日					
近 刑	罰 渡 官 署	京 畿 道 廣 州 府 西 部 甘 一 村 里 村 里 村 里					
	罰 渡 年 月 日	昭 和 17 年 8 月 24 日					
	入 所 年 月 日	昭 和 17 年 9 月 1 日					
刑	出 所 年 月 日	昭 和 18 年 9 月 1 日					
	刑 務 所 名	西 大 門 刑 務 所 支 所					
檢 舉 官 署	道 警 察 署						



이무성 수형기록카드

氏名	國本武成		異名	國本隆子 李原品	指紋號	1-7-1-1-1-1-1-1	
年齡	44	年	2	月	日	生	手口番號
身分		職業		身長	尺	寸	分
本籍	字	縣道	市郡	町面	村里	番地	常用手口概要
生地		縣道	市郡	町面	村里	番地	7211
住居		縣道	市郡	町面	村里	番地	
最	姓名	國本武成			其他前科	檢 察	
	刑名刑期	監禁 1年2月(常)					
近	官廳官署	京市地					
	宣渡年月日	昭和	16	年	9	月	1
	入所年月日	昭和	16	年	9	月	1
刑	出所年月日	昭和	16	年	9	月	1
	刑務所名	京市地 刑務所			女所		
檢 察 官 署	道			警 察 署			



昭和16年6月24日 西大門刑務所 保存原板 (11) 第49657號

편저자 윤종준(尹鍾俊)

세종대학교 역사학과 박사과정 수료
독립기념관 독립운동자료수집 위원
성남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상임연구위원
성남 3.1운동 기념사업회 사무총장
남상목 의병장 기념사업회 이사
전 하남문화원 사무국장
전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사무처장

河南省 史料集 5

경기도 하남지역 독립운동사

발행인 : 양인석

편집기획 : 이상범, 윤종준

인쇄처 : 유본디자인

발행일 : 2007년 12월

발행처 : 하남문화원

경기도 하남시 덕풍 1동 426-10

Tel. : 031-795-1020

* 이 책은 하남시 문화사업 보조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비매품)

